

1. 과천과 막계리	1
2. 자연마을 막계리	2
3. 막계리 마을구성	3
4. 막계리 마을조직과 생활	4
5. 막계리 마을이 사라지다	5
6. 개발 이후 막계리에 위치한 기관	6

막계리의 어제와 오늘

1. 과천과 막계리
2. 자연마을 막계리
3. 막계리 마을구성
4. 막계리 마을조직과 생활
5. 막계리 마을이 사라지다
6. 개발 이후 막계리에 위치한 기관



1. 과천과 막계리

호남과 호서지방에서 육로로 서울로 오는 여행객은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한남정맥을 만나게 된다. 안성에서 김포까지 서북 방향으로 가로로 놓인 산맥을 통과하려면 그중 평탄한 어느 한 골짜기를 정해 지나가야 한다. 수원에서 서울 사이에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청계산(淸溪山, 618m)과 관악산(冠岳山, 629m), 그리고 수리산 등 큰 산이 가로질러 있다.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로 나아가는 길이 과천길이고, 관악산과 수리산 사이가 시흥길이다. 물론 이 시흥은 현 시흥시가 아니고 금천구 시흥동이다. 과천길을 흐르는 천은 인덕원천이고 시흥 길을 흐르는 천은 군포천이다.

서울로 가려면 수원에서 지지대고개를 넘어 모락산(帽洛山)과 오봉산(五峯山) 사이로 나아가다가 나지막한 갈산(葛山)을 만나 이 두 길로 갈라진다. 지금은 수원에서 1번 국도를 타고 올라오다가 47번 국도로 과천 인덕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머리 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데, 그전에 만나는 구릉지대가 과거 주막도 있었던 갈산의 흔적이다.

조선시대에 수원을 둘러싸던 5개 군현, 즉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중에서 북쪽의 두 개 현이 곧 시흥과 과천이다. 과천은 한남정맥의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이다.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 다녔으므로 과천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이다.

과천의 마을은 길 양쪽으로, 즉 동쪽으로 청계산 기슭과 서쪽으로 관악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관악산 기슭인 갈현동(葛峴洞)과 문원동(文原洞) 일대, 남태령(南泰嶺) 밑인 과천동 일대, 청계산 북쪽 기슭인 주암동(注岩洞)



과천시 전경

일대가 눈에 잘 띈다. 그러나 청계산 골짜기 마을인 막계동(莫溪洞) 일대는 산 속에 가려져 있다.

청계산은 청룡산(靑龍山)으로도 불리었다. 서울에서 보았을 때 좌청룡에 위치해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의왕·성남시의 경계가 되는 청계산 기슭에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은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며, 극심한 가뭄이 들면 정결한 제관을 선정하여 기우제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청계산 상봉인 망경대 중턱은 용의 허리로 알려진 명당이어서 그곳에 묘를 쓰면 그 자손은 대대로 복을 누리지만, 사방 백 리는 한발이 들어서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 그래서 날이 가물면 인근 고을의 사람들이 몰려가 암장한 시신을 파내고 기우제를 지냈고, 그 과정에서 몰래 묘를 쓰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 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았다.

땅이 척박한 과천에서 청계산은 전답을 대신하는 보고(寶庫)였는데, 이 산에서 얻은 나무로 땔나무 장사를 하여 농사만으로는 부족한 살림을 보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계산이 과천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나 산이 논보다 더 귀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나타낸다.



막계리 전경 1



막계리 전경 2



막계리 전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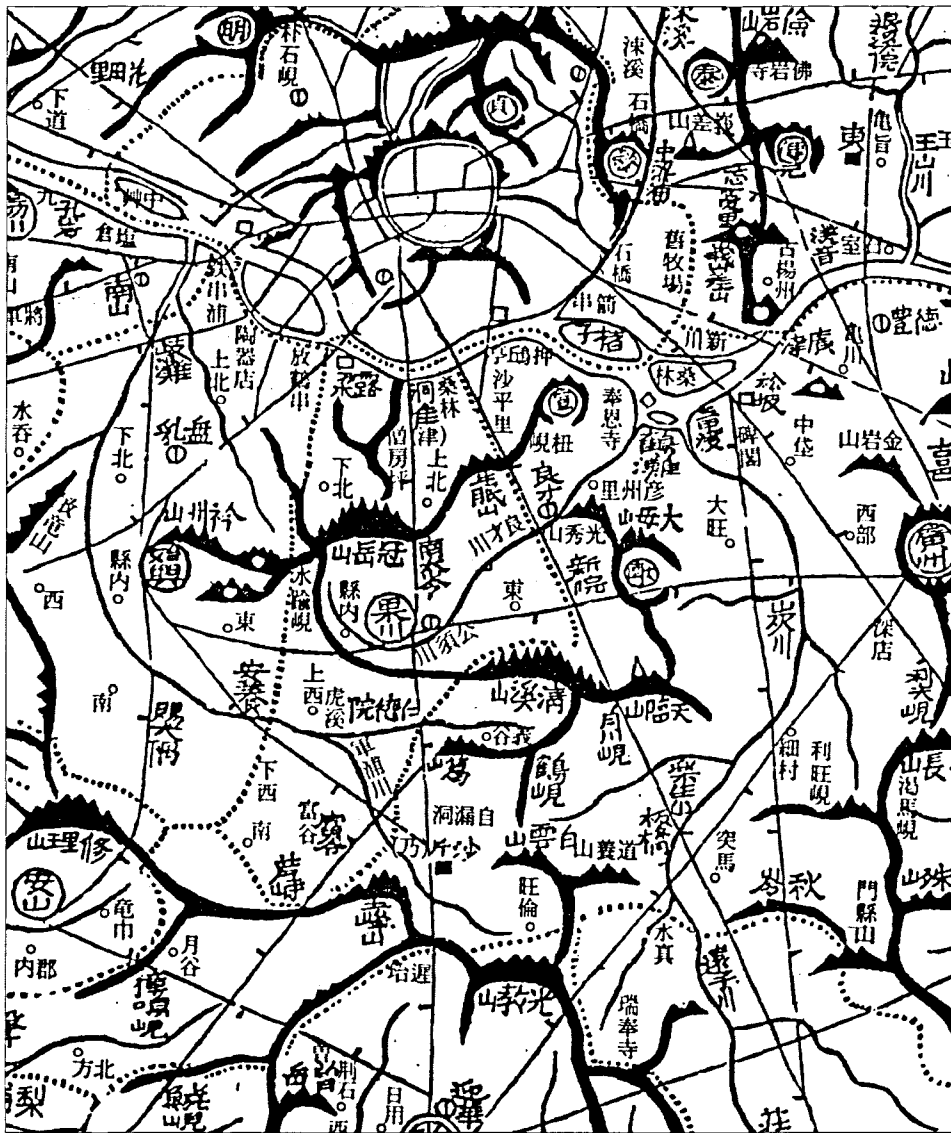


막계리 전경 4

1) 과천과 막계리의 행정구역

삼국시대 백제에 이어 고구려 땅이었던 과천은 신라가 문무왕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그 관할에 들어갔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울진군(栗津郡)은 고려시대에 과주(果州)라고 불렀다. 과주에는 곡양현(穀壤縣), 공암현(孔巖縣), 소성현(邵城縣) 등 세 고을이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과천은 매우 큰 영역이었다. 남쪽으로 지금의 수원인 수성군(水城郡)과 화성군인 당은군(唐恩郡)이 있었고, 북쪽으로 지금의 서울, 광주, 양주, 고양에 해당하는 한양군(漢陽郡)이 있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여주에



「대동여지도」의 과천

해당하는 소천군(洑川郡)이, 안산시와 시흥시인 안산군(安山郡)과 부평과 김포에 해당하는 장제군(長堤郡)이 있었다.

그러나 995년(성종 14)에 곡양이 금주(衿州)로 바뀌면서 독립하였고 1018년(현종 9)에는 공암이 떨어져 나가 지금의 부평에 해당하는 수주(樹州)에 속하게 되었다. 소성도 수주에 속하였다가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되면서 과천의 영역은

좁아지다가 광주가 목(牧)이 되면서 그곳으로 부속된다. 또한 1284년(충렬왕 10)에 한강 북쪽의 용산이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되면서 과천의 영역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과천이란 이름은 조선에 들어와 1413년에 군현 명칭이 변경되면서 생긴 것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경)나 『호구총수(戶口總數)』를 보면 조선시대 과천현은 현내·동·남·상북·하북·상서·하서면 등 모두 7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과천현 영역은 지금의 과천시 일대와 안양시, 군포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 방배동, 방배본동, 서초동, 양재동, 우면동, 잠원동과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동, 본동, 사당동, 흑석동, 동작동, 그리고 관악구 남현동 등이다.

『대동여지도』에는 과천현의 영역이 점선으로 뚜렷이 그려져 있는데, 동쪽은 우면산(牛眠山)에서 청계산에 이르는 곳, 남쪽으로는 지금의 안양시 일대와 군포시를 포함한 지역, 북쪽으로는 서울 노량진, 동작동 등을 포함하는 한강 이남의 넓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과천은 고종 32년인 1895년에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 현에서 군(郡)이 된다. 당시 과천군이 관할한 7개 면은 다음과 같았다.

- 군내면(郡內面) : 현 과천시 일대. 관문(官門), 문원(文原), 갈현(葛峴), 하리(下里), 막계(莫溪), 내점(內店), 외점(外店), 교동(校洞), 가일(加日) 등 9개 동리 관할.
- 동면(東面) : 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서초동, 과천시 주암동 일대.
- 남면(南面) : 현 군포시 일대.
- 상서면(上西面) : 현 안양시 동안구(호계동 제외) 일대.
- 하서면(下西面) : 현 안양시 만안구(석수동, 박달동 제외) 일대.
- 상북면(上北面) : 현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사당동,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일대.
- 하북면(下北面) : 서울 동작구 흑석동, 노량진동, 본동 일대.

조선 내내 지속되어 온 과천의 영역은 일제 초인 1914년에 전국적인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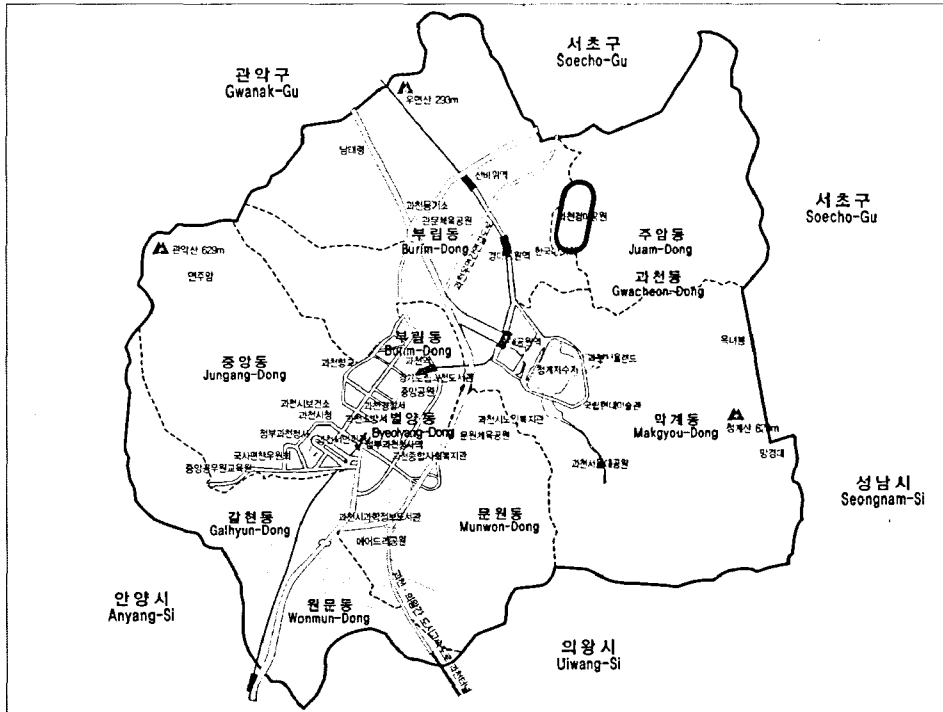


과천지구 출장소 관내도(1984)

조정에 따라 안산과 함께 시흥군에 편입된다. 안산군과 과천군이 합쳐진 시흥군은 동·서·북·과천·신동·남·서이·수암·군자면 등 9개 면으로 편성되며, 이중에 원래 과천구역은 북·과천·신동·남·서이면이다. 과천 7개 면 가운데 상북면과 하북면은 북면으로, 현내면은 동면 일부와 함께 과천면으로, 동면은 상북면 일부와 함께 신동면으로, 남면은 그대로 남면으로 조정되었고, 상서면과 하서면은 서이면으로 합쳐진 것이다.

해방 후에도 과천지역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79년 4월 28일 경기도 조례 제958호에 의해 경기도 과천지구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다. 3년 후인 1982년 6월 10일에는 경기도 조례 제1256호에 의해 경기도 과천출장소로 승격되고 북부(北部)와 남부(南部)에 2개 지소를 두어 북부지소는 6개 동리를, 남부지소는 4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84년 10월 15일에는 과천출장소 중부지소가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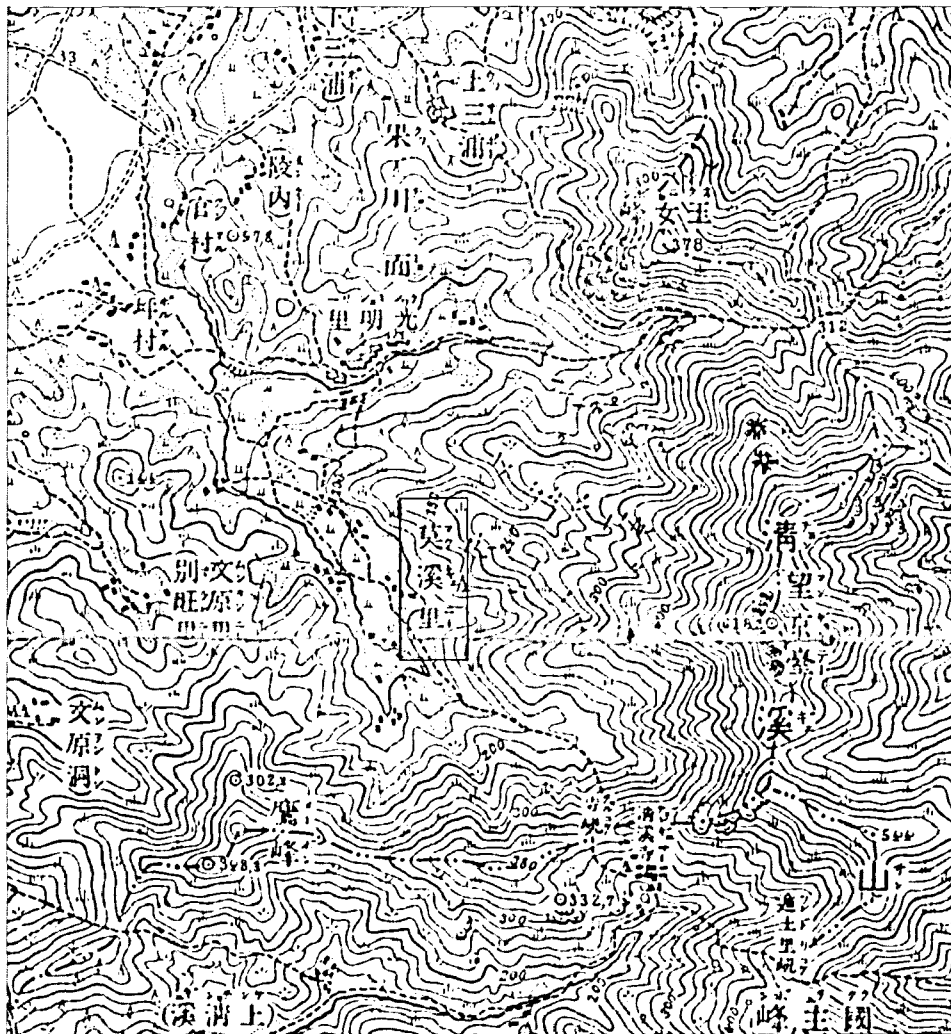
과천은 1986년 1월 1일에 시로 승격되었고 현재 10개의 법정동과 6개의 행정



막계동 위치도

동이 있다. 과천시(市)는 중앙동(中央洞)·관문동(官門洞)·갈현동(葛峴洞)·원문동(原文洞)·별양동(別陽洞)·부림동(富林洞)·주암동(注巖洞)·문원동(文原洞)·막계동(莫溪洞)·과천동(果川洞) 등 10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된다. 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라 법정동을 서로 합한 것이 행정동인데, 별양동·부림동·중앙동·갈현동·과천동·문원동 등 6개가 있다. 별양동(0.68km²)과 부림동(0.37km²)은 독립된 행정동으로, 관문동은 중앙동(6.99km²)에, 원문동은 갈현동(4.30km²)에, 주암동은 과천동(10.77km²)에, 막계동은 문원동(12.75km²)에 속해 있다.

일제 초기에 작성된 지도에는 자연마을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주암리는 석포(石浦)·상삼포(上三浦)·하삼포(下三浦), 하리는 남태령(南泰嶺)·하남태령(下南泰嶺)·물업리(物業里)·입암(立岩)·내곡(內谷)·하락동(河洛洞)·후곡(後谷)·한계(寒溪), 막계리는 능내(陵內)·관촌(官村)·광명리(光明里)·평촌(坪村), 문원리는 구리내(九里內)·별왕리(別旺里)·교동(校洞)·홍촌(洪村), 갈현리는 응봉(鷹峰)·삼거리(三巨里)·자경(自耕)·냉정(冷井)·우촌(隅村) 등이다.



막계리 지도(1910년대)

과천의 총면적은 35.86km²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인 9만 9,408km²의 0.04%이고 경기도 면적인 1만 190km²의 0.35%를 차지한다. 이중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대표적인 전원도시다.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대지 2.68km²(7.4%), 밭 2.95km²(8.1%), 논 2.48km²(6.8%), 임야 23.02km²(64.6%), 기타 4.78km²(13.1%)이다. 전체 면적의 56.1%가 공원으로, 청계산·관악산·우면산과 근린공원인 중앙공원과 소공원이 있다. 녹지 총면적은 약 3,330만m²로 도시 전체 면적의 93%에 이른다.

2004년 현재 과천시 면적은 35.86km², 인구는 6만 8,333명으로 1km²당 인구밀도는 1,905.5명이다. 이중 농업가구는 전체 가구의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98.2%는 비농가로 주로 서울에서 유입된 인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2) 막계리의 주변 환경

과천은 동쪽으로 청계산, 서쪽으로 관악산, 남쪽으로 매봉, 북쪽으로 우면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가운데에 낮은 구릉과 평지가 있는 분지 모습이다. 청계산은 광주산맥의 줄기로 과천과 성남시의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 옥녀봉, 남쪽으로 매봉 등의 봉우리로 이어진다. 매봉과 청계산 사이의 산록에 서울대공원이 자리한다.

과천시와 성남시 경계에 위치한 청계산의 해발고도는 618m이다. 시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5km, 안양에서는 북동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동쪽으로는 성남시 상적동, 서쪽으로 과천시 막계동, 남쪽으로는 의왕시 청계동과 성남시 금토동, 북쪽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원지동이 있다. 능선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사방이 비교적 완만하다. 화강편마암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물과 울창한 수림을 이룬다.

청계산은 망경대(望京臺)·국사봉(國思峰)·옥녀봉·청계봉(淸溪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경대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뻗은 작은 줄기는 절고개[寺峴]를 지나 매봉에 이르고 남쪽에서 관악산의 지맥과 연결되어 갈현 고개를 이룬다. 청계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서울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뜻의 망경대로 망경봉(望京峰)이라고도 한다. 서쪽에 있는 매봉과 활 모양으로 흰 곡선 등성이로 연결되면서 그 아래에 서울대공원이 있는 큰 골짜기를 이룬다. 매봉은 막계동과 의왕시 청계동 사이에 있는 청계산의 한 줄기로 높이는 369m이다.

청계산 줄기의 매봉 북쪽 골짜기에는 사기막골·배랭이·십리골·셋말·막계 등 마을이 있었지만 서울대공원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매봉의 서쪽 줄기는 갈현동 갈고개까지 이어진다. 남쪽의 망경대와 이어진 옥녀봉 봉우리는 북쪽으로 줄기를 뻗어 양재동 만남의 광장 뒤쪽에 이른다. 옥녀봉의 서쪽은 주암동이

고, 동쪽은 서울시 원지동이다. 주암동에서 망경대 쪽으로 오르는 도중에 추사 김정희의 생부인 김노경의 묘 터가 나온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청계산 서쪽에는 서울경마공원·서울대공원·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과천에는 양재천과 막계천(莫溪川), 갈현천(葛峴川) 등 지방2급 하천이 흐른다.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하천들이 양재천을 이루어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흘러간다. 거의 모든 하천이 양재천과 만나 한강의 제1지류인 탄천(炭川)이 되어 한강으로 들어간다. 갈현천은 서쪽으로 흘러 학의천을 지나 안양시 관양동에서 안양천과 합류하여 한강에 이른다. 갈현동에서 시작된 제비울천도 갈현천과 합쳐져 안양천으로 유입된다.

막계천은 양재천의 제1지류이다.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망경대 남서쪽 골짜기를 따라 북쪽으로 흘러 과천저수지를 이룬다. 여기에서 서울대공원 주차장 동쪽을 지나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북쪽에서 양재천과 합류한다. 막계천은 수량이 비교적 풍부해서 서울대공원의 많은 동·식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유역면적은 10.48km²이고, 유로연장은 1.75km이다. 1980년대 초 서울대공원 조성과 함께 막계저수지(7.9km²)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하류의 유량이 적어졌고,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 되었다.

배랭이천은 양재천의 제1지류다. 북동쪽으로 막계천과 유역계를 이루고, 남서쪽으로 세곡천과 분수령을 이룬다. 매봉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윗배랭이까지 북류하다가 문원동 진입도로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아랫배랭이에 이른다. 유역면적은 0.81km²이고, 유로연장은 1.2km이다. 문원단지와 하류 농경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상은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3) 과천길

과천대로는 관문사거리에서 찬우물삼거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왕복 8~10차선으로 길이 3.6km에 너비 30~50m 규모다. 시 외곽도로로 1986년에 개통되었다. 이후 서울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되고 수도권까지 운행하는 버스나 승용차가 늘면서 교통량이 많아졌다.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와 연결된 이후로는

교통 혼잡이 잦아졌다. 시내를 통과하는 47번 국도와 찬우물삼거리 및 관문사거리에서 만나며, 양재인터체인지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다. 공원로를 통해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로도 이어진다.

남태령은 서울시 관악구 사당동과 관문동의 경계에 있는 고개다. 관악산과 우면산이 맞닿은 곳으로 해발고도 183m, 길이 6km이다.

4) 남태령 옛길

과천시 관문광장에서 서울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큰길 오른쪽으로 남태령 옛 고개 길이 있다. 원래는 여우고개로 불렸으나 남태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정조가 수원의 현릉원으로 능행을 가다가 이 고개에서 잠시 쉬는 때 고개 이름을 물었다. 이때 과천현 이방(吏房) 번씨가 남태령이라고 아뢰었다. 옆에 있던 신하가 여우고개라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름이 있는데 어찌 거짓 이름을 아뢰느냐고 질책하니, 번 이방은 임금께 여우고개라는 속된 이름을 아뢰기가 민망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였다. 임금은 번 이방의 깊은 뜻과 즉흥적인 작문 실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후 고개 이름이 남태령이 되었다고 한다.

이 고개는 한양으로 가는 관문이다. “서울이 낭(낭떠러지)이라니까 과천서부터 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이 무섭다니까 남태령부터 기는 격이라고 말만 바꾼 속담도 있다. 관악산은 산이 험준해서 숨어 살며 행인들의 물건을 훔치는 산적이 횡행했던 곳이다. 산적의 약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오르기 전에 과천에서 행인 50인이 모여 관군의 호송을 받으며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그래서 ‘쉬네미고개’라고 부르기도 했다. 과객이 서울로 갈 때 마지막 밤을 과천에서 묵게 되는데 이때 주막에서 술값으로 노자를 다 쓰고 다시 고개를 넘을 때 호송 관군에게 또 돈을 내야 했으므로 이러한 속담이 생긴 것이다.

지금은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포장도로 왼편에 망루와 벤치,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마사토로 남태령 옛길을 복원해 놓았다. 서울 근교에서는 드물게 과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 자연마을 막계리

경기지역은 1960년대까지 급격한 인구변화가 없었다. 당시 막계리는 과천 총 인구의 9%를 이루었고, 농지도 그만큼, 즉 9%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막계2리 인구만 쳐도 500명에 이르므로 과천에서는 “사람 사는 데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과천에는 동서 양쪽으로 관악산과 청계산 산지에서 뿜어 내려온 구릉 사이에 크고 작은 골짜기가 발달해 있고 이 골짜기에 촌락이 들어섰다. 골짜기는 촌락의 입지로 적합하다. 산지나 구릉지를 통해 연료와 건축재, 다양한 식료를 얻을 수 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막계리 궁말은 청계산에서 뿜어 나온 구릉지와 평지가 만나는 부분, 즉 구릉지 말단의 완사면에 구릉을 등지고 자리 잡은 마을이다.

막계리는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들어서면서 없어진 마을이다. 물줄기는 대공원 동물들의 식수와 관리수로 활용되었고, 직선으로 뻗은 인공 하천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옛 모습을 잃게 되었다. 마을이 있던 곳은 현재의 서울대공원 매표소 일대다.

과천이 시가 되면서 막계리는 막계동(莫溪洞)으로 바뀌어 이름은 남아 있지만,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대공원에 보금자리를 내주고 부근의 문원리 이주단지에 옮겨 살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났다. 막계1리는 서울대공원, 막계2리는 서울랜드, 막계3리는 경마장으로 변했고 국립과학관이 남은 자리에 들어왔다. 경마공원은 1988년에 완공되었다.

막계리는 청계산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다. 청계산 정상 쪽에서 흘러내리는 시내가 맑다고 하여 ‘맑은내’인데, 맑은내를 ‘막계(莫溪)’라 부른다고 전하기도

한다. 여기에 주민들의 경기도식 발음이 더해져 ‘맥개’가 듣기에 더 익숙한 지명이 되었다. 『지명 유래집(地名由來集)』(경기도, 1987, 170쪽)에 의하면, “막계리(莫溪里)는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을 개국하고



과천대공원 건설 당시 항공사진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 성을 쌓으려고 할 때에 고려 제31대 공민왕 14년(1365) 전주부성(全州府城)을 쌓은 일이 있는 최유경(崔有慶, 1343~1413)을 한양 축성의 책임자로 맡기려 하자 최유경은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이성계의 수차에 걸친 사명(使命)으로 마침내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한강을 건너 청계산 아래 막(幕)을 치고 거처하면서 말을 타고 조석으로 한양을 출퇴근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을 최유경이 막(幕)을 치고 거처하던 곳이라 하여 막계리(幕溪里)로 칭하다가 조선말엽부터 막계리(莫溪里)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막계리는 3개 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한 마을처럼 지내 동네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지 모두 알 정도였다. 동네 전체에 도가집이 하나 있었고, 1960년대에 생긴 이동조합(里洞組合)도 하나였다. 조합에서 공청(公廳)이라 불린 공회당에 점원을 두고 가게를 차려 술도 팔았다. 공청은 지금의 마을회관 격인데 방 2개 중에 하나를 가게로 썼다. 막계1리 양진말에 공청이 있었고 3리에는 주막이 따로 있었다. 이동조합은 후에 발전하여 과천단위협동조합이 되었다. 그 밖에 최정규 씨 조모님이 운영하던 기름집도 있었고, 가게와 방앗간 등도 있었다.

2리 마을입구에는 하마뜰, 능머래, 삭새뜰 등의 들이 있었다. 이 들은 자유당 이영섭(李英燮)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1956년부터 시작된 저수지 공사로 물에 잠겼다. 이영섭은 1954~1958년 과천면을 포함한 시흥군의 국회의원이었다. 원래 1리와 2리 사람들의 논으로 고래실논 또는 고논이라고 하여 농사가 잘되는 땅이었다. 저수지가 완성된 후 저수지 아래 땅들은 논이며 밭이며 모두 좋은 논이 되



대공원 조성 이전의 막계리 전경(1970년대). 정면의 집은 권순홍(子 용구) 씨
댁이고 왼쪽의 집은 한덕수 씨 댁이다.



청계산 밑 막계리 초가(1960년대 후반), 김광문(子 용천) 씨 댁이다.



나물 캐는 막계리 사람들(1970년대, 오오석 씨 제공)



막계2리 모습 1(오오석 씨 제공)



막계2리 모습 2(오오석 씨 제공)



막계저수지 물이 빠져서 최병기 씨 아들 최정규(1951년생)가 고상현 씨 부친 소유의 배를 몰래 들고 통관 앞까지 갔다.(최병기 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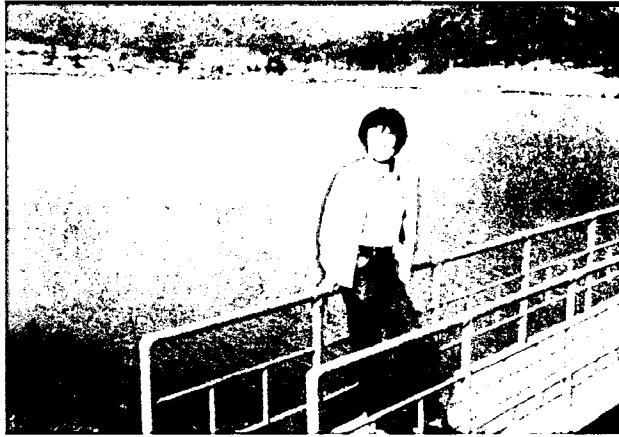
제방쪽 너머로 보이는 갯쟁이 마을의 최정규 씨 모습



막계리 양짓말에서 응달말 가는 길. 논 사이를 지나 양짓말에서 응달말 가는 길로 마차가 다녔다. 최정규(1951년 생) 씨가 군 생활 시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휴가를 나와 찍은 사진이다. 왼쪽이 김우하 씨 댁, 중간이 이종진(부 이봉기) 씨 댁, 우측이 콩쿠르대회를 하던 마당으로 임정기 씨 댁 변소가 보인다.



막계저수지에서 찍은 최정규 씨 부부사진. 뒤로 막계2리로 가는 길이 보인다.(1979. 5. 27)



막계저수지에서 최정규 씨. 뒤로 막계2리 갯망이마을이 보인다.(1979. 5. 27)



막계저수지 독에서 최복규, 송명건 두 친구가 함께(1978)



저수지 옆에서 찍은 오오석 씨 부부 사진

었다. 저수지 위 땅을 소유한 주민들보다 사정이 나아진 셈이다.

첫두네는 1리와 2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화물차가 섰다. 그 이상은 동네로 차가 들어오기 힘들었다. 1리와 2리가 갈라지는 곳이어서 두 지역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었다. 화물차가 초식(채소, 야채)들을 날랐다. 저수지 건설로 2리 첫두네에 '저방', 즉 제방(堤防)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큰 트럭이 그 이상 못 올라갔지만 수리조합이 되어 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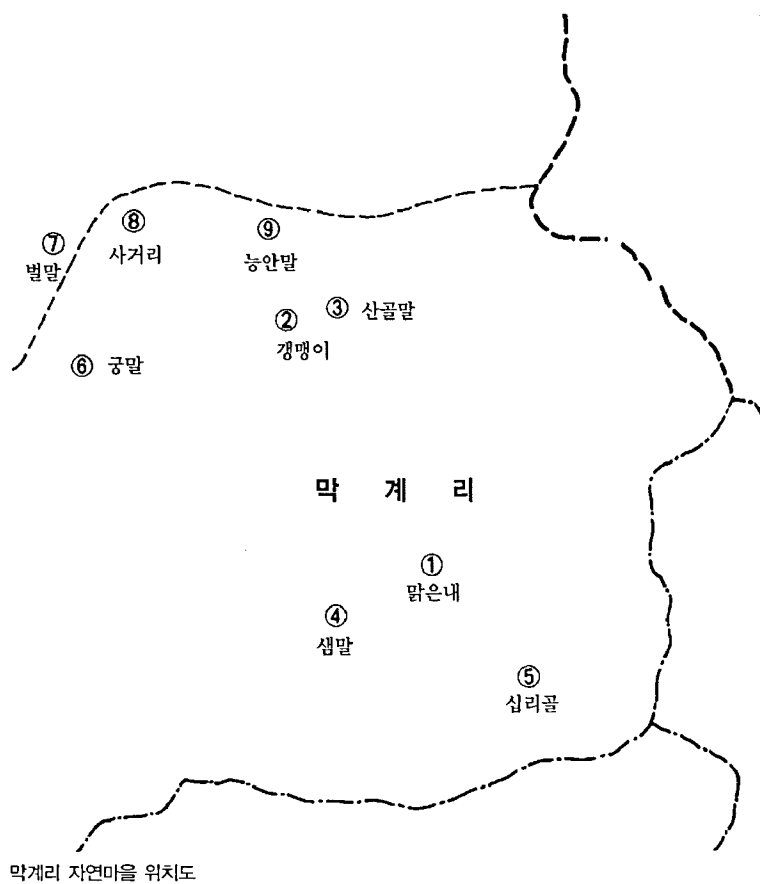
이곳에서 초식농사가 한참 잘 되었을 때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인데, 주로 '채미' (참외)나 '도마도' (토마토) 등을 심어 돈을 벌었다. 그전에는 땀나무를 팔아 살았다. 1970년대 이후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모았다.

3리는 능안말과 궁말이 있다. 능안말은 김녕 김씨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족 마을이다. 궁말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산촌(散村)이었다. 그곳에는 박씨가 많이 살았고 청주 한씨들과 전주 이씨들도 살았는데, 한약방을 하는 이기충 씨 집이 컸다. 3리에서는 신창건설이라는 건설회사 사장도 나왔다.

과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기질이 순수하다. 남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자체 내에 반상(班常)과 관련해서도 큰 차별이 없었다. 특히 막계리는 더 그러해서 머슴을 살았다든가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다.

전기가 들어온 것이 1973년이라고 한다. 물론 그전에는 호롱불로 밤을 밝혔다. 동네에 '요꾸공장'이 있었는데, 가내수공업적인 일종의 편물공장으로 전기가 필요 없는 산업이다.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살아온 주민 한 분을 통해 당시의 막계리 대중교통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고양시 경성남도 하동이었는데 스물네 살 되던 해부터 혈혈단신으로 막계리에 들어와 거주하였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서울 용산에서 하루에 오전과 오후 한 번씩 왕복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었다. 그는 이 버스로 저수지가 있는 이곳에 몇 번 다니다가 살기 괜찮아 보여 들어왔다고 한다. 들어온 지 2년 후에 중매 반 연애 반으로 네 살 아래인 지금의 부인과 교회에서 합동 결혼하여 막계리 주민으로 정착하였다. 비가 많이 오면 방배경찰서까지 물이 잠겼다는 기억도 전해 주었다.



1) 막계리 마을 지명

샘말 : 막계리 안쪽 마을로 물이 잘 나와서 샘말이라고 불렀다.

십리굴(골) : 맑은내 골짜기 가장 안쪽에 있던 마을이다. 옛날 하리의 선바위에 서 이곳까지 오는 데 약 10리가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십리굴에서 골짜기를 따라 계속 오르면 청계산과 매봉을 잇는 능선을 만나고 이곳을 넘어서면 의왕시 청계동이 나온다.

중간말 :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 응달이 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 볍이 잘 드는 곳이라 이렇게 불렀다.

갯땡이[光明] : 막계2리의 중심마을로, 서울랜드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한자로는 광명(光明)이라고 표기하는데, 햇별이 잘 들어오는 양지바른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아랫말 :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과천저수지 부근에 있던 마을이다.

가운뎃말[간뎃말] : 막계2리의 중앙에 있던 마을로, 마을회관이 있었다.

산골말 : 가운뎃말 위쪽에 있던 마을이다. 갯땡이에 속한 마을로 서울랜드 안에 있는 은행나무 위쪽의 산꼭대기에 외파로 떨어져 있었다. 산골 깊숙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짜기를 따라 계속 가면 청계산 줄기의 등성이를 넘어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원터에 이른다. 지금은 서울랜드가 들어서 있다. 한자 표기는 산곡리(山谷里)다. ‘맏골[맷골]’, ‘메실[피실]’ 등으로도 불렸다.

오가동 : 건너궁말 남쪽의 과천저수지 밑에 있던 다섯 채 집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비둘기촌 : 막계저수지에서 과천읍내로 가던 길에 있다. 저수지 건설 때 참여했던 노무자 일부가 집을 짓고 살았다. 지하철역인 서울대공원역 뒤편에 해당한다.

궁말[宮村] : 과천저수지 바로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있던 마을이다. 일부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으로 변했고, 일부는 없어졌다. 궁(宮)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대가 낮은 구릉지대임을 감안하면 구릉말이 궁말로까지 변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건너궁말 : 궁말 건너쪽의 마을이어서 건너궁말이라고 하였다. 개울 가까이 있어 장마가 나면 잠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능안말[陵內] : 막계저수지의 북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하여 궁말과는 뒤편이라는 산봉우리를 경계로 하고 주암리와 광창리에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현재 경마장의 마사와 연습장이 위치해 있다.

2) 막계리 주변 산과 골짜기와 들

잘뚝이[잘뚝] : 막계리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잘뚝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 서울대공원 남쪽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불당이 있었다고도 하고, 단지 기도하는 터가 있었다고도 한다.

얼음골 : 인산농원 꼭대기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에는 얼음이 5월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오소리 방아굴[굴] : 오소리 굴이 있어서 오소리굴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피아골 : 패골이라고도 했다. 액을 피하는 골짜기라고 주민들은 새긴다.

큰골 : 골이 제일 넓어서 큰골이라고 했다.

중소나무골 : 큰골로 올라가는 도중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고개로 가기 바로 전에 있다. 그 부근에 중간 크기의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시나무골 : 큰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고개 위 둔투리 위쪽에 있다. 사시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두리봉 : 새매기 다음 봉우리로 둔투리 서쪽에 있는 봉우리다. 큰 독수리가 바위 옆에 집을 짓고 새끼를 쳤다고 한다.

가마봉 : 원통 절터 넘어가는 데를 가리킨다.

좁은골 : 샘말에서 올라가면 나타나는 골짜기인데,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해골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자리한 안산 너머 골짜기다. 망경대에서 원지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다.

도투무골 : 장석광산에서 백토를 꺼낸 흔적으로 백토구덩이라 불리던 구덩이가 있었다.

고사리굴 : 고사리가 많이 났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 서울대공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름 그대로 뒤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골말에서 주암동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다.

산골 : 과천저수지 부근 예술공연장 뒤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다. 골짜기를 따

라 오르면 옥녀봉 정상에 이른다.

산악골 : 능안말과 갯뎡이 사이의 골짜기로 지금은 서울대공원의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 있다.

안산 : 국립현대미술관 뒤쪽 산을 막계리의 안산이라고 했다.

상산골 : 안산의 남동쪽으로 서울대공원 후문 주차장 쪽에 있다.

큰골[굴] : 산골말 안쪽에 있다. 또는 서울대공원 내 절고개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삼봉 : 큰골 맨 꼭대기에 봉우리가 세 개 있어서 삼봉이라고 했다.

매봉 : 막계리 폭포 뒤쪽으로, 주암리 삼부골 뒤쪽 정상을 말한다. 옥녀봉의 오른쪽에 있으며 옥녀봉→매봉→삼봉→망경대로 봉우리가 이어진다. 서울대공원 남쪽 산봉우리도 매봉으로 부른다.

농막골[農幕골] : 서울대공원 내 사육관리센터가 들어선 매봉 아래 응달말 옆 골짜기를 농막골이라 부른다.

한마당 : 과천저수지 위쪽에 있는 들 이름이다. 주로 풀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천저수지에 물이 많아지면 잔디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물에 잠긴다.

소앞들 : 산골말 남쪽에 있는 좁은 들이다. 들의 일부가 과천저수지에 잠겼다. 뒷골내의 소(沼) 앞에 퍼져 있는 들이기 때문에 소앞들이라 한다.

잣뎡이 : 상하벌의 서남쪽에 있으며 지금의 전철 서울대공원역 부근이다.

이 밖에도 먹물골, 파락골, 미락골, 장치골, 농막골, 구수골, 오망나니골 등이 있다.

3) 막계리 부근의 고개

선녕고개 : 능안말과 궁말을 이으며 주암동 주민들이 읍내에 갈 때 다니던 큰 고개다. 고개가 길고 깊을 뿐 아니라 굽어 있다. 지금의 서울경마공원 본부 근처이다.

덕고개 : 국립현대미술관 뒤쪽에 있던 고개다.

절고개 : 청계산 정상 근처의 고개로 높다. 서울대공원 뒤쪽 산길을 따라 좁은 등산길을 오르면 만난다. 이 고개에서 남쪽으로 비탈을 타고 계속 내려가면 청계사가 나온다. 고개의 동쪽 봉우리가 과천시 · 성남시 · 의왕시의 경계를 이룬다. 절고개의 북쪽이 과천시, 남쪽이 의왕시이다. 절고개란 청계사 때문에 나온 지명이다.

절래미고개 : 절고개 서쪽에 있는 고개로, 과천시와 의왕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절래미'는 '절넘이'란 말로 절을 갈 때 넘는 고개란 뜻이다. 고개의 북쪽인 막계리 쪽은 비탈이 무척 심한 반면, 남쪽인 의왕시 청계동 쪽은 그리 심하지 않아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한다.

별양대[베랑재] : 응달말 서쪽에서 베랭이(별양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4) 막계리 주변의 하천과 저수지

마른개울 : 막계저수지에서 양재천으로 흐르는 개울이다.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늘 말라 있어서 마른개울이라 하였다.

산골내 : 청계산 봉우리의 하나인 옥녀봉 남쪽 골짜기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흘러 산골말을 지난 후 갯뎡이 마을 서쪽에서 과천저수지로 흘러든다.

속개울 : 도투무골에서 내려온 물이 안골을 가로질러 내려간다고 해서 속개울이라고 불렀다.

과천저수지 : 몽리면적이 약 250정보이며, 1956년에 만들었다(축조 당시 수리조합장은 농안마을에 거주한 김찬규 씨임). 원래 막계천 하류 쪽의 농업관개용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공원 휴양지로 이용되고 있다.

명마바위 : 큰골의 조류지 끝쯤에 말처럼 생긴 넓적하고 큰 바위다. 6·25전쟁 당시 이 밑에서 인민군이 주둔했고, 겨울을 나기 위해 몇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두지바위 : 모양이 뒤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밖에 거북바위, 마당바위 등이 있다.

긴담불 : 밭 덩불이다. 밭에 있는 돌맹이 등을 꺼내서 쌓아 놓은 것을 담불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담불이 길어서 긴담불이라고 하였다.

점번(뺨)데기 : 잘뜯이 너머 불당골 올라가는 곳에 있다. 웅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이선달네 집뒤 : 마을에서 올라갈 때 개울 우측에 명마바위가 있고, 그 건너편 동북쪽이 이선달네 집뒤다. 이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으며, 집터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선달네 집뒤 골짜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회오리 바람구렁이라고도 한다.

고래장(고려장)터 : 이선달네 집뒤 골짜기 또는 회오리 바람구렁이 위쪽이다.

말등배 : 조절저수지 있는 곳이다. 모습이 말 등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갱맹이 폭포 : 산골말 뒤쪽에 있던 폭포다. 읍내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폭포, 물이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하여 수종폭포 등으로도 불렀다.

3. 막계리 마을구성

1) 막계1리

막계1리에는 7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산 위에서부터 자연마을 이름들을 살펴보면 십리굴(골) - 고사리굴 - 중간말 - 샘말 - 응달말 - 양짓말 등이 있다. 양짓말 아래에는 막계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피아골이었다.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1978년 이주가 시작된 바로 직전을 기준으로 당시 살았던 호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	호주명
십리굴(14호)	김봉률 원용득 원용생 원용문 김현집 최선병 (밑으로) 김수배 최병모 최중신 박기왕 최윤식 송덕인 우용구 (중간의 긴담불에) 이영봉
중간말(4호)	최중신 박기왕 최병모 최윤식 송덕인
샘 말(13호)	이종문 최진수 최익남 이운기 송덕봉 임병택 김광운 조일성 이종덕 최병태 이종화 김한춘 이정호(이길로 子, 대공원 건립 전 출)
응달말(3호)	최종수 최선규 최종모
양짓말(31호)	박인봉(대공원 건립 전에 출타) 고상목 최원남 최병원 송의권 김진호 장정수 박은봉(대공원 건립 전에 출타) 최철수(대공원 건립 전에 출타) 권혁문 박오서 박성산 최정용 송세용 최병기 김인기리 임용목 유정호 권순홍 이승준 최원식 조무성 한덕수(덕고개) 권순현 (도투묵굴) 김순칠 (그 밑으로) 이종진 김우하 고상현 (늦게 교인들이 유정호 씨 옆집으로 사서 들어옴) 조우기 구인회 손복용
피아골(2호)	최병정 이사홍



막계리를 중심으로 본 과천

2) 막계2리

막계2리 갯매는 전체 60~70가구 정도가 살았다. 1968~1969년에 장막교회가 들어오면서 400가구가 되었다. 장막교인들을 빼고 세보니 이주 전까지 62호가 살았다. 이중 평해 손씨가 21가구를 이루어 2리에서는 가장 많이 사는 성씨다.

마을	성씨 및 가구수
산골말(10호)	평해 손씨 10가구
웃말(19호)	박씨 6가구, 손씨 4가구, 임씨 3가구, 이씨 3가구, 김씨 2가구, 유씨 1가구
뒷말(5호)	이씨 4가구, 손씨 1가구
양지말(12호)	손씨 6가구, 전씨 1가구, 유씨 2가구, 김씨 2가구, 한씨 1가구
마누골(만우골, 5호)	권씨 5가구
아랫말(8호)	유씨 4가구, 김씨 2가구, 임씨 1가구, 이씨 1가구
은단말(3호)	오씨 1가구, 유씨 1가구, 임씨 1가구

막계2리를 부르는 지명인 갯매는 광명을 경기도식으로 부르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순만 씨에 따르면 옛날 비문(碑文)에 넓을 광(廣)으로 써서 광명(廣明)으로 불렀는데, 어느새 광명(光明) 표기가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막계2리 박순만 씨 덕은 웃말인데, 본말이라고도 하였고 특히 이 덕을 간땃집이라고 불렀다. 마을 가운데에 있어 가운데집인데, 발음을 그렇게 한 것이다. 간

덧집은 가운데 있기도 하였지만 비교적 잘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한 것이다. 집 앞에 연못이 있어서 연못집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박순만 씨는 1922년생으로 족보에 나온 이름은 박만규이고 순만은 호이다. 비교적 잘살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밥은 먹고 지냈다.”고 하였다.

그를 포함하여 밀양 박씨 규정공파 일가들의 집은 다 붙어 있다시피 모여 있었다. 간덧집 옆으로 한산 이씨도 살았다. 옷말 뒤로는 평해 손씨들만이 사는 산골말이 있었고, 그 뒤로는 만우굴에 안동 권씨가 5집 살았다.

장막교회를 다닌 주민은 200여 세대에 이르렀다. 막계2리는 과천에서 제일 큰 마을이 되었다. 세입자 대책 때 전체 세입자의 수는 287세대였다. 교인이 아닌 세입자 세대도 꽤 있던 셈이다. 이들은 대도시 주변에 일하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집값이 싼 이곳을 잡아 온 사람들이었다.

3) 막계3리

막계3리에는 능내, 궁촌(宮村, 궁안마을)이 있다. 두 마을을 합쳐서 막계3리라고 불렀다. 궁안마을은 현재 경마장 별판 쪽에 위치해 있었고, 능내는 산 너머에 위치해 있었다. 궁말에는 30가구 정도 살았고, 능내에는 28가구 정도 살았다. 궁말은 각성바지마을로 특별히 많이 사는 성씨가 없었다. 그중 박씨가 7집 정도, 이씨와 손씨가 각각 5집 정도, 김씨 4집, 조씨 2집 살았고 고씨, 장씨, 원씨, 윤씨, 백씨, 전씨 등이 각각 한 집씩 있었다.

궁말에는 과천면 면장을 지내시던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김복권 씨 아버지다. 김복권 씨는 박재한(79세) 씨보다 나이가 20세 정도 더 많다. 마을에 살던 원씨는 김 면장의 처가였다. 박재한 씨는 막계3리 궁말에서 태어나 살다가 29세 때 주암리로 옮겨 그곳에서 4년 살았고, 자식들 공부 때문에 상도동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30년, 그 후 안양 관양동에서 15년 살다가 일산 동문아파트로 옮겨 온 지 6년 된다. 자식들은 현재 모두 성공하여 박사에 교수까지 여러 명 나왔다.



능안말 전경 1(1960년대)

① 능안말

능안말에는 28가구가 살았는데, 그중 김녕 김씨가 반이고, 타성이 반이었다. 김녕 김씨는 대개 3~4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인구는 전체의 2/3가 되었다. 타성으로는 김녕 김씨가 아닌 김씨가 5가구 살았고, 나씨(羅氏)는 3가구 살았는데 능안말에서 4대째 세거해 온 집안이다. 전씨(田氏)가 2가구였고 유씨(劉氏), 임씨(林氏), 오씨(吳氏)가 각기 1가구씩 살았다.

② 오가동

건너궁말 남쪽의 과천저수지 밑에 있던 다섯 채 집으로 구성된 마을이다.

③ 비둘기촌

막계저수지에서 과천읍내로 가던 길에 있다. 저수지 건설 때 참여했던 노무자



능안말 전경 2(1960년대)

일부가 집을 짓고 살았다. 지하철역인 서울대공원역 뒤편에 해당한다.

④ 궁말(宮村)

과천저수지 바로 아래에서 북서쪽으로 있던 마을이다. 일부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으로 변했고, 일부는 없어졌다. 궁(宮)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대가 낮은 구릉지대임을 감안하면 구릉말이 궁말로까지 변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궁말은 20여 호의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산촌(散村)이었다. 그곳에는 청주 한씨들과 전주 이씨들이 살았는데, 한약방을 하는 이기충 씨 집이 컸다.

⑤ 건너궁말

궁말 건너 쪽의 마을이어서 ‘건너궁말’ 이라고 하였다. 개울 가까이 있어 장마가 나면 잠기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궁말은 일부만 이주하였다. 등너미(등넘어)

는 현 과천국립과학관이 자리한 곳에 있던 마을이다. 궁말의 저수지 밑에는 개천에서 모래를 떠서 쇠를 걸러 그것을 팔아 살았던 가구가 2~3호 있었다.

4. 막계리 마을조직과 생활

1) 식림계(殖林契)

‘과천놈네 소치레, 남양놈네 집치레’란 말은 과천 토박이들은 누구나 안다. 요즘처럼 사료로 소를 키우면 평야지대에서도 소를 여러 마리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름에 소꼴을 대기 힘든 남양 같은 평야지대에서는 소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 과천은 논밭보다는 임야가 많은 곳이다. 과천의 소는 척박한 땅을 가는 데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땔나무를 실어 나르는 데도 유용하였다. 겨우내 나무장사를 다니고 나면 소가 힘에 부쳐 비쩍 마른다고 한다. 그래서 과천 사람들은 일 년 내내 소치레를 하기에 바빴다고 한다.

나무 해다 팔았지. 양반이구, 상놈이구 팔아야 먹구 살지. 전업이야. 여기 사람들은 양반이래두 소용없구, 상놈이래두 소용없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농사는, 저 바닥은 좁은 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구 지탱 못하니깐 땔나무 장사 해가지구 먹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 사람들을 과천 땔나무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이하 『과천시지』 5권 중 강성복의 식림계 글 인용)

청계산 식림계는 송계의 전통 혹은 19세기 후반의 산림 입회관행(入會慣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계산 식림계가 조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일제의 식민지 임정(林政)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가 조선의 산림을 수탈할 목적으로 「삼림법」(1908)을 만들고, 그것을 「삼림령」(1911)으로 대체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청계산 식림계가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청계산 식림계의 운영 실태와 해체 과정을 식림계 자료와 현장에서 확인한 촌로들의 증언을 통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흔히 송계는 ‘산림의 보호와 이용을 목적으로 조직된 계’ 또는 ‘소나무숲이라는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결성된 조직체’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송계는 단지 소나무의 보호와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사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땔나무와 비료의 공급원이 되었던 동시에, 가난한 민초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송계산판(松契山坂) 파 먹고 살았어요.”라는 토박이 주민의 회고담은 마을공동체에서 송계의 기능이 어떠했는지를 대변해 준다. 아울러 임목(林木)의 생산과 유실수의 방매(放賣), 산전(山田)·화전(火田)의 개간 등에서 드러나듯이, 송계를 조직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일정한 금제(禁制) 아래 산림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동중재원(洞中財源)을 확보하고 각종 긴급사에 대응했다. 과천정부제2종합청사가 들어선 자리는 인삼시험단지였고, 이곳 막계리는 저수지 건설로 추워진 곳이다. 이전에는 딸기농사 정도를 조금씩 하였고 비닐하우스도 별로 없어 땔나무 해다가 말죽거리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제시기에 과천면에 속한 6개 리(막계·갈현·주암·문원·관문·하리)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땔나무를 해 왔던 구역이 별도로 존재했다. 그것은 각 동리단위로 조직된 산림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시 과천의 산림계는 크게 청계산과 관악산 구역으로 대별되었는데, 예전의 입회관행에 따라 막계·주암·갈현리 등은 청계산으로, 문원·관문·하리는 주로 관악산의 산림을 관리하며 땔나무와 풀을 채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유림을 매개로 한 청계산 식림계와 관악산 산림계는 과천의 대표적인 산림조직이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식민지정책을 수립하면서 한국의 천연자원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의 산림은 빈약한 식민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의 초과 이윤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통감부시기에 이미 ‘한국 산림에 대한 일본인의 이권 확보’라는 일제의 임정 기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기조는 아직 추상적인 것으로, 한국 산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의

도하는 바를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제는 임업행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조직체계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08년 한국정부에 「삼림법」을 제정·공포토록 하였다. 이 법은 한국정부에 초빙되었던 토우케 미츠유키[道家充之]가 일본 법령을 기초로 비밀리에 입안한 것으로, 한국의 산림구조를 재편하고 일본식 임정을 이식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삼림법」 제정은 일제의 식민지 산림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었다. 특히 일본인 임업자본가들의 요구와 식민지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일제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이었다.

그 핵심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 설정이 일본인 자본의 침입을 정당화한 것이었고, ‘지적신고’ 조항은 장차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화하였을 때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 수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삼림법」의 공포로 법적 근거를 갖춘 일제는 드디어 1910년 임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 임야의 50% 이상이 국유림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진 중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일제는 ‘한국의 임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이른바 「한국 임야정리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의견서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적 신고를 하지 않은 산림은 일단 국유림으로 편입하고, 이후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국유림 창출을 통한 식민지 임정의 실현, 즉 ‘일본 자본의 한국 산림 점유’라는 목적이 숨어 있었다.

의견서에 기초한 임야조사사업은 철저하게 신고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산림 연고권이 있으면서도 문서에 밝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국유림으로 편입되었고, 사유림으로 설정될 경우 임야세를 많이 물게 될 것을 염려한 산주 중에는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청계산이 국유림으로 편입된 것은 바로 이 무렵으로 생각된다.

일제는 「삼림법」 제정 이후 3년 만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미명 아래 이 법을 폐지하고 「삼림령」을 공포하였다. 「삼림법」에서 「삼림령」으로의 개정은 ‘부분림제도’에서 ‘조림대부제도(造林貸付制度)’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림대부제도란 통감부시기에 일본인의 조선 산림 점유를 가능하게 했던 부분림제도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더욱 강력하게 일본 자본과 일본인 식

민의 유인정책을 취하고자 만들어진 조치였다. 「삼림령」 제7조를 보면, “조선 총독은 조림하기 위하여 국유 산림을 대부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성공한 경우 그 산림을 양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일면 조림대부제도의 목적이 황폐한 조선의 산림녹화를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으로 조림대부를 받은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인의 한국 산림 점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나라가 관리해야 할 국유림을 일반인에게 조림시켜 양여하겠다는 계획은 일본의 북해도를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식민지에서의 임야 수탈방법이었다.

조림대부제도의 허용면적은 무제한이고 유료대부였다. 다만 특별연고 산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하였고 관묘(官苗) 역시 무료로 양여하였다. 또한 「삼림령」을 공포한 이듬해인 1912년에 ‘조림사업 성적 인정에 관한 건’을 결정했지만, 1923년 개정에 의하면 평균 임목도 7/10 이상, 천연 조림구역은 임령 8년 이상, 인공 조림구역에서는 식재 후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대부기간의 완료 여하와 관계없이 성공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산림을 무상 양여했다. 결국 조림대부를 받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던 셈이다.

191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된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총건수 중에서 일본인에 의한 조림대부 건수는 3%에 불과하지만 대부면적은 47.1%를 차지하여 일본 자본이 소유한 산림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로써 조림대부제가 식민지 한국에서 주요한 임야 수탈방법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유림으로 귀속된 청계산 역시 조림대부제가 실시되면서 일본인 시노다 켄이치[篠田玄一] 외 1명에게 대부되었다.

청계산은 촌락 부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 허가가 일본인에게 떨어지면서 청계산에서 땔나무를 채취하던 관행은 통제를 받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입산을 단속하는 일본인 대부업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날이 갈수록 원성이 높아져 민원이 야기되었음은 자명하다. 연고임야(緣故林野)에 대한 입회관행의 배제는 땔나무에 의지해 왔던 인근 주민들에게서 삶의 터전을 일거에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 연고권을 행사해 왔던 촌락민들은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청계산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1915년 10월 1일 작성된 ‘서

약 에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위기의식이 나타나 있다.

시흥군 과천면과 신동면에 걸쳐 있는 청계산 국유림은 시노다 켄이치 외 1명에게 대부가 허가된 것이나, 해당 산은 마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타인이 경영하는 것은 그 이해의 영향이 크므로 마을 사람들은 시노다 켄이치로부터 대부권을 양도받아서 조림경영을 하기로 서약하였다.

이는 청계산이 일본인에게 대부된 뒤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같이 빼앗길 위기에 놓였던 청계산은 주민들이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대부권 양도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양도인 시노다 켄이치에게 허가된 후 오늘까지 관청에 납부해야 할 대부요금은 양수인이 지불할 것', 둘째는 '양수 이후로 해마다 대부로 납부는 물론 별지의 식림계를 조직하여 양도인에게 대부 청원할 때 원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을 계승하며 매년 조림을 시행할 것'이다. 결국 청계산 식림계는 일본인에게 대부된 청계산을 되찾기 위한 지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만들어 낸 산물이었다.

1913년 평안남도에서 「산림보호규약」을 공포하여 산림조합을 조직하도록 한 것이 우리나라 산림조합의 효시이다. 이듬해에는 함경남도, 1915년에는 경기도에서 산림조합을 조직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해에 청계산의 대부권을 주민들이 양여받는 조건으로 식림계 조직을 서약하였다. 청계산 식림계는 그 이름과는 무관하게 산림조합과 동일한 성격의 조직체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제 초기에는 산림 소유권 정리를 빨리 끝내기 위한 협조와 소유권 확립을 위한 신청, 이의제기 등 산림재산권 정립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조직이 필요했다. 그 때문에 관의 권장과 민간의 필요에 따라서 1917년 임야조사사업이 착수되면서 산림조합과 동리 단위의 산림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 청계산 식림계 자료

청계산 식림계와 관련된 자료로 계원명부, 청계산 식림계 규칙, 출자대장, 탄원서 등이 현전하고 있어 그 실체를 밝히는 데 소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인과 각종 인장류, 엽서, 묘역도 등이 남아 있다. 이들 자료는 과천문화원 최종수 원장이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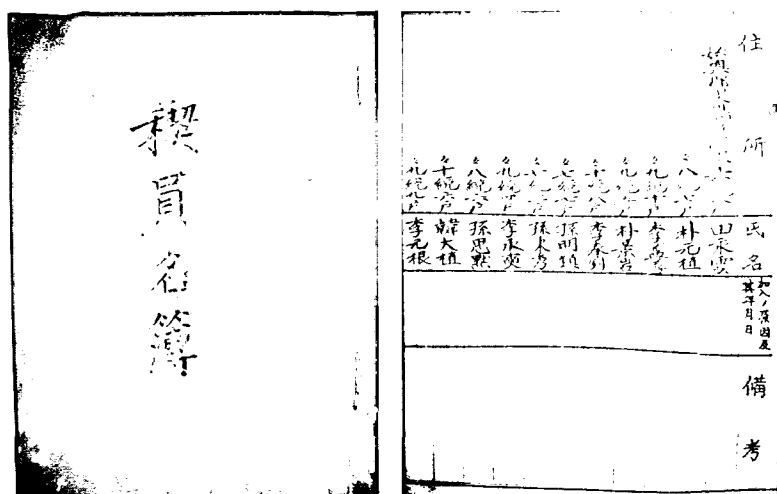
(1) 「청계산 식림계 계원명부」

두꺼운 표지 속에 얇은 패지를 양면으로 접어서 만들었다. 모두 6장 12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에 12명씩의 주소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단에는 가입원인과 생년월일, 비고란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계원명부에는 막계리 이병설을 포함하여 모두 136명의 명단과 주소가 각 리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막계리가 6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신동면 신원리(현 서울시 서초구)가 36명으로 뒤를 잇고, 그 밖에 주암리 15명, 관문리 6명, 문원리 1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식림계의 조직범위는 청계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막계리를 위시하여 신원리와 주암리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산 식림계원 중에는 경성부 6명을 비롯 용인·광주 및 강원도·충청도 등에서도 식림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선대의 묘소가 청계산에 있거나 토지 소유 등 일정한 연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하여 식림계 규칙 제4조에는 “본 계는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관문리·주암리 및 신동면 신원리 주민으로 조직한다. 단, 위 마을 주민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곧 4개 리 외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예외로 가입 자격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경성부에 거주하는 한규설은 대한제국에서 참정대신을 역임한 인물이다.

떨나무에 의지하다시피 했던 막계리의 경우 자연마을을 구성하는 원막계, 광명, 능안말, 궁말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부분 식림계에 가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막계리의 주요 성씨인 전주 최씨, 평해 손씨, 전주 이씨, 청주 한씨, 밀



양 박씨 등이 모두 등장한다. 특히 광명의 평해 손씨는 가장 많은 호수가 식림계원으로 참여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식림계는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것이 아니라 산림 대부를 원하는 가구에 한해 자유롭게 그 의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식림계원은 가입금과는 별도로 대부면적에 따라 매년 정해진 임야세를 납부했을 뿐 아니라, 조림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부담할 의무를 졌기 때문이었다(제5조). 또한 규칙에는 추입자에 대한 조항이 없고, 식림계가 출범하는 이듬해에 한 차례 막계리와 관문리에서 3명의 계원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입계는 불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림계의 조직은 계장 1명, 부계장 1명, 이사 4명, 평의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사가 4명인 것을 보면 규칙에 규정된 막계리, 관문리, 주암리, 신원리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만기시에 재선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잔여 임기에 한해 보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평의원 제도인데, 아마도 이것은 여러 마을에서 계를 구성한 까닭에 평소에는 이들 임원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식림계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계산 식림계에서 보유했던 산림은 막계리 산65번지와 주암리 산76번지 일대이다. 총면적 415.8정보(약 12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산림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제시기에 임상이 좋았던 청계산 밑은 종종 명의나 사유림으로 설정된 땅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잡목 투성이인 상봉 주변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기에 일찌감치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그 구체적인 연도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1910년 임적조사 직후에 이미 국유림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1911년 「삼림령」에 명시된 ‘조림대부제도’에 따라 당시 국유림인 청계산을 일본인 시노다 켄이치 등에게 대부한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므로 산림을 빼앗긴 막계리 등 인근 주민들이 1915년 청계산을 되찾기 위해 식림계를 조직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청계산 식림계 규칙」 제4조에는 식림계를 결성한 목적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2) 「청계산 식림계 규칙」

「청계산 식림계 규칙」은 그 운영 내력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자료가 된다. 한지를 양면으로 접은 표지를 포함하여 4장으로 되어 있다. 한문과 일어로 혼용된 이 규칙은 16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계산 식림계를 조직한 목적과 조림 계획, 가입 자격, 계원의 의무, 임원 구성 등을 실었다.

「청계산 식림계 규칙」

제1조 본 계는 청계산 식림계라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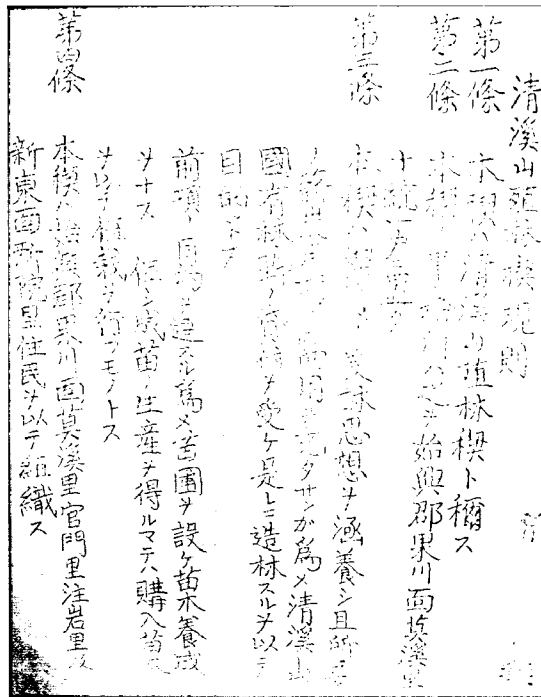
제2조 본 계의 사무소는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10통 1호에 둔다.

제3조 본 계는 계원의 애림사상을 함양하고 또 필요한 땃감[薪炭] 용재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계산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조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묘포(苗圃)를 설치하고 묘목을 기른다. 단 묘목을 생산할 때까지는 구입 묘목을 심어야 한다.

제4조 본 계는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관문리·주암리 및 신동면 신원리 주민으로 조직한다. 단 위 부락 주민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가입하게 한다.

제5조 본 계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경비와 노력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단 부담할 비율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 계원이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는 과태금을 징수하기로 한다.



「청계산 식림계 규칙」(20×28cm)

제7조 본 계는 매년 사업년도의 잉여금을 계획의 결의에 따라 익년도(翌年度) 이월금 또는 계의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제8조 삼림의 주·부산물은 계원 각자의 연료 및 용재로 사용하고 그 잔여분은 판매하여 계자금에 넣거나 계원에게 분배한다. 상기 배분방법은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9조 본 계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계장 1명, 부계장 1명, 이사 4명, 평의원 20명

계장 및 기타 임원은 계원이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만기시에 재선할 수 없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결선거를 실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제10조 임원의 사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계장은 본 계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정리한다.
2.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대리한다.
3. 이사는 계장의 지휘를 받아 제반 사무를 분장한다.

4. 평의원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1조 본 계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단,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계원 1/3 이상이 회의를 요구할 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12조 회의의 의장은 계장이 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계장이 대리한다.

제13조 계장은 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만 회의를 개최한다.

제14조 계회의 의사에 관한 세칙은 계회에서 정한다.

제15조 본 계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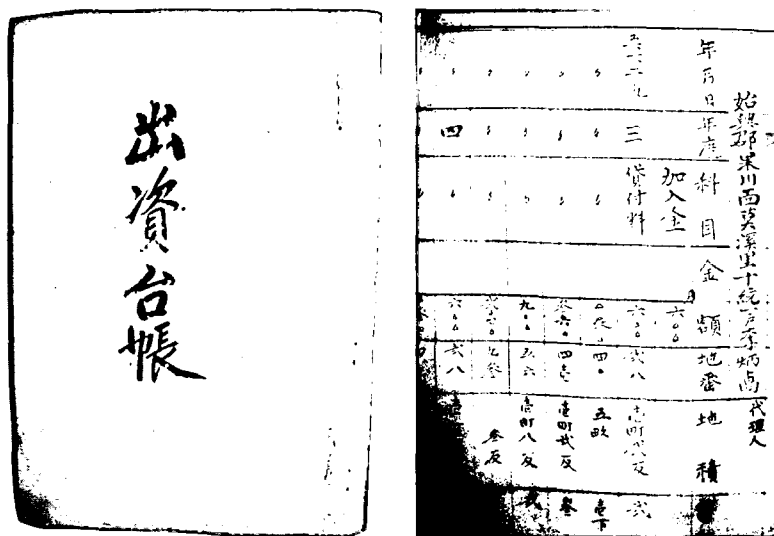
제16조 사업 진행에 관한 세칙은 임원이 정한다.

식림계를 조직한 목적이 조림을 통한 땀감과 용재 수급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계원이 여기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노력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6조)는 조항을 두어 조림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피력하였다.

식림계에 대부된 청계산의 면적은 415.8정보이다. 그런데 1916년 작성된 「출자대장」에 의하면 전체 면적은 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개인별로 산림을 분할하여 각각 대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대부받은 사람은 막계리에 사는 최봉기로 28정 4반보(약 8만 5,000평)이고, 최소 면적은 관문리 정정백으로 고작 2반보(600평)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 계원 간에 이처럼 차이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유림으로 설정되기 이전의 산림 소유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출자대장(出資臺帳)」

식림계 운영과 관련한 출자 내역으로, 막계리 주민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계원의 주소와 이름, 대리인, 그리고 개인별로 대부받은 연월일, 과목(가입금과 대부료), 지번, 지적(地積), 등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식림계 발족 입계금은 60전이고 대부 산림은 7등급으로 나누었다. 주민 중 최병훈(崔炳勳)의 생몰연대(1871~1930)를 근거로 이 문서가 1915년 식림계 조직 이후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출자대장」(20×27.5cm) 표지

막계리

李炳高 崔炳勳 李奎憲 林錫根 權承斗 李炳鎬 孫尙默 孫秉云 李承舜
 田永雲 朴元植 李益善 朴景岩 李奉釗 孫明鎭 孫秉秀 李承奭 孫思默
 李元根 孫炳國 孫仕萬 劉春範 權止鎬 林錫煥 劉尙煥 劉在淳 李定來
 申夏雨 申龍雨 崔學千 金昌順 崔鳳基 崔德順 朴敬天 崔炳弼 宋慈善
 金壽一 崔準澈 崔松植 金慶和 (이상 40명)

「출자대장」에는 식림계 출범 당시 가입금은 전 계원이 모두 60전씩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료는 해마다 불하된 산림의 면적과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즉, 당시 청계산의 등급은 모두 7등급으로 나뉘었는데, 1정보(3,000평)를 기준으로 1등급은 70전, 1하(下)는 60전, 2등급 50전, 2하는 40전, 3등급 30전, 3하는 20전, 등외는 10전으로 하였고, 등급을 막론하고 연 2회 납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대부료를 내지 못해 땔나무로 대신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일제시기에 식림계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계원들에 의한 배타적인 점유권이 인정되었다. 4개 리 외의 타동 주민은 엄격하게 입산이 통제되었으며, 이를 어기고 땔나무를 하다가 발각되면 지계를 빼앗기기 일쑤였다. 또한 벌목 등 심하게 작벌

(斫伐)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관에 고발되었다. 이를 위해 산림 감시를 전담하는 순산원을 별도로 두기도 했고, 땔나무철이 도래하면 마을별로 계원들이 조를 짜서 산림을 순산했다. 갈현동 주민에 따르면, 당시 관악산 산림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산감이 관리를 맡았는데, 입산이 허락된 계원들은 지계 윗부분에 ‘불도장[火印]’을 찍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때문에 산림계원이라 할 지라도 불도장이 없는 지계를 지고 가면 입산을 불허했다는 것이다.

벌채는 식림계원들이 관에 허가를 얻어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때 얻어진 주·부산물은 계원 각자의 연료와 용재로 사용하고 그 잔여분은 판매하여 계 자금으로 삼거나 계원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분배 방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가을걷이를 마치면 연말에 식림계원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제반 계무를 결산했다.

(4) 「탄원서(歎願書)」

시흥군 과천면과 신동면에 걸쳐 있는 청계산 국유림은 반수 이상이 시노다 켄 이치[篠田玄一] 외 1명이 대부 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해당 산은 그 밑의 마을 사람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이들로 부터 대부권 양도를 받아 조림경영을 하게 된 것이다.

1. 양도인이 지금까지 관청에 납부한 대부료를 양수인이 지불(支弁)한다.
2. 양수 후에는 매년 대부료 납부는 물론 별지의 식림계 조직이 사업계획을 내어 조림(造林)을 실행하도록 한다.

以上

大正 四年 十月 一日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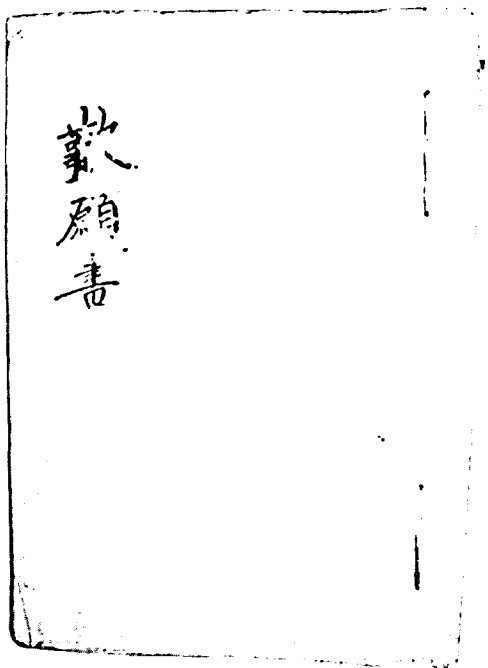
十統一戸 李炳高

三統八戸 崔炳九(*炳勳의 初諱)

李奎憲 林錫根 權承斗 李炳鎬 李炳益* 孫平國* 孫炳舜* 孫秉云

李承舜 田永雲 朴元植 李益善 朴景岩 李奉釗 孫明鎭 孫秉秀 李承奭

孫思默 韓大植*



「탄원서」(20×27.5cm) 표지

李元根 孫永默* 孫炳國 孫仕萬 劉春範 鄭寅煥 權止鎬 林錫煥 劉尙煥
 劉在淳 李定來
 申夏雨 申龍雨 崔學千 金昌順 崔鳳基 崔德順 崔炳文* 朴敬七* 崔炳弼
 宋慈善 金聖道
 金壽一 崔炳德* 崔準澈 崔松植 元錫祐* 金慶和 崔奇澈* 孫春培* 朴善文*
 崔貞植* 權聲集*
 朴敬天 李龍興* 李春元* 李範秀* 林鳳鎮* 林景熙* 韓鳳烈* 孫宗默*

1911년 일제의 「삼림령」에 근거한 조림대부제도가 일본인 산림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이며, 당시 청계산을 둘러싼 갈등과 식림계가 조직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려 준다. 즉, 청계산이 일본인 시노다 켄이치 등에게 대부되자 탄원서를 제출하여 대부권을 양도받는 대신 식림계를 조직하여 조림사업을 시행한다는 서약을 담고 있다. 시흥군 과천면 이병설 외 121명의 연명으로 되어 있으나 두 명의 날인이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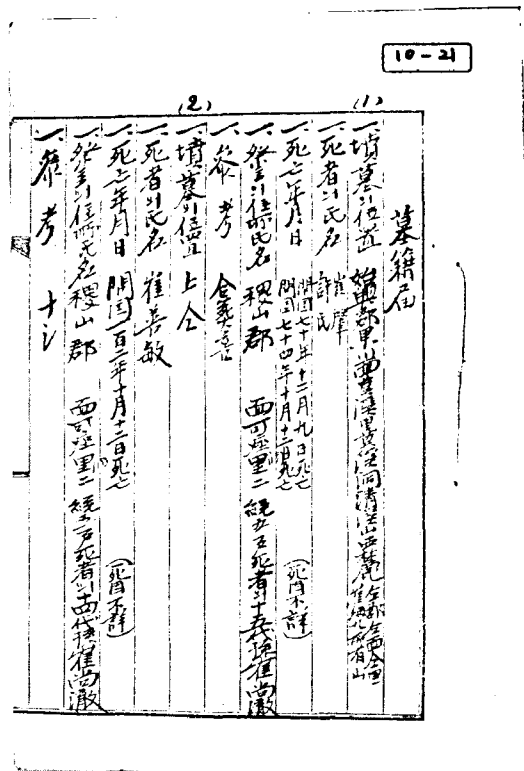
(5) 식림계 인장류

직인 2개와 고무인 4개가 있다. 직인은 ① ‘청계산식림계장지인(淸溪山殖林契長之印)’ ② ‘청계산식림계회계인(淸溪山殖林契會計印)’ 인데, 사각형의 직인에는 세로 글씨 세 줄이 양각되어 있다. 고무인은 ① 횡으로 새긴 ‘청계산식림계(淸溪山殖林契)’ ② 우편물의 겹봉에 찍는 ‘친전(親展)’ ③ ‘지급(至急)’ ④ 봉합을 뜻하는 ‘함(緘)’ 이 있다.

(6) 「묘적계(墓籍屆)」

1915년 1월 16일에 작성하였다. 호적과 마찬가지로 분묘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일제 방침에 따라 막계리에 거주하는 최병구(崔炳九)가 제주(祭主)이며 묘주(墓主)의 15대 종손(宗孫)인 신고자(申告者) 최상철(崔尙澈)을 대리하여 작성한 문서다. 영등포경찰서장 앞으로 신고하였고, 측량도와 묘지약도가 첨부되어 있다. 신고사항은 각각의 기(基)를 단위로 작성하며,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一. 墳墓의 位置 | 始興郡 果川面 莫溪里 莫溪洞 淸溪山西麓 全郡全面全里
崔炳九所有山 |
| 一. 死者의 氏名 | 崔肇
許氏 |
| 一. 死亡年月日 | 開國 70년(1461년) 12월 9일 死亡 (死因不詳)
開國 74년(1465년) 10월 12일 死亡 |
| 一. 祭主의 住所 氏名 | 稷山郡 面 死者의 15代孫 崔尙澈 |
| 一. 參考 | 合葬함 |



「묘적계」(24.2×16.4cm)

(7) 증명서류(證明願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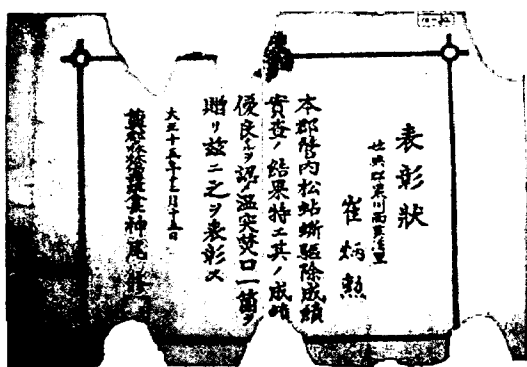
1926년 3월에 막계리 최병훈이 영등포경찰서 과천경찰관주재소장 앞으로 막계리에 있는 묘지의 위치와 망자의 이름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원서(願書)다.

(8) 「묘지존재증명원」

1926년 3월 막계리에 거주하는 식림계원 최병훈이 청계산 식림계 명의로 과천순사주재소장 앞으로 보낸 묘지존재증명이다. 청계산에 위치한 전주 최씨 선대의 묘지 존재 사실을 공인받기 위하여 청원한 것인데, 분묘의 위치, 매장자의 이름, 사망연월일, 매장자와 췌주자(祭酒者)의 관계, 제주의 주소와 이름, 적요(摘要)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1919년 분묘존재증명원의 수신처는 영등포경찰서 과천순사주재소로 기록되어 있다. 봉투와 청원서가 함께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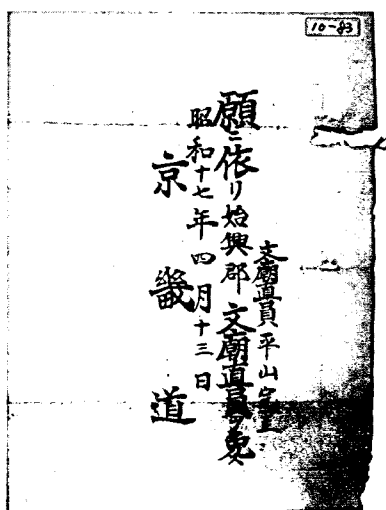
(9) 시흥군삼림보호조합 표창장

1926년 12월 15일자로 시흥군삼림보호조합에서 막계리 최병훈에게 내린 표창장으로, 군내에서 소나무 썰기[松站蜥], 구제[驅除] 작업을 벌인 결과 성적이 우수하여 표창하고 부상으로 온돌아궁이[溫突焚口] 한 개를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조합장은 일본인 카미오 오사무[神尾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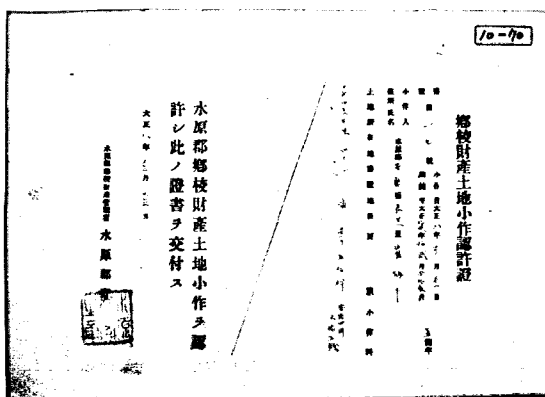


시흥군삼림보호조합에서 막계리 주민 최병훈에게 준 표창장
(1926. 12. 15, 전주 최씨 문중 제공)

8·15해방과 더불어 청계산 식림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와 함께 식림계원 136명의 공동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었던 관할구역의 산림은 매각이 진행되었으나 소유권 문제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몇 차례의 지루한 재판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계원별로 분할 등기를 얻어서 매각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묘직원 임명장(1942)



향교재산 인허증(1942)

3) 서당

마을 주민의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서당은 1리 응달말에 있던 서당이다. 그 이전에 양짓말에 서당이 있었고, 도중에 잠시 끊어졌다가 응달말 서당이 1950년대 초부터 운영되었다고 한다.

서당을 다닌 사람들로 막계1리에서는 최종숙, 이종진, 최병숙, 최진수, 최복남, 송덕흥, 이종필, 고문자, 박송숙 등이며 2리에서는 김용호, 유영하, 변원구, 유용철, 권용하, 손천태, 손선태, 오영수, 손기태, 이창열 등이었다고 한다. 서당에서는 주로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 등을 가르쳤다.

막계3리 능안말에서는 김정규(88세) 아버님인 김형만 씨가 자신의 돈을 들여 능내서당을 차렸다. 서당은 마을 공청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을 공청은 김형만 씨가 자신 소유의 터를 기부하여 지은 것이다. 서당에는 학생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주로 주암리, 하리, 막계리 등지에서 왔다. 외지에서 서당 선생님 한 분 모셔다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은 학비로 일 년에 곡식 댓말 정도씩 냈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기 어려워 서당은 대략 1934년쯤에 차려서 4년 정도 유지되다가 없어졌다. 서당에서는 주로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대학」 순으로 배웠다.

일제시기 막계 마을의 서당은 이곳 전주 최씨 판윤공파 26세인 최용식(崔庸

植, 1863~1943)과 관련이 있다. 문묘 직원을 지낸 그는 성재 허전(許傳, 1797~1886)의 문인이다. 허전은 철종의 명을 받아 『사의(士儀)』를 편찬하였고, 병조·형조·이조 참판과 한성판윤·형조판서·성균관동지사·경연지사·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조판서에 오른 학자다. 궁말에는 과천면장을 지낸 김복권의 아버지가 만든 글방이 있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아 없어졌다.

4) 근대교육

막계리 주민들의 교육열은 그리 높았던 것 같지 않다. 1982년 이전에 과천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도 또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 출신 대학생은 3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학교가 멀고 교통이 좋지 않아 과천공립국민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대개 과천읍내까지 매일 4km를 걸어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현재 과천시에는 다음과 같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4개교가 있다.

초등학교 : 과천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관문초등학교

중학교 : 과천중학교, 과천문원중학교

고등학교 : 과천고등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여자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여기서 과천 중앙동 온온사길에 위치한 과천초등학교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른 초등학교의 유래도 알 수 있다.

과천초등학교 연혁

1912. 04. 01 : 과천공립보통학교(4년제)로 개교(3학급 편성).

1924 : 1922년에 「조선교육령」이 발포되어 교육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어 이 해부터 시흥군 관내의 한국인 학교로는 최초로 6년제 교육 실시.



과천초등학교 40회 졸업 기념사진(1954. 3. 23)



과천초등학교 40회 동창회 기념사진(1958. 8. 17)

1938. 04. 02 : 과천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
 1941. 04. 01 : 과천공립국민학교로 개칭
 1981. 03. 01 : 병설 유치원 개원
 1982. 09. 01 : 문원초등학교 개교로 711명 분리
 1983. 03. 01 : 청계초등학교 개교로 478명 분리
 1984. 03. 01 : 관문초등학교 개교로 644명 분리
 2007. 02. 17 : 제93회 졸업식 249명으로 그동안 총 13,855명이 졸업
 2007. 03. 01 : 총 34학급 편성, 특수학급(1), 유치원 3학급

과천중학교는 1982년 1월 26일에 15학급을 편성하여 인가를 받고 개교하였다. 과천고등학교는 1984년 11월 27일에 9학급을 갖추고 개교하였다. 과천문원중학교는 1989년 1월 27일에 4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능안말 김녕 김씨의 차종손 김진우(1935년생) 씨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과천초등학교로 전학했다. 34회로 1948년 졸업하였다. 시흥군수상을 베풀집 1점 부상과 함께 수상하였다. 이후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때까지도 주로 외지에서 거주하였다.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주말이면 고향집에 와서 머무르고 갔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서울 상도동에 거주하였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수원 영화동에서 통학하다가 이후 서울 상도동에서 생활했다.

5) 새마을운동

1970년대 초반 막계리 주민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지만 부업으로 도시민들의 부식거리가 될 수 있는 야채나 채소류를 키우는 초식농사를 병행하였고, 여성들은 청포묵과 도토리묵을 만들어 내다 팔았다. 그리고 청계산에서 땔감을 채취해 마차를 이용해 서울로 내다 파는 땔나무 장사를 하였다.

1970년 8월 8일에 열린 시흥군의 읍면장 회의 지시사항에는 '새마을가꾸기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시흥군 110개 리에서 행해졌던 새마을사업의 주된 내용은 새마을가꾸기, 지붕개량 1,921건과 총 10km의 7개 농로개설 등이다. 이중



시흥새마을화보(시흥군, 1973)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마을 안길 확장 1,225건, 소하천 개보수 22건, 농업용수 시설관리 2건, 사방 2건, 간이급수시설 3건, 공동정호 173건, 공동빨래터 32건, 하수구 개보수 377건, 공동변소 건립 1건, 마을회관 건립 10건이 추진되었다.

1972년과 1973년에 발행한 『시흥새마을화보』에는 과천에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화보집에는 ‘우리군의 새마을지도자’ 란이 있다. 1972년 화보에는 관문리 김금철(56세), 문원1리 김충원(43세), 문원2리 김훈(56세), 문원3리 김추성(53세), 막계1리 김우하(40세), 막계2리 손형태(45세), 하1리 남궁작(37세), 하2리 신학수(30세), 갈현1리 이용진(60세), 갈현2리 이순영(50세)의 얼굴이 있고, 1973년에는 막계3리 박일선, 하3리 송효석, 주암1리 이정출, 주암2리 김신배의 얼굴이 실려 있다. 당시 막계리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막계1리 : 소교량 가설(길이 6m, 폭 5m), 간이급수시설 설치로 13호 가정
에 수도 설치.



막계리 새마을사업 관련 사진(앉아 있는 사람은 김우하 씨). 사진 중앙의 '새마을 건설' 표지판에는 '협동하여 알뜰이 가꾸어 후손들에 영광주자'는 표어가 적혀 있다.

막계2리 : 교량 가설(길이 6m, 폭 5m), 암거 설치(길이 2m, 폭 2m).

막계3리 : 석축 쌓아 마을 안길 확장(50m), 화단 설치.

장대홍(1936년생) 씨는 장흥수 면장 후임으로 1980년 7월부터 1982년 6월까지 과천면의 마지막 면장을 지냈다. 그는 1962년 면서기(촉탁)를 시작으로 30년 6개월간 과천에서 공직생활을 했는데, 1972년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는 면사무소 총무계장이었다. 식목일에는 식목작업을 지도하고, 주민들의 공동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막계리 전주 최씨 가문의 종부인 조용기(1941년생) 씨는 1975년에 막계리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원연수원에서 1주일간 새마을교육을 받고,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4박 5일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1976년 새마을공로 표창도 받았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면사무소에서 여는 부녀회 회의에 나갔으며, 마을별로 배당된 물건을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보급하고, 절미운동을 홍보하고 산아제한을 위한 약을 마을에 돌리는 일 등을 주로 했다고 한다.

5. 막계리 마을이 사라지다

1) 강제 개발

막계1리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서울대공원 동물원·식물원이, 막계2리에는 서울랜드가, 그리고 그 사이 언덕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섰다. 서울대공원은 87만 평의 동·식물원을 포함하여 모두 163만 평이 넘는 넓은 시설이고, 동물원과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둔 막계2리 25만 평 공간에 서울랜드가 있다.

서울대공원 조성 과정에 대해 주민들은 당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막계리 일대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춘이 소유한 땅이 많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될 수 없었다. 그래서 김재춘이 대통령을 움직여 그곳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서울대공원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과천면장이던 장흥수 씨는 청계산 일대와 막계리에 중앙정보부장의 땅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일대의 전·답·대지를 포함한 임야를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하반기부터로 그 넓이가 136만 평이나 되었다고 한다. 막계리 주민이 대다수인 식림계 소유 임야를 매입한 사람도 제3공화국 시절에 중앙정보부 실세였던 김재춘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식림계가 보유했던 산림에 인산농원을 설립하였다.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은 1971년 7월 30일이었다. 이후 2년이 지난 1973년 가을경에 대통령이 현지시찰을 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

준도 향상되었으니 국민을 위한 대규모 휴식처도 필요해졌으므로 이곳을 서울 시민을 위한 대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김재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974년 8월 15일에 있었던 문세광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김재춘 씨는 양어장과 목장을 운영하였다. 김재춘 씨 밑에서 산림감수를 보던 김영기 씨의 권세가 컸다고 한다. 서울대공원으로 들어간 땅 전체의 70%가 그의 소유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라 정보부장이 북한을 다녀와 평양에 큰 공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창경원밖에 없으니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김재춘이 땅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박 대통령이 경기도가 당시에 재정력이 없으므로 서울시에 지시해서 김재춘 농장을 매입하게 하고 대신 농장은 부천으로 옮겨갔다.

1974년 9월에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구자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과천에 건설하기로 한 서울대공원을 서울시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서울대공원 건설계획은 서울시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1977년 1월,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산림을 일괄 매입함으로써 지금의 서울대공원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 서울시가 '남서울대공원 건설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1977년 1월 10일이었다.

서울시에 의한 대공원 건설 발표가 있었지만 시행까지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1978년 2월에 김재춘이 과천면 막계리 일대 136만 평의 땅을 기부채납을 할 테니 대공원 개원 후 운영권 일부를 이양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 설치조례」가 공포된 것은 1978년 5월 30일자 서울시조례 제659호였다. 태평로1가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에 간판을 걸고 건설사업소가 일을 시작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대공원 부지에 관한 서울시 방침이 결정된 것은 1978년 10월 7일이었다. 그리고 10월 30일 오전 10시에 막계리 현장에서 서울대공원 기공식이 열렸다.

그 과정에서 장막성전 신도들의 끈질긴 저항이 있었다. 교당과 주택 철거, 대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막계저수지를 둘러싼 대책, 1979~1980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공사규모의 축소 또는 유보, 기간연장 등 걸림돌이 있었다. 이러한 사연들로 인해 6년의 장기공사를 거친 다음 1984년 5월 1일 서울대공원은 개원하였

고, 서울랜드는 그로부터 4년 뒤 1988년 5월 11일에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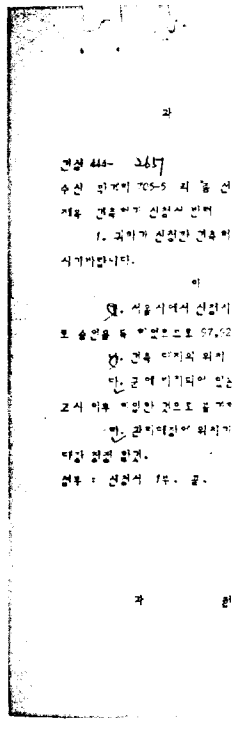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막계리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 문원동 이주단지로 입주하였다. 그 시기는 대체로 1979년과 1980년의 일이었다. 이주 당시는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생활하기가 불편하였다. 이주한 지 4~5년이 지나서야 살 만한 환경이 되었다. 문원 1단지 75평을 추첨한 막계리 주민은 40~50가구에 이른다. 지금은 그 가구 중에서 이미 상당수가 문원동을 떠났다. 처음에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집을 짓고 무얼 하며 사느냐”고 망설였다. 결국 추첨을 통해 구입했던 이주단지의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 집을 지어 살다가도 끝내 팔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보내고 현재 문원 1단지에는 20가구 정도만 남아 있다.

이주단지로 온 주민 가운데 20호만이 남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로 떠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충청도로 농토를 찾아 이거하였다. 막계리 주민들 가운데 문원동 이주단지로 이주, 정착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시 신문이 ‘철거비도 안된다’고 기사화한 것처럼, 이주대상자들에게 지불되는 건축보상비가 적었고, 이주권을 팔아넘기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태 씨는 1932년생으로 전주 이씨이며 4대에 걸쳐 막계리 일대에 세거하다가 서울대공원 건설로 집을 이전함과 동시에 선산도 옮겼다. 공직에 있다가 갈현동 초대 동장을 지냈고, 문원동 3대 동장을 역임한 뒤 1993년 6월에 정년퇴직하였다.

당시 이용태 씨는 48세였다. 16.5평 규모의 자기집 건물 보상비를 서울대공원 건설사업소가 1977년 7월에 감정원 감정가격을 적용, 평당 5만 4,000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건축자재 값이 1979년에는 197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이주단지에 들어가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적어도 평당 25만~30만 원이 들어 최소한 1,000여 만 원을 더 보태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1979년 당시에도 이주대상자 50세대 가운데 50% 이상이 이주권을 서울사람들에게 700만 원에서 1,000여 만 원씩 받고 팔아넘기고 집값이 싼 시골로 이사를 가거나 셋방을 얻어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한 집 지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공원건설사업소 측은 보상금을 타가지 않으면 이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6



모두에게 각각 이주단지 40평이 분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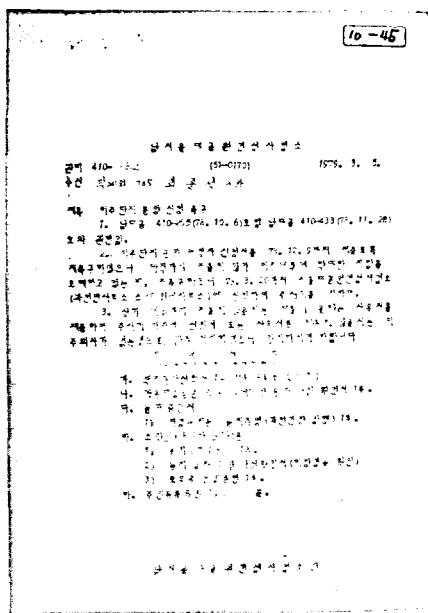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서울대공원은 1978년 10월 30일에 기공식을 갖고 1984년 5월에 개원하였다. 철거를 완전히 마친 것은 1984년 11월이다. 즉 이주가 완전히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세입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집이 완공이 되지 않아 1985년까지 끝었다. 두 가구는 강제로 집을 뜯어 종합청사 목장 앞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나머지는 공원관사 앞에서 임시 거주하게 하였다. 서울대공원은 총면적 646만㎡이다. 이중 동물원은 282만㎡, 식물원은 121만㎡이다.

2) 막계 주민의 이주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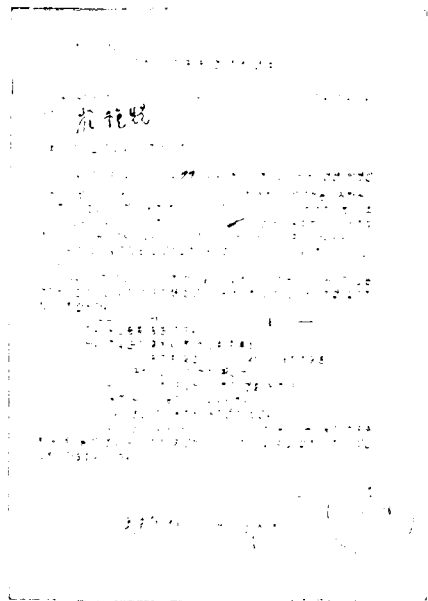
1977년 5월 27일 건설부의 제89호 고시에 의해 막계리를 포함한 청계산 일대가 공원지역으로 정해지면서 막계리 주민들의 거주지 이전과 함께 이들 조상의 묘도 이장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거주지는 과천시 문원동으로 정해졌고, 선묘 이장은 각자가 보상금을 가지고 옮길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응달말 전주 최씨의 경우는 이때부터 이장을 준비하여 1979년 1월에 용인시 남서면 완장리에 묘터와 위토를 구입하고 3월에 산신제를 시작으로 산역을 하여 7월에 이장을 완수하였다. 이 때 묘비 제막과 함께 위령제도 가졌다. 2차 보상비로는 묘역 관리를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충남 천안과 경기 화성에 위토를 구입하였다.

이 과정은 「전주최씨십수세보」(2003년 간행) 중 「처사공선영이묘기(處士公先塋移墓記)」에 상세히 나온다. 막계리 거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그곳 토박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저렴한 거주조건을 찾아 도시 주변으로 이주하다가 이곳까지 흘러온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었다.

공원 공고가 난 이듬해인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세입자들은 이주대책을 위한 탄원과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세입자들도 이주대책을 받게 되었는데, 합법적으로 세입자들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세입자들의 오랜 노력과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과천 11단지와 호계동에 주공아파트를 지어 이들을 입주시켰다.



분양신청을 촉구하는 공문(26.8×19cm)
1979년 3월 5일자로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에서 막거리 거주 최종선 앞으로 보낸 공문으로 이주 단지 분양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계약서(37.7×26.3cm)
1979년 9월 24일에 서울특별시와 막거리 거주 최종선 간에 이루어진 분양 계약서로 문원리 단지 내 247.5㎡가 30만 8,000원에 매매되었다.

1978년 10월 30일에 대공원 건설공사 기공식이 있었다. 서울대공원 개원은 1984년 5월 1일이었고, 서울랜드는 1988년 5월 11일에 준공하였다.

문원동 이주단지로 택지를 분양받아 이주한 호수는 1리와 2리를 합하여 모두 150호다. 이중 막계1리가 60호, 2리가 90호다. 나중에 3리 50호를 합쳐 200호를 이루었다. 농사짓던 원주민에게는 문원 1단지에 각 75평의 택지를 분양하였고, 막계2리에 있던 장막성전 교인과 같은 비농가에게는 2단지에 각 40평의 택지를 분양하였는데, 모두 500호 규모였다.

이주 당시 주민 10호 중 6호, 즉 약 60%는 이곳 문원동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대개는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 농지를 구하고 그 근처로 이주한 것이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당시로는 허허벌판이던 안양 등에 과천 논밭시세 보다 싼 값에 대토를 마련하여 농사를 계속 지어왔다. 후에 안양 땅값이 오르자 이들의 선택이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에서는 문원동에 대지만 분양하였을 뿐 그 위에 집을 짓는 비용은 각자가



경로잔치 모습 1
막계리 주민들이 문원이주단지로 이사 온 후 처음 열린 마을잔치 모습을 찍은 것이다.



경로잔치 모습 2
막계리 풍물패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사진이다.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돈이 마련되지 않아 문원동에 입주하지 못하고 멀리 떠난 주민들도 있었다.

2리의 장막성전 교인들도 문원동으로 이주해 왔다가 이후 종교문제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교인들은 대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중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고 없다고 한다. 대개 원주민들은 이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일부 주민들은 이들이 가난하여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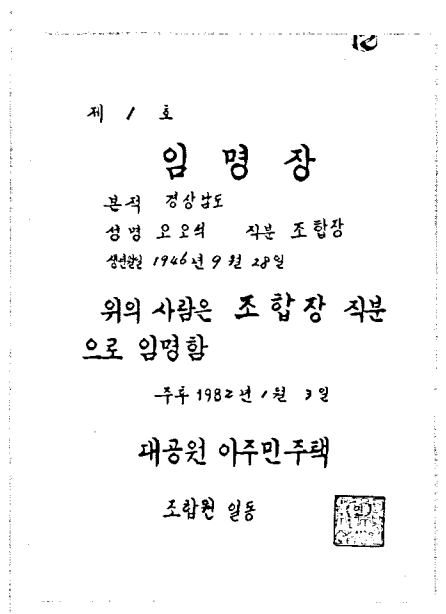
이들은 대개 농토가 없어 농사를 짓기보다는 품을 팔아 살았다. 그러니 원래 살던 마을 주민들과는 잘 융합되지 못한 것 같다. 장막교회를 다니는 원주민들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네 이미지도 그러하고 교회로 인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어서 현실인식이 다른 점 등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 같다.

이주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문원동에 거주하는 막계리 주민은 모두 합하여 20가구 정도가 된다고 한다.

3)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과 세입자 주민의 이주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이 조직된 것은 1977년에 대공원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 해를 넘긴 1978년이다. 주민 오오석(63세) 씨가 서류를 만들기 위해 양면지 값으로 300원을 주고 세입자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일을 추진하던 중 1982년에 임명장을 받았다.

잠실 시영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이주책이 도중에 있었으나 당시 프리미엄(웃돈)이 집값보다 컸을 정도였고 서울인구 밀집화로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주도하던 시절이어서 여전히 세입자들이 서울로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박영수 서울시장(재임기간 1980년 9월~1982년 4월)이 대한주택공사로 옮기면서 과천과 안양에 각기 이주자 입주권을 마련하여 식구가 2인인 가구는 13평, 3인인 가구는 15평, 4인인 가구는 이상은 17평으로 정하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장 임명장(27×19.8cm)

면서 실마리가 풀렸다고 한다.

서울대공원 설치 지역 내 무주택주민들은 대책마련을 위해 조합을 조직하고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규약」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1명
부조합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명예조합장 1명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운영 재원은 가입비,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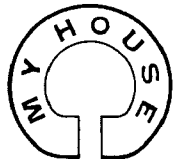
막계리에서 세입자로 살던 무주택자들은 대공원 건설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980년 4월 8일자로 호소문과 4월 20일자로 진정서를 대통령 앞으로 내어 이와 같은 관련 기관의 회신 공문을 받았으나 주택을 분양받기까지는 오랜 기간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서울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무주택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내었는데, 이러한 문건들은 그 과정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문서의 내용은 1981년 6월 11일자로 조합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문경애(1900년 2월 17일생) 씨가 작성하여 남서울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으로 제출한 각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명부 등록신청은 무주택주민인 세대주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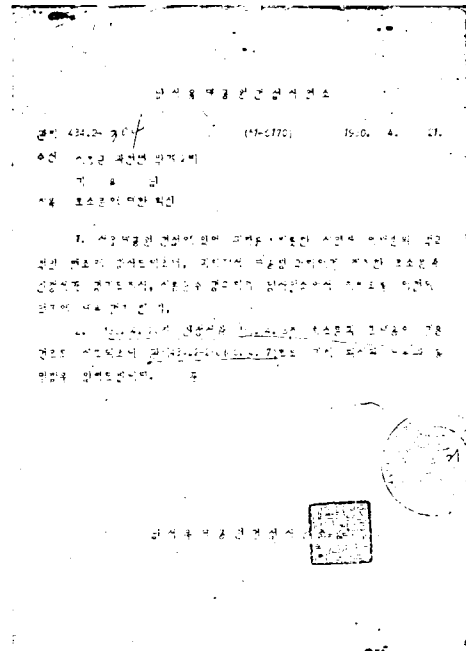
規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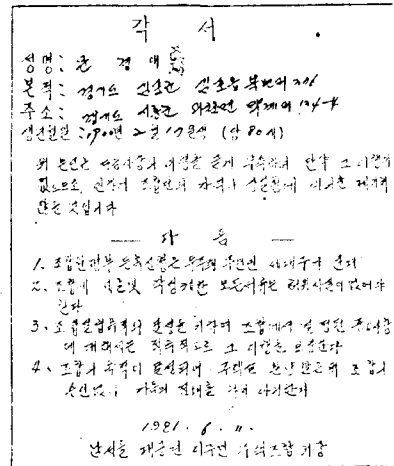
大公園移住民住宅組合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규약」(18.8×13.2cm)

2. 조합에 제출 및 작성케 한 모든 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조합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합에서 결정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이행을 보장한다.
4.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조합의 승인 없이 가옥의 전매를 하지 아니한다.



「호소문에 대한 회신 공문」(16.6×18.9cm)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에서 기용남 등 막계리 세입자들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호소문과 신청서가 경기도지사, 시흥군수를 경유하여 당 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이첩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회신 공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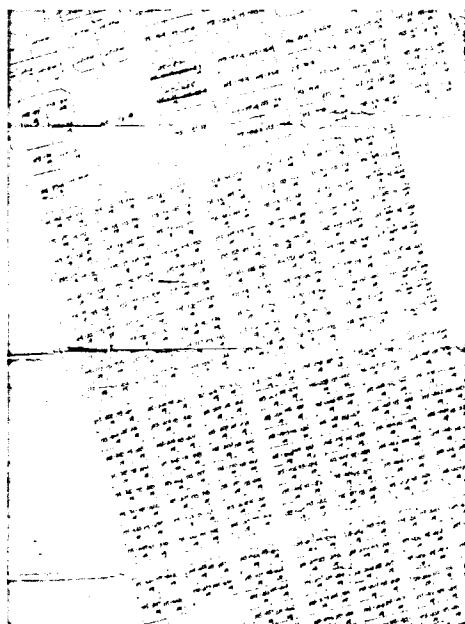
문경애 씨의 각서(27×19.3cm)

조합에서는 위의 사실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이 문서를 통해 조합원에게 미리 다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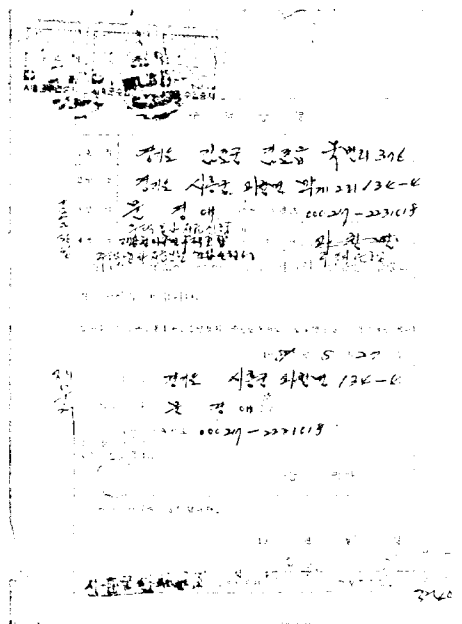
문서의 내용은 남서울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 사항을 위임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등록한 문경애로부터 받은 위임장이다. 위임을 받은 이유는 문경애가 연로하기 때문인 것 같다. 다음과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막계리에 거주하는 오오석 씨다.

1. 대공원 이주민 주택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모든 사실적 법률적 행위
2. 대공원 이주민 주택조합의 규약(정관) 부칙 제1, 2호의 認, 證 및 認可를 위한 행위

다음은 그 밖의 관련 문서들이다. 문원동에 이주한 막계 주민들은 농사를 더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주단지에 집 짓는 일과 마침 과천신도시 개발(1980년 착공)에 따른 건설 특수로 대개는 임금노동을 하며 살았다. 한참 일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상업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노동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대지분양도



대공원이주민주택조합 문경애 무주택증명서

6. 개발 이후 막계리에 위치한 기관

1)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의 건설¹⁾

(1) 서울대공원 건립 배경

19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0년간에 걸쳐 GNP 성장률은 약 10%였고, 1인당 GNP의 경우 1970년 252달러에서 1977년에 1,012달러로 4배가 증가하였다. 연간 수출액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향후 5년 안에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연간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7개국이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쟁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고도성장한 나라는 개발도상국 가운데도 그 유례가 없었다. 경제발전의 효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었다. 1975년에는 승용차도 170명당 1대 꼴로 보유하게 되었다. 가계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 당시 전국 인구는 3,147만 명이었으며 서울인구는 약 543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17.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후 서울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75년 전국 대비 19.9%에 이르러 5년간 증가율이 26.9%나 되었다. 수도권 인구 또한 증가하여 1949년 전국 인구의 20.5%였던 수도권 인구가 1970년대에 28.2%,

1)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서울경마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원고는 『과천시지3-신도시의 개발과 지방자치제』, 과천시지편찬위, 2007, 99~165쪽 재수록.



서울대공원 기본계획도

1980년대에 35%로 상승하였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공원녹지는 반대로 줄어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1974년을 기점으로 공원면적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내의 고궁과 산은 이미 수용 규모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1970년대 서울 시민이 즐겨 찾던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창경원이었다. 창경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하나로, 세종이 부왕인 태종의 처소를 건립하여 수강궁으로 이름한 것이 처음이었다. 태종 서거 후 쇠락해진 건물을 성종이 중수하여 대비 3명의 처소로 삼았다. 1483년(성종 14)에는 이름도 창경궁으로 개칭하였다. 임진왜란과 그 이후 수차례 전란으로 전각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그때마다 중건하여 조선 말까지 이어졌다. 1907년(융희 1) 일제는 순종의 오락장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궁궐 안에 동·식물원을 설치하고 이름도 궁(宮)에서 원(苑)으로 격하시켰다.

동·식물원을 갖춘 창경원을 일반 시민에게 개원한 것은 1909년 11월 1일이었다. 창경원은 그로부터 75년간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식물원으로서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낡았을 뿐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소음 등으로 환경도 나빠져 위치가 부적합하니 이를 교외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주무 부서인 문화재관리국은 물론 서울시도 빈번하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연간 300만 명 내외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상황에 사적(史蹟)과 문화재의 보호 차원에서 증가하는 관람 인원을 계속 수용할 수 없었다. 서울시도 급증하는 관람 수요에 어떻게든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1968년에 관악산 기슭이나 망우리, 수색 등 3개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해 동물원 건설을 발표한 바 있었고, 문화재관리국도 1972년에 북한산 뒤 송추계곡 온릉에 국립동물원 건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교통과 상하수도시설 건설과 택지조성사업 등의 업무만으로도 행정력과 재정이 힘겨운 때라 추가적인 공원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1968년과 1972년의 공원계획은 무산되었다.

서울시는 1977년 1월 5일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일원 청계산 기슭의 202만 평에 동·식물원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8월 31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78년 6월 1일 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를 발족하였고, 10월 1일 기공식을 가졌다. 1978년 서울시가 확정·발표한 기본계획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의 10배 규모로, 총 98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1981년까지 주요 시설과 동물원 일부를 완성하고, 1986년까지 동·식물원과 각종 위락·문화·체육 시설 등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계획에서 제외되었지만 당시에는 청소년시설과 모노레일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였다.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 동물원 건립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막상 서울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막계리에 입지를 결정하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결정 과정에도 많은 사연을 남겼다.

(2) 입지 선정과 보상

가. 막계리 자연·인문환경

서울대공원 부지로 확정된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1·2리와 관문리, 하1·2리를 포함하였다. 1972년 문화공보부는 서울 교외에 국립동물원을 건설하기 위해 일차로 이곳을 지목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상 협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계획을 이내 포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곳은 1977년 1월에 문화공보부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대공원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막계리는 서울시청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서울 남단 남태령으로부터 5km 떨어진 청계산 서북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부지는 도시계획상 청계산공원 내에 설정된 시설 공원부지다. 청계산공원은 서울시 강남구 원지동 일원의 107만 2,000평과 막계리 일원 360만 2,000평을 합한 총 467만 4,000평으로 되어 있다. 그중 대공원 부지는 막계1·2리 임야, 농지, 대지, 저수지 등 총 163만 5,000평이다. 확정된 대공원 부지는 망경봉을 중심으로 응봉과 옥녀봉의 8부 능선 안쪽의 넓은 지역으로 망경봉의 깎은 듯한 바위 정상을 비롯하여 산 전체가 시야에 들어온다. 저수지 수면에 비치는 청계산의 광경은 가히 장관이며 이 경관은 계절마다 고유의 색깔을 가진다.

대부분 잡목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봄에는 마을의 개나리와 산록의 진달래에 서부터 시작하여 중턱의 산벚 등 갖가지 꽃들이 아래서부터 차례로 피어 산마루까지 오른다. 여름이면 신록이 눈부시고, 가을 단풍은 산마루에서 산 아래로 물들어 간다. 겨울이면 청계산의 설경이 절묘하다.

이러한 청계산과 막계리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명에 대한 유래도 매우 깊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망하자 고려의 충신들이 청계산에 숨어들어 은거하며, 멀리 고려의 왕도 송경(개성)의 뒷산인 송악산을 바라보며 나라가 망한 서러움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려의 왕도를 바라보며 그리워했다는 망경대, 잃어버린 나라를 일으킬 생각을 가다듬었다는 국사봉(國思峰)과 같은 청계산 봉우리들의 이름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막계는 청계산의 북쪽으로 흐르는 골짜기가 맑다는 의미에서 ‘맑은 내’, ‘맑 내’, ‘막내’, ‘막계(莫溪)’가 되

었다고 한다. 막계리의 또 다른 이름이 광명(光明)이었다 하니, 청계산과 막계리의 자연환경은 그 맑고 깨끗함을 옛부터 인정받아 왔다.

이 지역은 옛부터 돌이 많은 지역이어서 계획 당시 마을에는 집집마다 돌담이 있고, 밭둑에도 돌담이 있어 제주도를 연상케 했다고 전한다. 막계2리 윗마을 응봉 능선의 북사면에는 영보수녀원이 약 3만여 평의 과수원 등 경작지를 조성하여 경작하고 있었다. 현재 다람쥐광장이 되었다. 막계2리 아랫마을인 현재 서울랜드 거북성식당 부근은 1960년대 초에 장막성전이란 신흥종교가 자리 잡고부터 일대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들의 가건물이 난립했다. 종교시설로 인하여 쓰레기와 생활오수가 계곡을 덮고 호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형편이었다. 원래 옛지명은 광명동이며 일찍이 양녕대군의 현손인 이축(李軸, 1538~1614)이 수려한 경관을 벗 삼아 말년을 보낸 유서 있는 명소이다. 현재는 서울랜드 한가운데 늪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옛일을 말하듯 서 있다. 현재 관리사업소와 관사 일대는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고, 저수지 뚝 하부에 있는 주차장은 원래 평탄한 농경지로 대여섯 채의 농가가 산재해 있었다고 한다.

부지 내는 대부분 산림이며 계곡 하부에 마을, 농경지와 저수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막계1·2리 가구수는 520호로 그중 영농 원주민은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90% 이상이 외지에서 이주한 2리의 장막성전 신도들이었다. 1리의 가톨릭 수원교구 관하 영보수녀원에는 수녀 20여 명이 현재 다람쥐광장 일대에 약 3만여 평의 농지를 개간하여 경작했고, 개미광장터에는 젓소 40여 마리 규모의 목장이 있었다.

어린이동물원터 저수지에는 백연어, 향어, 송어를 양식하는 양어장이 있었다. 목장과 양어장은 한때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춘의 소유였는데, 그가 소유한 임야 등 총 토지면적이 136만 평이었고 그중 90만여 평이 공원부지 안에 있었다.

당시의 교통체계는 불편했다. 사당-군포 간, 과천-양재 간 4차선 16m 포장도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노선버스는 용산-과천 간, 안양-과천 간의 2개 노선뿐이었고, 과천-막계리 간에는 6m 폭 비포장도로에 마을버스가 있을 뿐이었다. 1985년 지하철 4호선 상계-한성대입구 구간이 1차 개통되었고, 1994년에 남태령과 금정을 잇는 과천선이 개통되었다.

나. 막계리 입지 선정

서울대공원이 막계리에 자리잡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이곳이 가진 자연적 조건과 장래 발전 가능한 입지적 요소 등이 대단위 위락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하여, 수차례 전문가들을 통해 거론되던 시기에 정부과천청사와 과



막계저수지의 1970년대 풍경

천 신도시 건설계획이 결정되면서 상승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던 손정목은 그의 저서를 통해 당시 서울대공원 입지가 과천면 막계리로 정해진 것과 계획대상지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재춘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김재춘은 5·16군사쿠데타의 주도적 인물이었으며 1963년에 약 9개월간 중앙정보부장을 맡았다. 국가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던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춘을 불러 신무기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기지가 될 전쟁과학연구소 설치를 위해 과천면의 청계산 서북쪽 산허리 약 200만 평을 시급히 구해야겠는데,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기 어려운 입장이니 김재춘이 농장을 확장하는 명분으로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에 김재춘은 청계산 자락의 136만 평의 토지를 서둘러 구입하였다. 그러나 연구소의 적지(適地)로 알았던 이 토지가 국방과학연구소장 심문택과 미국에서 초청해 온 과학자들이 현지 답사해 본 결과 적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자리가 적으로부터 미사일 등의 유효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신무기 연구·생산기지는 대전 근처로 옮겨갔다.



과천저수지 원경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김재춘이었다. 거액을 들여 매입한 136만 평이나 되는 토지 활용이 막막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1971년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상황이 더욱 난처해진 것이다. 결국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박 대통령이 1973년에 김재춘과 관련 장관들을 대동하고 청계산을 시찰하기에 이른다. 김재춘이 5공화국 시절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현지시찰에서 박대통령이 “국민소득이 높

아지고 생활수준도 향상되었으니 이제 국민을 위한 대규모 휴식처도 필요해졌다. 이곳을 서울시민을 위한 대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재춘은 일본 건설회사와 함께 합작투자계획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으로 김재춘의 사업이 치명타를 입어 대공원 계획은 쉽사리 진행되지 못했다. 일이 지지부진하던 중 1977년 서울시장이었다던 구자춘은 과천에 계획 중인 대공원을 서울시가 건설하여 운영하자는 계획을 제의하게 된다. 대공원 계획을 계속 시도해오던 서울시와 처치 곤란한 토지를 처분해야만 하는 김재춘의 입장이 일치하게 되었고, 그후 오랜 기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김재춘의 땅 136만 평은 모두 서울시가 인수하게 된다.

막계리는 대공원으로서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작 이곳을 대공원으로 조성하기까지는 당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 보상

① 보상계획과 이주대책

1977년 5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9호로 청계산공원 468만 평(과천면 관문리 65번지 부근)에 서울시 도시계획(남서울대공원 건설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7월 25일 부지 내의 보상재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토지, 지장물, 다년(多年)작물, 영업권, 분묘 이장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시흥군청과 관련 기관을 찾아 가서 지적조사와 주민의 생활상, 재산 사정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실태조사는 거의 1년이 걸렸다. 1978년 10월 기공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문원동 이주단지와 막계1리 동·식물원지구의 토지 수용에 대한 협의까지 일을 진척시켰다. 당시 행정담당 임무를 맡았던 이병준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교통도 불편하여 먼 거리를 출퇴근 할 수가 없어서 대다수 직원들은 저수지 부근 농가(현 어린이동물원터)에 방을 얻어 살거나 천막을 치고 합숙을 하며 사무를 보아야 했다. 오래된 원주민들과의 협의는 대체로 무난했으나 무주 재산, 무연고 분묘 등의 처리에는 애로가 많았다. 특히 막계2리 장막성전의 신도로 농가에 세를 들어있거나 간이주택에 입주한 자, 보상의 혜택을 노려 무작정 이주해 들어오는 자들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나 요구에는 합리적 설득도 소용이 없었다. 대를 이어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네 사정을 잘 알았던 유대근 이장은 주민들을 설득하며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다.

거의 1년을 변변한 사무실도 없이 지내다가 장홍수 면장의 배려로 면사무소의 방 한 칸을 빌려 옮긴 것은 1978년 6월, 정식으로 건설사업소가 발족할 무렵이었는데, 그래도 본소와의 사무연락 등 원활치 못한 점은 여전했다. 직원들은 몇 해 후면 들어설 훌륭한 대공원의 모습을 떠올리며 보람으로 여기고 견뎌냈다.

1979년 4월 23일 사업소가 현장으로 나오면서 보상반은 관리과에 소속되었는데 그때는 벌써 본격적인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기초 작업이 진척되어 있었다. 돌이켜 보면 공무원 생활 중 가장 일다운 일을 했던 때가 아닌가 한다.

당시 전담반이 집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지 내의 개인재산 보상은 강제 수용함이 없이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농가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주대책에 의해 인근 문원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조건이어서 이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이비종교로 평가받던 이른바 장막성전의 신도들과 세입자, 그리고 공원건설 공고 후 들어온 일부 무단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많은

토지실태

(단위: 평, %)

용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635000	100	
대지	57,000	3.5	건물 541동
밭	170,600	10.4	
논	211,000	12.9	
임야	1,124,400	68.8	김재춘 소유 91,500
저수지	72,000	4.4	홍안농조



서울대공원 원경

어려움이 있었다. 부지 내 전체 가구의 90%나 되는 장막성전 신도들은 대개 수 평 정도의 무허가 주택에 살거나 농가 또는 무허가 주택에 세들어 살았는데 이들은 완강히 자신들에게도 원주민과 동일하게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건설 공고 후 무단 이주민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이주대상자가 30가구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

책을 시행해야 하고, 그 내용에는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주민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대공원 건설고시일인 1977년 5월 27일 이전에 시설구역 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8년 9월 30일부터 문원리에 2만 2,000평을 구획하고 공원시설공사보다 먼저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1979년 9월 17일에 완성했다.

1979년 5월 20일 조성공사의 완료를 앞두고 주민들의 이주와 건물 철거에 대한 최초 이주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농가는 1단지에 가구당 75평, 비농가는 2단지에 40평씩 택지를 분양한다. 둘째, 이주대상자, 농가, 비농가의 구분 등 주요 사항은 현지 주민과 사업소 직원으로 구성하는 ‘이주대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사업소 기획예산을 담당했던 신경성 계장의 수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다.

1979년 6월 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이주대상자를 심사하여 본인들에게 이주대상자임을 통보하고, 9월 6일에 서울시 전산실에서 주민대표와 과천시서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주민대표의 손으로 택지의 필지 추첨을 실시했다.

시흥군에서는 12월 6일부터 이축허가를 위한 보상건물의 실태조사를 하고, 1980년 2월 6일에는 이주단지의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이주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건축이 활기치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이주대책이 대강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주대책심사에서 전입시기, 이 중 혜택을 노린 집 나누기, 비주거 등의 사유로 탈락한 32동의 소유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한편,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세입자 300여 세대가 ‘서울대공원 세입자주택조합’을 만들어 사무실을 개설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법규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다른 구제책이 없고 선례도 없어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세입자들의 문제가 현실로 대두되어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자 시에서는 그들의 조직을 조기에 와해시키고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설득에 나섰다.

1980년 4월 11일 서울시장(치안국장 출신 정상천)은 주민대표 10명과 면담을 하고 ‘세입자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례도 없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생계보조 수준의 지원은 생각해 보겠다’고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1980년 5월 23일 탈락한 32동 중 무단 분할 가옥, 비주거 건물 등 3동을 제외한 나머지 29동은 재심의 끝에 시흥군과 협의하여 택지를 분양받았다. 5월 26일에는 당시 주·부 진입로와 주차장 일부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건물은 이주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이축할 수 없다는 것이 시흥군의 견해였으나 이것도 일괄하여 이축을 허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단지 내 건축이 더욱 촉진되었다.

1981년 6월 26일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지장물의 철거가 임박해 오자 시설 구역 내의 잔류세입자들이 이미 인근 지역이나 반월, 안산 등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에게 ‘세입자들도 아파트 입주권을 준단다’고 선동하자 되돌아와 철거된 가옥을 세우는 등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1981년 12월 5일 안찬희 종합건설본부장은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서울시 가락동에 짓고 있는 시영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주선해 보겠다는 언질을 준 바 있는데 그 말이 퍼지자 그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화되어 1983년까지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를 배정받아 특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부, 대한주택공사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1982년 말 「주택공급규정」을 개정하여 세입자에게도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를 특별 분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1983년 9월 22일 건설부로부터 서울대공원 세입자를 위한 특별 분양 승인과 함께 안양시 호계동 주공아파트 333세대를 배정받아 어려웠던 이주대책을 종결했다. 다만 공원고시 이후에 무단 이주한 42세대는 끝내 구제책을 찾을 길이 없어 한때는 궁여지책으로 직원 숙소 등에 임시 입주를 시켰다가 개원 이후인 1984년 12월 24일 이사 보조금+α를 주어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처럼 대공원 계획부지의 보상과 이주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당시까지의 개발에 따르는 보상·이주대책 과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었다 하겠다.

② 홍안농조 저수지

서울대공원 정문에서 동물원에 이르는 중간에는 맑은 호수 하나가 위치해 있다. 얼핏 보면 대공원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호수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호수는 대공원 계획 전부터 현재까지 홍안농지개량조합(홍안농조) 소유의 저수지이다. 1956년 12월 25일 홍안농조에서 시흥군 과천면과 의왕면 일대의 수리답 68만 5,000평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7만 2,000여 평의 부지에 축조한 것이다. 저수량은 119만여 t이며, 공원의 경관조성이나 수상이용시설 등으로 매우 큰 효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대공원 건설 초기부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

으로 이 저수지를 시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 대공원의 경관조성과 여러 활용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수지였기에 시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지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개량용 저수지는 그것이 관개용수로 공급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신경성의 수기에는 당시 서울시와 홍안농조 사이에 오고간 내용이 남아 있다.

1979년 4월 9일 안양시에 있는 홍안농조를 방문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시된 쌍방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 ㉠ 저수량과 농업용수 관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호안축조, 교량과 도로의 설치, 조경공사의 실시 등 공사실시를 서울시에 위임해 줄 것.
- ㉡ 농업용수 관개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시에 매도해 줄 것.
- ㉢ 농업용수의 사용료는 호수에 구체적 이용시설(유람선) 등을 설치하고 유료운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불한다.

홍안농조

- ㉠ 호안공사 등 저수지 주변공사의 사전협의.
- ㉡ 저수지 수량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의 금지.
- ㉢ 「농지개량촉진법」에 정한 물 사용료를 개원과 동시에 일 년 단위로 선납할 것(저수지에 수상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무료에 관계 없이 납부).

또한 홍안농조는 이미 공원의 경관조성에 저수지의 물이 이용되고 있으니 저수량 119만여 t에 대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11월 21일 서울시는 농림수산부 농지개량과에 중재를 요청하고, 전문 13조와 부칙 5조로 구성된 「협약안」을 농림수산부와 홍안농조에 송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안농조에서는 물 사용료 납부를 거둬 요구하고, 호수변과 공원 내 홍안농조 소유지상의 식당, 매점 등의 임대 또는 운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사용 수익원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협약이 담보 상태인 채 공원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홍안농조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제의해 왔다. 협약이 성립될 때까지 호수변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며 만약 협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이 개원된다면 호수 주변의 입장객 통행을 통제하고 독자적으로 호수변에 식당, 포장마차 등 편의시설과 낚시터, 유람선 등 유흥시설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직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후 서울대공원에서는 저수지건설용자금 잔액을 상환하고 몽리구역 내 관개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저수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농지개량촉진법」상 매매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홍안농조 측의 호응도 없었다. 1982년 여타 보상을 일부 마무리 짓고 미제로 남은 채 1984년 5월 개원을 맞게 되었다.

개원되고 반 년이 더 지난 1986년 1월 13일에 홍안농조 조합장과 서울시장 간에 14개 조문으로 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도 매년 약 1,000만 원 내외의 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3) 건립 과정과 개원

가. 건립계획

1973년 가을 김재춘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대공원 개발 지시를 받고 기본 계획을 정일건축연구소의 송기덕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후 「서울대공원 종합계획서」라는 결과물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만 평에 달하는 청계산 서북방 일대를 모두 포함하는 광역계획이었다. 이 계획에서 다른 계획부지는 김재춘 소유지 136만 평 외에 사유지 168만 평과 국유지 9,000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광역부지를 위아래로 나누어 개발하는데, 윗부분의 고지대는 자연상태로 보존하고, 아랫부분의 저지대는 공원시설을 집중시키도록 되어 있다. 김재춘의 소유지가 윗부분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공원계획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지대에 집중 배치된 공원시설은 크게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 정문을 중심으로 동편으로부터 수족관, 돌고래쇼장 등을 포함한 자연동물원, 어린이왕국 등 각종 유흥시설, 스키장, 18홀 골프장이 배치되는 것이었다.

셋째, 중턱보다 약간 높은 곳에 해발 377m의 옥녀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이 일대를 산정공원이라 하여 전망대를 만들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1974년 김재춘에 의해 작성된 이 계획의 특징은 과도하게 많은 시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범주거단지를 비롯해 호텔, 방갈로, 유스호스텔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과천저수지 주변에는 낚시터, 양어장, 스케이트장, 보트장이 계획되었는가 하면, 그



삼림욕장 전경

옆에는 자유의 광장, 역사관, 수정궁 등이 있었으니 매우 혼란스럽고 과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1976년 서울시는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당시 계획을 작성한 팀은 도시계획 전공교수들인 박병주, 나상기, 강건희가 이끌고 있었다. 이들이 내건 슬로건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청소년들에게는 슬기와 투철한 국가관의 확립을! 어른과 노인에게는 추억과 희망을!”이었다. 막제1·2리 163만 5,000평을 구획하여 대단위 종합공원 건설 기본구상을 세웠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식물원지구 : 막제2리 7만 5,000평에 동·식물원을 건설하고 창경원의 동물과 식물을 이전한다.
- 종합레저시설지구 : 막제1리 30만 평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첨단 유흥시설과 골프장, 수영장 등 각종 레포츠시설을 배치한다.
- 호수와 주변지구 : 7만 2,000평의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잔디, 나무, 돌로 조경하여 레저시설과 비교되게 정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청소년문화지구 : 막제1, 2리의 중간 계곡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 야영장, 반공관, 유스호스텔 등을 배치한다.
- 주차장지구 : 저수지 댐 하측 6만 평에 3,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다.

- 자연녹지지역 : 위 시설지역 이외의 임야는 그대로 보존한다.
- 그 외에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고, 전망탑(현 국립현대미술관 자리)을 세우며, 막계2리 수종폭포 하측에 대운동장과 그 남사면에 잔디스키장을 배치한다.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서울시는 국내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에 그 나라의 대표적인 공원, 동·식물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실제 홍익대 계획팀에 제공되었다. 1977년 1월 5일 연두시찰차 서울시청을 방문한 박 대통령에게 이 기본구상이 보고되었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지와 기본방향이 확정되었다.

1977년 3월 서울시는 건축, 조경, 동물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대공원 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조완규 생물학교수, 임경빈 임학교수, 최상철 도시계획학교수, 유병림 조경학교수 등 학계 인사와 창경원 동물부장 오창영,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오휘영, 건축가 김수근, 이화여대 배만실 의장디자인교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두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0여 명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홍익대 계획팀의 구상과 진척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원의 성격은 동·식물원을 중심으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첨단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 종합공원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동물원은 막계2리 7만 5,000평으로 전체 계획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배치된 것이었다.

서울대공원에 편입되어 없어진 막계동의 가옥과 도 '창경원을 옮기고 시설을 좀 더 근대화' 하는 정도였다. 김재춘의 계획과 같이 레저시설이 주(主)가 되고 동물원은 부(副)가 되어 구색을 맞추는 것에 불과했다. 계획팀과 서울시 부시장, 녹지국장 등 간부들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은 1977년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 관계자들의 세계 동물원 방문을 통해서였다. 세계 동물원 시찰은 구자춘 시장을 비롯하여 녹지국장 이동춘, 공원과장 피상진, 홍익대 계획팀 박병주, 나상기, 강건희, 창경원 동물부장 오창영까지 7명이 함께했다. 일행은

한 달 일정으로 미주, 유럽, 동남아, 일본 등 4개 지역의 선진 동물원을 견학하였다. 이들이 시찰을 통해 본 것은 세계 유명 동물원들도 역사가 오래된 곳은 모두 협소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새로 조성된 동물원은 하나같이 넓은 부지에 방사(放飼)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도쿄 다마동물원이 14만 평, 홍콩 오션파크가 22만 평, 인도 델리동물원이 29만 평, 뉴욕 동물원협회가 30만 9,000평, 샌디에이고동물원은 12만 평에다가 221만 평의 야생동물공원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의 7만 5,000평은 새로 건립되는 동물원치고 너무 협소한 것이었다.

1977년 여름의 시찰을 통해 세계 동물원의 흐름을 파악한 것과 더불어 박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동물원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은 평양동물원의 규모였다. 평양동물원이 80만 1,000평에 340종 1만 1,159수 규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울대공원은 동물원이 주가 되고 레저시설이 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게 되었다.

시찰단의 세계 동물원 견학 후 바로 막계2리의 7만 5,000평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 1978년 2월 남서울대공원 동물원 배치계획도가 완성되었다. 수용 목표는 280종 2,000수로 창경원 수용 한도인 150종 900수에 130종 1,100수를 더한 것이다. 이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를 주축으로 계통분류학적, 일부 생태학적 연계성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막계2리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동물원 부지로는 협소하였다.

1978년 봄, 서울대공원 계획은 울산엔지니어링의 용역으로 구체화되어 기본 계획과 설계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4월 울산은 샌디에이고야생동물원장 돌랜 박사를 자문역으로 초빙하였다. 현장을 돌아본 돌랜 박사는 “다만 기왕에 300종 규모의 현대식 동물원을 계획한다면 막계2리의 7만 5,000평으로서는 좁은 느낌이다. 1리라면 적합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 말에 이전부터의 목적으로 동물원 계획을 추진하던 오창영은 매우 고무되었던 것으로 회고하였다. 그는 세계 유명 동물원의 현황을 일람표로 만들어 우리 계획과 비교하면서 막계1리로의 부지변경을 건의하는 한편, 자문위원들에게 시장을 설득해 줄 것을 다방면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1978년 6월 1일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가 발족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 김진욱 소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계획변경 지시를 받게 된다. “동물원 부지를

막계1리로 변경하여 평양동물원보다 크게, 국제수준급이 되도록 계획하라.”라는 지시였다. 녹지과장 김의재와 오창영 등이 자료를 만들어 자문위원들과 오창영 비서관을 설득한 노력이 주요했던 것이다.

기본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7만 5,000평의 동물원 규모를 확대하여 평양동물원보다 큰 국제적 수준의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계2리의 계획부지는 부적합했다. 막계1리는 면적이 87만 8,500평으로써 국제적 규모로도 손색이 없었다. 남서로 응봉의 지맥과 동으로 망경봉 8부 능선, 북으로는 망경봉에서 서쪽으로 내린 현 청소년수련장의 남측지맥을 한 선으로 연결하면 저수지 우상부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중심부가 오목하여 동물사육에 매우 아늑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 또한 막계1리는 청정한 산림으로 오염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에 따라 동물 번식을 위한 전용격리장시설과 초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고 야조(野鳥)유치를 위해서도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수용할 동·식물의 종류 또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당시에는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였지만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넓혀갈 계획을 세웠다.

1978년 6월 1일, 대공원 건설을 전담할 기구로 만들어진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에 소장으로 김진옥 부이사관, 관리과장에 전만진 서기관, 공사과장에 최주하 토목기정이 임명되었다. 공원과 오창영 수의관도 파견되었다. 사업소의 역할은 건설에 관한 일체의 행정관리와 기획 및 공사의 지도 감독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용역업체로서 대공원 계획에 참여하던 울산엔지니어링도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사의 엔지니어들을 비롯하여 미국의 PRC(Planning Research Cooperation) 기술자 11명을 거액을 들여 영입하여 한국PRC(KPRC)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했다. 울산은 당시 중동 건설사업에 진출하여 급부상한 신흥재벌이었다. 1977년 설립된 울산엔지니어링은 울산건설의 방계회사로서 젊은 총수인 신선호가 사장을 겸하고 조경분야에 조예가 깊은 민경현이 수석부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렇게 새롭게 정비된 대공원사업팀은 동물원이 중심이 된 대공원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해 10월 KPRC에 의해 「서울대공원 기본계획·기본설계」라는 용역 보고서가 납품되었고 이 계획은 현 서울대공원 건설의 기본 모

서울대공원 동물 규모

합계		670종	7,504+곤충
제1단계	계	350종	3,054수
	포 유 류	125종	821수
	조 류	190종	2,005수
	파 충 류	35종	228수
제2단계	계	320정	4,450수
	양 서 류	40종	200수
	어 류	250종	4,000수
	무척추류	30종	250수

출전 : 오창영, 『한국동물원80년사』, 서울특별시, 1994, 134쪽

형이 되었다.

사업팀의 진용이 갖춰진 후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동물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문제였다.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동물을 어떠한 의도로 전시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하에 동물사를 배치하며 각각의 동물사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는 모두 기본방침에서 출발해야 했다. 사업팀은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 외국사례를 연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방향을 잡아 갔다.

사업팀이 외국사례와 설문을 통해 세울 수 있었던 기본방향은 ‘방사식으로 동물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넓고 자유로운 동물원’이었다. 세계 유명 동물원의 최근 경향이었고, 시민들의 바람도 그랬던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현대 동물원의 기본기능인 4가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첫째, 건전한 위락과 휴식의 장소, 둘째, 사회교육의 한 분야, 셋째, 전문학술의 연구기관, 넷째, 자연보호의 시범장으로서의 동물공원이다.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서울대공원은 국민 레저 수요의 급증 현상하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레저, 교육, 연구, 자연보호 순으로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겠다.

동물원의 기본규모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670종 7,504수를 수용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동물원은 대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갖추고, 간혹 곤충류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18세기부터 꾸준히 발달하여

다양한 수종과 지식·기술을 축적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창경원이 그 시작인데 그나마 우리 손으로 운영된 기간은 50년이 조금 넘는 정도여서 동물 보유 현황과 축적된 관리지식이란 것이 매우 보잘 것 없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670종의 규모는 다소 무리한 모험이라 할 수 있었다.

설계기준 인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KPRC의 경제분석팀은 서울대공원의 설계기준을 약 15~20만 명으로 잡았다. 동물원을 비롯하여 위락시설, 청소년 문화시설과 기타시설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을 15~20만 명으로 가정하였고, 그중 동물원의 이용률을 40~50% 수준으로 보고 6~10만 명으로 설계기준을 세웠다. 동물원의 시설면적 총 30여 만 평 중 보행가능면적을 50%로 잡으면 16만 5,000평이 되는데 이는 1명당 1.5평 꼴이다.

나. 건설공사와 개원

1978년 10월 30일에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기공식에는 국무총리 최규하, 서울시장 구자춘 외 서울시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 시공은 163만 5,000평을 크게 3개의 공구로 나누어 각 사업자에게 맡겨졌다.

- 제1공구 : 관문리 기점 주·부진입로, 주차장, 저수지 주변, 관리사무소와 관사 지역, 위락시설지역, 주변전소, 하수처리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지역
- 담당 사업자 : (주)한양건설
- 제2공구 : 동·식물원지구
- 담당 사업자 : (주)삼환기업
- 제3공구 : 문원리 이주단지
- 담당 사업자 : (주)삼호주택(절차상 9월 30일 조기 착공)

이날 기공식으로 시작된 기반공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용 : 동·식물원지구 기반시설
공원 내 도로시설

공동구 설치(상·하수도, 전기, 통신, 냉·난방, 기타시설)

- 규모 : 둘-B=8~30m, L=5,920m
하천 정비-L=952m
도로구조물-23개소, L=614m
공동구-2.3×2.2m, L=4,430m
호수변 정비(호안옹벽) H=2~4m, L=1,242m
- 공사비 : 22억 8,700만 원
제1지구 : 8억 4,700만 원
제2지구 : 14억 원
- 공사기간 : 1978. 10. 30~1979. 6. 30

또한 이날 발표된 대공원의 건설공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업 개요〉

- 위치 :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문원리
- 시설면적 : 163만 5,000평
- 사업비 : 985억 원(시비 485+민자 500)
- 시행기간 : 1977~1986년
- 기본계획, 기본설계 : 1977~1978. 9
- 실시설계 : 1979년~공사와 병행
- 1단계 개원 : 1982년 동물원
- 2단계 개원 : 1986년까지 식물원, 수족관, 자연사박물관, 청소년문화시설, 놀이시설 등 연차적 개원

〈주요 시설〉

- 동·식물원 : 87만 5,000평
동물원 :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류 등 총 670종-7,500수
식물원 : 온실과 향토 수목원
- 청소년시설 : 청소년회관, 캠프장, 각종 청소년 교육시설
- 문화시설 : 자연사박물관, 민족박물관, 승공관, 야외음악당

- 놀이시설 : 돌고래쇼장, 잔디휴식장, 전망탑, 민속놀이시설, 회전관람차 등
30여 종
- 운동시설 : 잔디스키장, 수영장, 테니스장, 스케이트장
- 교통시설 : 주차장, 모노레일, 무궤도열차, 케이블카
- 관리시설 : 종합관리실, 변전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산업기반시설이 아닌 공원에 985억 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모험이었다. 초기의 이 계획은 이후 몇 번의 수정을 거쳤다. 여의도 63빌딩 수족관 설치가 구체화되면서 대공원의 수족관 건설은 유보 후 취소되었으며(당시 박영수 시장 지시로 수족관 계획이 취소되고 곤충관 등 6동 시설 추가됨), 또한 모노레일, 무궤도열차, 케이블카, 전망탑 등의 계획도 취소되었다. 그러나 물가상승, 공사비 현실화와 몇몇 시설의 추가를 이유로 초기 계획 투자금액이었던 985억 원이 시비 317억 원이 증가된 총 1,317억 원이 되었다.

기초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실시설계가 발맞추어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행하던 KPRC의 모체인 울산그룹이 1979년 4월에 도산한다. 무리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도산에 이른 것이었다. 의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당연히 실시설계도 맡으리라 예상되었던 KPRC의 해체로 서울시와 대공원 사업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토목공사가 시작된 마당에 실시설계에 빨리 착수해야 했으므로 사업소는 당시 중동지역과 국내에서 좋은 실적을 쌓고 있는 대림엔지니어링(DEC)과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DEC도 동물원과 같은 특수 설계가 낯설기는 초기 KPRC와 마찬가지였다. 결국 KPRC에서 핵심실무를 담당했던 주요 인력들이 대거 DEC로 스카우트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업소의 오창영에 따르면 스카우트라기보다는 대공원 건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일을 따라온 것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 사업은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업이었던 것이다.

DEC는 1982년 9월 제1단계 개원을 목표로 1지구 놀이시설을 제외한 기반시

설과 동물사 75동 중 58동과 관리시설 대부분을 1979년 초부터 1982년 초까지 3년에 걸쳐 실시설계를 담당하였다. 대형 프로젝트였지만 워낙 촉박한 일정 때문에 하나하나 설계와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수정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다. DEC의 제1단계 설계가 끝난 뒤, 1982년 4월 취임한 김성배 시장은 계속 나머지 17동의 동물사를 건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설계는 김수근의 공간(SGK)에 맡겨졌다. 애당초 계획된 1983년 9월의 개장까지는 고작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17개 동의 설계와 완공은 매우 벅찬 일정이었다. 결국 1983년 10월 새로 부임한 염보현 시장은 계획을 수정하여 1984년 개원을 지시하였다.

1978년 기공식 이후 1979년 상반기 동안 사업은 매우 숨 가쁜 일정이었지만 공사현장은 활기에 차 있었다. 1979년 4월 23일 막계리 현장사무소가 완성되어, 태평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 있던 대공원건설사업소가 현장으로 이전했다. 제1공구(주)한양건설과 제2공구(주)삼환기업 현장사무소도 활력이 넘쳤다. 서울에서도 건설부지의 보상과 이주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제2차 석유파동은 이란이 자국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석유생산을 대폭 감축, 수출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미 1978년 12월부터 예측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배럴당 10달러를 조금 넘어 안정화되었던 원유가격이 1979년 들어서자마자 배럴당 20달러로 치솟았고, 현물시장에서는 배럴당 40달러에 거래되었다.

전세계가 경제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 물론 중화학공업에 치중했던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1979년 4월 17일 급기야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이 발표되고 “물가안정 등 당면 경제대책으로 재정긴축을 강행, 불필요한 정부공사의 집행을 보류 또는 연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79년 3월 7일 석유가격 10%, 전기료 12%가 인상된 데 이어, 1979년 6월 10일에는 석유가격 59%, 전기료 35%가 인상되었다. 거리의 네온사인이 꺼졌고, 가로등의 2/3가 꺼졌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했고,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 국내 사정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 들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났고, 전국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80년 5월 18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에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로 개편되어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상임위원장에 취임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60년대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해 왔던 한국경제는 1980년에는 마이너스 4.8%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가재정은 물론 서울시의 재정 또한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공원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경제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더 이상 투자가 어려워지자 급기야 “현재 계획된 시설이 너무 크고 호화로우니 동물원시설 전체를 창경원 동물의 이전 수용에 적합한 규모로 축소하여 조기에 개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서울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동물원 건설을 위한 820억 원 조달은 불가능하니 지금 시공 중인 동물사와 꼭 필요한 동물사 등 42동만을 지어 창경원 동물을 이전 수용함으로써 1982년 9월에 1단계 개원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건설사업소 측은 공사 중단이 가져올 큰 피해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서울시 기획·예산팀을 설득해 나갔다. 그동안의 공사로 넓은 면의 산지를 절개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토사유실로 현장 훼손과 홍안농조 저수지 매몰 가능성이 있어 70만 평 농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추진되어 온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이 그 명분을 잃게 된다는 것, 현장보존 공사와 원상복구 공사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완강했다. 그만큼 국내 사정이 어려웠던 것이었다. 사업소는 의욕상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은 1980년 8월 27일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10월 30일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경제여건이 어렵더라도 경기장과 지하철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대공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역점사업에서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1980년 9월 2일 서울시장으로 임명된 박영수는 부임한지 10여 일이 지난 9월 15일에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후 박영수 시장은 1981년도 사업과 예산개요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공원 예산은 다른 예산 다 짜고 별도로 검토하자.”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의 건설과 개원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침체일로를 걷던 대공원건설사업에 일대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다. 12월 4일 서울시 예산 중 대공원 시설비 30억 원이 확정되었고, 공사는 중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제2차 석유파동과 어수선한 국내 사정 속에 1980~1981년 사이, 대공원건설사업은 대공원이 되느냐 소공원이 되느냐 하는 몇 번의 계획수정을 반복해야만 했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공원 계획이 축소되지 않고 다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박영수 시장의 용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1년 12월 4일 박영수 시장은 1982년도 예산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공원건설예산이 120억 원 신청된 것을 예산팀의 일방적 축소조정에 의해 40억 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금년에도 30억, 내년에도 40억 원이면 도대체 서울대공원은 언제 개원할 작정이냐.”며 힐책하고 재조정을 지시했다. 결국 그날 밤 대공원의 시설비 예산은 9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대공원 건설이 기사화생하는 순간이었다.

1983년에는 경제상황이 많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이른바 3저 현상으로 한국경제는 다시 비약적 성장을 시작했고, 서울시의 재정도 그만큼 숨통이 트였다. 1983년 대공원시설예산은 162억 원으로 늘었고, 개원준비예산도 60억 원이나 되었다.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었으나 1~2년 동안 연기, 중단된 공사가 많아서 1983년 연내 개원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대공원 개원은 1984년 5월 1일로 연기되었다.

대공원 제1차 개원이 가까워오기 시작하자 수용해야 할 동물 확보가 핵심 관건이었다. 당초 동물 수용규모가 670종 7,504수였으나, 중간에 63빌딩 수족관 계획에 의해 어류가 대공원 계획에서 제외되어 1단계 350종 3,000수(최종 431종 4,601수)로 목표가 조정되었다. 하지만 창경원에서 이전해 올 동물은 고작 130종 800수 내외였으니 수입해야 할 동물 규모가 상당하였다. 1982년 9월 제1차 동물수입예산은 30억 원으로 183종 1,034수가 조달청 대행으로 국제 경쟁입찰에 붙여졌다.

1983년 10월 8일부터 우선 작은 동물들부터 창경원에서 대공원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이후 1984년 5월 3일까지 모든 동물이 이전 수용되었다. 식물의 경우 창경원의 온실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외국산 아열대, 열대식물 77종 2,184수만이 인수되어 1985년 5월 1일 대공원 식물온실 개원에 맞춰 옮겨졌다.

주무부서인 문화재관리국은 대부분 동·식물을 무상으로 서울시에 인수 인계

하였다. 조류와 파충류 일부 등 약 46종 400수만을 구입하였고, 기타 국내 각처로부터 기증도 잇따랐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사자 2두, 호랑이 암컷 2두 등 14종 98수, 용인자연농원이 사불상 1쌍, 대구 달성공원이 재규어, 늑대 등 7종 47수를 기증했다. 그 외 한국마사회, 가축위생연구소 등에서도 동물들을 기증했다.

1981년부터 사업소는 해외 유명 동물원의 잉여 동물 정보를 수집했고, 동물 무역상사를 통해 국제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1982년 가을부터 1983년 말까지 발주가 이루어졌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1983년부터 개원 이전까지 선적이 이루어졌다. 동물 수입은 생명체의 특성상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다. 검수를 위해 사업소의 직원들이 현지에 파견되었다. 1983년 6월 제1차 검수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1983년 9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날아온 치타 5두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280여 종 1,780수에 달하는 동물들이 항공, 해상, 육로로 대공원까지 운송되었다.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1978년 10월 30일 기공한 이래 5년 6개월이 걸려 1984년 5월 1일 드디어 서울대공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그날 제1단계 개원식이 거행된 대공원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 유병현 부총리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1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당시 교통편은 서울버스 7개 노선과 경기버스 10개 노선, 휴일이나 성수기에만 운행되는 순환버스가 고작이었으니, 당일 방문 인원이 100만 명이란 것은 그간 국민적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케 한다. 대공원은 오전 개원식이 끝나고 오후 1시부터 무료로 개방되었다. 지하철 서초역에서 출발하여 대공원 주차장까지 이르는 10km 단축마라톤, 씨름, 그네타기 등 각종 행사와 함께 밤 10시 20분까지 축하쇼가 열려 청계산 자락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다. 추가시설과 서울랜드 건설

1984년 5월 개원까지 투입된 총사업비 중 서울시 예산은 936억 원이었다. 1978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985억 원 중 시비는 485억 원이었었는데, 451

억 원이 초과한 것이었다.

1단계 개원 시점 또한 2년이 늦어진 상태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984년 5월 개원까지 완공되었어야 할 시설 중 미처 완성하지 못한 주요 시설은 남아메리카관, 열대조류관, 식물원대온실, 곤충관 등이었다. 결국 이 시설들은 개원 후 1년이 지나서야 준공할 수 있었다. 남아메리카관과 열대조류관이 1985년 4월, 식물원대온실이 1985년 5월, 곤충관이 1985년 9월에 준공·개관했다. 이상의 1단계 후속사업에 이어 1994년까지 매년 예산사업으로 추가시설이 건설되었다. 1986년 11월 청소년수련장이 4억 원의 예산으로 준공되었다. 1994년 7월 준공·개장한 삼림욕장은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총 6.3km에 달하는 삼림욕 코스가 만들어졌다.

서울대공원 연차별 투자 현황

구분 연도	총투자누계	서울시			민간		
		누계	투자	비고	누계	투자	비고
1984	936	936	936	1997년~개월	-	-	-
1985	946	-	-	-	10	10	복돌이동산 1차
1986	1,001	972	36	재1단계 후속	29	19	복돌이동산 2차
1988	1,423.6	1,052	80	서울랜드 기반조성	371.6	341	서울랜드 1차 주차장 휴게소
1991	1,495.8	1,052	-	-	443.8	17.2 73	리프트 1호선 서울랜드 2차
1993	1,527	1,052	-	-	475	14.7 16.5	리프트 2호선 서울랜드 3차

또한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공원 종합안내소도 추가적으로 건설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취지에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자리에 건설하기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 창경원 소장자료 일체를 국립과학관으로 이관해 줌으로써 자연사박물관은 실행이 어려워졌다. 문화공보부가 그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설할 예정이었기에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동·식물원에는 자연적으로 동·식물 표본이 발생하여 대공원 또한 이를 활용한 표본전시관이 있어야 함은 당연할 일이었다. 그래서 동물원 입구에 동물회관을 건설키로 하였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대공원 전체 이용자를 위한 종합안내소가 정문 근처에 세워졌고 그 2, 3층에 동물 표본이 전시되었다. 이 시설은 아직까지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2단계로 진행할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민자(民資) 부문이었다.

운동시설이 주종을 이루는 북돌이동산과 주요 교통수단의 하나인 리프트, 유흥시설인 서울랜드가 그것이었다.

북돌이동산은 테니스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운동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공모에 의해 (주)한일건설이 선정되어 건설을 담당하였다. 이 시설은 1985년과 1986년 두 차례로 나누어 시에 기부채납되었고, 2001년과 2002년에 사업자에게 무상 운영권이 주어졌다. 1978년 계획에는 공원 내 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과 리프트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노레일의 경우 동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와 효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사실상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 결국 1990년 9월에 리프트 노선이 확정되어 1991년부터 건설되었다. 1차로 국립현대미술관 입구까지 설치되었고, 2차로 늑대사 뒤까지 연장되었다. 사업자는 (주)동일삭도였다.

민자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문은 서울랜드였다. 시민 위락수요 충족을 위해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위락처를 제공한다는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공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서울랜드 건설을 위해 대공원 기공 후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어 왔다. 결국 (주)대림산업이 선정되어 1984년 1월 24일 기공식을 가졌다. (주)대림산업은 5월 동물원 개원에 발맞추어 서둘러 무궤도열차(코끼리열차)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기공한 지 4개월만인 5월 코끼리열차 운행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주사업을 돌연 포기하였다. 사업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1985년 8월 22일 (주)한일건설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한일건설은 해당 사업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주)한덕개발을 설립하였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2004년까지 16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해 주고, 이후 협의에 의해 유상사용기간을 정하기로 하였다. 1986년 6월 3일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가 내려졌고, 6월 18일 착공에 들어갔다. 9월에는 코끼리열차

를 인수하여 별도 부서를 두어 운영토록 하였다. 서울랜드 건설에 시비 80억 원, 민간자본 347억 원이 투자되었고, 1988년 5월 11일에 준공·개원했다.

1984년 5월 1단계 개장 이후 연말까지 약 5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1985~1987년에 연간 300만 명대, 1988~1990년에 연간 400만 명대, 1991~1993년에 연간 500만 명대 관람객이 찾아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1994년에는 7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하철 노선의 연결이 한몫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관람객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원 개장 이후 체계적인 증설 투자와 이용 프로그램의 확충 미비로 인해 재방문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시설에 대한 개조사업과 신규 증설 투자가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입장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시설별로는 입장료가 비싼 편인 서울랜드의 감소폭이 가장 큰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청소년수련장 등의 입장객 감소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 공원입장료의 소득탄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서울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국민의 여가환경과 수요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서울대공원은 1994년부터 도시자연공원에서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공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됨으로써 공원 발전의 기회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부응하고자 조성계획의 재수립이 요망되어 대공원관리사업소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경희대학교 부설 조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1998년 2월에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후 이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1999년까지 두 차례 수정되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발전계획 기본방향
- 청소년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학습 및 체험 강화
- 비수기 이용객 확보, 겨울철 옥외활동 계획, 4계절형으로 발전
-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적 교통체계 구상
- 경영합리화
- 신규 청소년수련시설 도입

- 투자기간 : 1998~2010년(13년)
- 총투자규모 : 1,945억 5,400만 원
- 시비 289억 5,400만 원, 국비 471억 원, 민자 1,185억 원

서울대공원 동물 규모

구분	사업	사업비	비고
단기(1998~2000)	돌고래쇼장 개선	1,286	1998년 공사시행완료
	동물진화공간	1,300	1998년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어린이놀이교오간	700	2000년 완료
	환경 개선	268	1998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완료
	휴게소 정비	450	식당과 매점 개보수 완료
	주차장 개선	500	후불징수제로 변환 자동발매소 설치(미시행)
	순환도로 수목 식재	100	벚나무 꽃길 조성 완료
중기(2001~2005)	사파리형 생태동물원	3,000	-
	노후 전시관 개보수	3,500	유인원곤, 동양곤 등 77동
	수퍼그래픽	500	건물벽 및 옹벽 수퍼그래픽 설치
	수족곤	3,000	해양관 뒤 설치
	팬더관	450	자이언트 팬더
	오가피 · 봉고관	200	제2아프리카관 남동쪽 녹지대
장기(2006~2010)	정문 조성	2,300	주민의견 수령 후 조성사업 결정
	야외식물원	1,200	온실식물원 위쪽 5만 1,000평 규모
	도로 확장	4,900	청소년수련장 대비
	주차장 신설	5,300	청소년수련장 대비 서울랜드 위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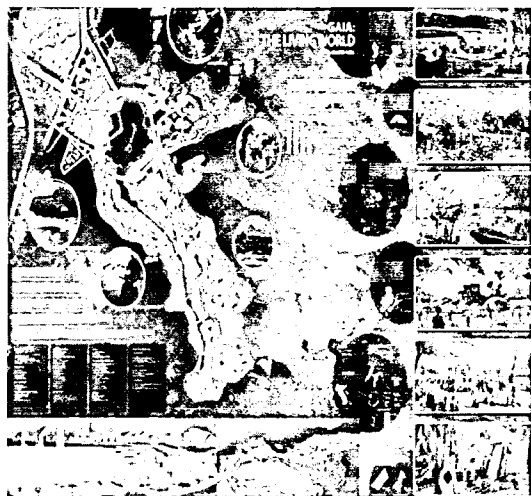
이상의 계획에서 대공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교육환경 수요 충족과 21세기형 가족복합레저공간 확충 사업이다.

라. 서울대공원의 미래

지금까지의 동물원은 단지 희귀동·식물의 전시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위락·휴식의 공간 제공이라는 목적하에 운영되었지만, 근래 세계 유명 동·식물원은 이를 넘어서서 홍보전과 동·식물을 통한 환경교육을 주된 존립목적으로 삼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200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의 종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아 종보전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대공원관리사업소는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토종야생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환경과 유사한 생태동물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생태동물원조성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위락공원으로서의 역할 외에 생태와 환경교육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복합테마단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 봉사와 기부제도는 공원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로 진화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경기도민의 여가생활을 충족시켜 주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해 갈 것이다.



서울대공원 세계적 테마파크로 탈바꿈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09-12-28 12:01 최종수정 2009-12-28 12:05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초원·빙하시대 등 5세대 주제공원으로 변신, 2020년 완공]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이 디즈니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뛰어넘는 세계적 테마파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을 위한 국제 현상공모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등 5개 업체가 함께 참여한 'GAIA : The Living world'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2020년까지 세계 최초의 '5세대 주제공원'으로 변신한다.

조성될 공원은 동물원과 식물원, 테마파크(서울랜드)를 하나로 묶어 △대초원 △빙하시대 △열대우림 등 계절별 구역과 △공공의 장 △한국의 숲 △우림지 마을 등 주제가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청계산 산자락에 들어설 대초원은 동아시아의 온

대 사바나 지역과 아프리카의 열대사바나 동물을 볼 수 있는 동물원이 들어선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사파리체험이 가능하다.

빙하시대 공간은 냉대·한대 서식지 동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빙벽등반 체험장과 눈썰매장이 있는 눈의 광장, 극지방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남극 영상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열대우림 공간에서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 열대우림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숲과 우듬지마을이 들어서며 잔디광장과 각종 스포츠시설이 설치될 공공의 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시설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카이 리프트 등 다양한 이동수단도 도입된다.

재조성 사업은 3단계에 걸친 순차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2015년과 201년 1·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마지막 3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은 1979년 착공해 1984년 5월 동물원, 1988년 5월 서울랜드가 각각 문을 열었다. 전체 916만 3,000㎡ 규모로 동물원·식물원·서울랜드·호수지구·주차장 등 주요시설 부지 195만 5,000㎡과 미개발부지 720만 8,000㎡로 구성돼 있고, 인근 시설로 현대미술관·국립과천과학관·경마공원이 있다.

서울대공원 놀이+생태체험 공간 탈바꿈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12-28 11:17 최종수정 2009-12-28 12:25

오픈트릭 타고 사파리...열대우림 탐험도

주차장 등 편의·휴식공간 대폭 확충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놀이기구를 즐기

는 동시에 전 세계 다양한 생태 환경과 그곳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다.”

28일 베일을 벗은 서울대공원 재조성 사업의 청사진은 서울대공원을 기존 동물원과 식물원, 테마공원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용객들은 오픈 트럭을 타고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을 사파리할 수 있고, 보트에 몸을 싣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열대 우림을 탐험할 수도 있다.

◇ 전 세계 생태계 다 모인다 = 공원의 주 시설물은 대초원과 빙하시대, 한국의 숲, 열대우림과 대양주 등 4개 테마로 구성된 'The Living World'다. 먼저 청계산 자락에 들어서는 대초원관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와 몽골의 자연환경에서 모티브를 따 온대와 열대 사바나 지역으로 조성돼 각종 동물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오픈 트럭을 타고 총 62만 8천㎡에 이르는 아프리카 초원과 호주의 미개척지, 아시아의 목초지 등을 지나며 사파리의 스릴을 즐길 수 있고 야간에도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또 공중조망 시설인 별처 뷰(Vulture View)'를 통해 사파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동물 보존센터에서는 동물 치료, 먹이주기 등 공원 내부 활동도 체험할 수 있다. 빙하시대는 북극과 남극을 모티브로 조성된 구역으로, 이들 지역의 희귀식물과 북극곰과 펭귄 등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빙벽등반 코스 등으로 이뤄진 눈의 광장'도 조성된다.

이곳에서 겨울에는 얼음 조각 축제 등이 열리고 여름에는 실내 전시공간과 함께 실내 아이스링크도 운영된다.

한국의 숲은 한국의 전통 숲 길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보호종 등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다. 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한반도에 살던 공룡의 모습도 재현되고 360도 영상 체험관에서는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열대우림관은 열대 우림지역의 신비로운 모습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시끄러운 놀이시설은 외곽에 배치되고 저소음 이동 수단이 사용된다. 관람객들은 무동력 보트나 페달 자동차를 타고 강이나 정글을 지나가며 열대 동식물을 구경할 수 있다.

열대관에 딸려 있는 대양주관에서는 다양한 해양 동물을 관람할 수 있고 돌고래와 바다사자 쇼도 볼 수 있다.

◇ 공원 이용 더 편해진다 = 서울대공원의 재단장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도 확충된다. 주차장은 계단식의 3층 데크로 구성돼 자동차 수용대수가 기존 5천대에서 8천 600대로 많이 늘어난다.

또 지하철 입구와 주차장을 거쳐 들어오는 공원의 입구부는 사계절 정원으로 꾸며지고 상단부는 '서울의 거리'로 조성돼 한국의 대중문화와 쇼핑,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된다. 호수공원도 청계저수지 주변은 넓은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정원 등이 들어서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공원에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설물도 함께 들어선다.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는 도시농장(12만㎡)은 공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등을 퇴비로 사용해 채소를 기르고, 이를 다시 공원의 음식재료나 동물 사료로 공급하는 친환경 농장이다.

또 내부 계곡으로 흘러들어오는 빗물은 저수지에 모여져 동물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폐수는 특수 공법으로 재처리돼 연못이나 생태습지 등으로 보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원을 생태 체험과 놀이문화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

2) 서울경마공원

(1) 건립 배경

가. 경마와 경마장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경마의 효시는 1898년 개최된 학생들의 나귀경주이고, 최초의 근대적인 경마대회는 조선공론사 주최로 1914년 4월 3일 용산의 구(舊) 일본군연병장에서 개최된 조선경마대회라고 할 수 있다. 1914년 5월에는 경성승마구락부라는 단체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마는 1922년 4월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뒤부터는 마권을 매매하는 이른바 경마라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당시의 경마는 을지로6가의 훈련원광장(현 동대문운동장)과 지금은 없어진 용산 동부이촌동의 한강백사장 등으로 옮겨가면서 개최되었다.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평양, 원산, 신의주, 군산 등지에서도 1924년부터 1928년까지 경마구락부가 인가되어 경마가 실시되었다. 이 도시에서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경마가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정식 경마장이 개장되기에 이르렀다.

신설동경마장은 1928년 9월 20일 경성경마장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되었으며, 1930년대 말까지 순조롭게 운영되었다.

이후 1933년에는 「경마령」이 공포·시행되어 비법인 경마단체는 해산되고 사단법인 조선경마협회가 발족하였고, 1941년까지 전국 9개의 법인 경마구락부에 의해 9개의 경마장이 생겼다. 이 시기는 경마장이 가장 많았던 때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경마용 말은 일본군에 징발되었고, 기수들도 징병·징용 등으로 전쟁터로 끌려 나갔다. 이후 1942년 2월에 제정된 「조선마사회령」에 의해 조선마사회가 발족하였고, 단일 경마시행단체로서 약 3년 반 동안 경마를 시행하였다. 첫해인 1942년에는 전국 경마구락부에서 인수한 9개 경마장 가운데 군산을 제외한 8개 경마장에서 경마를 시행하였으나 전시하에서 폐쇄되는 경마장이 늘어났다. 전쟁 말기에는 서

울, 부산, 대구, 평양의 경마장에서만 경마가 시행되었으며, 서울은 1945년 봄에 21일간의 춘계경마를 마지막으로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새출발한 한국마사회는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미군정청의 지원을 받아 중단 없이 경마를 시행하였다. 유일한 대중오락장인 신설동경마장은 일일 3,000~4,000명의 관람객이 입장하는 호황을 이뤘다. 그러나 경영면에서는 적자를 벗어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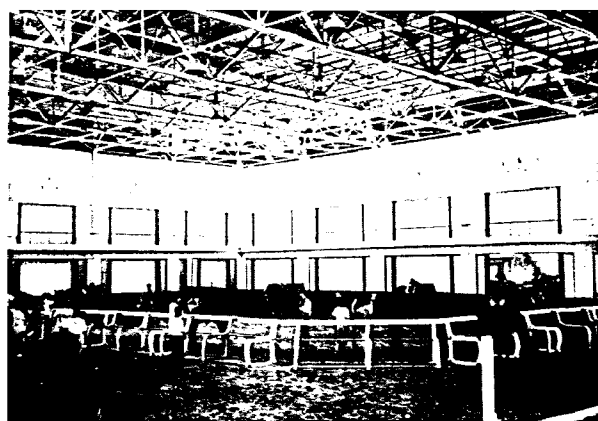


개발 당시 주암동 주변

못하고 세금미납액이 누적되어 갔으며, 광복 후 말의 국내 생산이 중단되고 수입의 길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경주마의 고갈은 해가 갈수록 경영을 압박하는 난제가 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으로 경마는 중단되고 신설동경마장도 군이 점용하게 되어 마사회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피난생활에 들어갔다. 부산, 군산의 경우는 미군기지로 점용되다가 한국전쟁 이후 주택지나 농경지로 탈바꿈되었다. 또한 부산에 피난갔던 마사회가 복귀해 보니 신설동경마장은 미군에 징발되어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쉽사리 해제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마사회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부터 마련해 놓았던 독섬에 새 경마장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제는 경비마련이었는데, 정지공사비, 가건물신축비, 각종 시설비 등이 엄청났고, 경주마 구입비, 경마 시행준비금 등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방도도 막연하였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1954년 1월에 한국상공은행에서 산업자금 200만 원을 융자 받은 데 용기를 얻어 경마장 건설에 착수하여 5월 8일에 개장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3년 11개월 만에 다시 명맥을 잇게 된 독섬시대는 경영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는 전쟁복구도 힘겨울 뿐 아니라 국민소득이 60~70달러에 불과한 때여서 경마사업은 적자경영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부산경마장(미군 점용)과 대구경마장의 매각 방침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승마교육원

경마는 1962년 「한국마사회법」이 공포되면서 민자가 유치되고, 1966년 시설투자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활기를 띠었다. 특히 1970년대 들어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경제력이 확대되어 경마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더욱이 1984년 이후에는 경마가 전산화되면서 컴퓨터시스템으로 티켓 발매와 환급을 처리하는 토탈리제이

터(Totalisator)시대로 접어들고, 장외경마장의 화면도 컬러화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한편 마사회는 1960년대 들어 「한국마사회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경영쇄신을 기도하였으나 경영압박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 없어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다가 결국은 민자유치를 결정하였다. 1966년 덕마홍업(주)의 투자로 경주마가 수입되면서 조랑말경주는 개량마경주로 바뀌고 시설이 한결 개선되면서 경마사업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1965년까지 일일 평균 890명 이하에 머물렀던 입장 인원은 1966년부터 1,000명을 돌파하였고,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246%, 일일 평균 매출은 무려 365%의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1972년에 와서 마사회는 과감히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민자시설과 마필인수를 단행하여 단일경영체제를 확립하였다. 동시에 연중무휴 전천후경마로 전환하여 연간 최고 158일까지 경마를 시행하는 등 매출신장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병행하였다. 이 때문에 일일 평균 입장인원은 2,500~3,400명 선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신장하여 1972년에 당기순이익 1억 4,000만 원을 내면서 실로 오랜만에 적자경영을 흑자로 전환시켰다. 동시에 이때부터 고리 사채를 정리하고 모두 은행채로 대체하는 등 경영개선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6년에는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마사회 발족 이래 처음으로 빚 없는 마사회가 되었다.

나. 과천 이전 배경

1979년의 10·26사건과 12·12군사쿠데타에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정치적 격변을 거쳐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980년 9월에 마사회는 설립 이래 최초, 최대 규모의 국제경마대회인 제15회 아시아경마회의(ARC)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1980년대를 힘차게 열었다.

1977년부터 마사회는 ARC 서울대회를 앞두고 1관람대(A관)의 증축을 비롯 마필보건소, 종사원아파트의 건립, 시행기기의 현대화 등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1980년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종마목장 후보지를 연천으로 최종 결정하여 4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등 마지막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ARC 서울대회는 1980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당시 회원국 13개국 중 터키를 제외한 12개국 대표 407명, 미국과 바레인 대표 4명이 업저버로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대회행사는 워커힐·롯데호텔, 독섬경마장 등에서 개회식, 분과위원회 토의, 국제기수 초청경마, 폐회식 순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국제기수 초청경마가 있었던 9월 14일 독섬경마장은 개장 이래 기록인 입장인원 2만 4,000여 명, 매출 2억 원을 돌파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런 ARC의 잔치분위기는 연간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1979년에 191억 원이던 매출이 1980년에 257억 원으로 뛰어올라 ARC 서울대회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자타가 평가하였다.

1960년대까지도 독섬경마장 측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 불편 등 열악한 여건으로 경마사업에 지장이 많다고 푸념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대에 따라 경마사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일일 입장인원 2,000명 선에 이르자 갑자기 경마장은 포화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도시팽창 추세도 어느새 경마장 주위에까지 영향을 미쳐 각종 문제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8만 6,000여 평에 불과한 좁은 공간은 마사회 발전에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었다. 마사회는 1979년 중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경마장의 강남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계획에 그쳤다.

1980년대에 들어와 수용력이 드디어 한계점에 이르러 경마장 이전의 필요성

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88서울올림픽의 개최 결정과 함께 올림픽시설의 사후 활용방안과 연계된 승마경기장의 건설은 마사회로서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좋은 기회였다. 88서울올림픽 유치활동은 1979년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내에 전문위원실을 설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시작되었다. KOC는 1979년 3월에 제24회 올림픽 서울유치 건의안을 문교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문교부는 서울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경기장과 숙박시설, 운송수단을 비롯하여 대회 유치에 따른 득실 및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KOC에 요구하는 한편,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는 1979년 9월 3일 서면결의로 제24회 올림픽 서울 유치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21일에는 대통령이 재가를 하였다.

1981년 2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 제24회 올림픽 유치신청서를 정식 제출하였고, 유치 경쟁도시는 최종적으로 서울과 일본 나고야로 압축되었다. 유치 경쟁에서 처음에는 나고야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었으나,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제84차 IOC 총회를 3주일 앞두고 구성된 유치대표단의 헌신적인 노력과 올림픽 전시관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으로 나고야에게 현저하게 뒤쳐져 있던 분위기를 만회할 수 있었다. 결국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에서 나고야를 52 대 27로 압도적으로 누르고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전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인 선언에 현지 대표단은 물론, 자정이 넘어 TV실황중계를 지켜보던 전 국민도 이 엄청난 차이의 승리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덴바덴 현지의 기자회견장은 만세와 환호성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태극기가 물결쳤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16번째로 올림픽경기대회 개최국이 되었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일정이었다. 올림픽 유치 후 올림픽 승마경기를 위한 경기장 건설이 필연적인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국제수준의 새 경마장을 과천에 건설하게 되었고, 마침내 과천경마장 시대를 열게 되었다. 과천 올림픽승마경기장 건설사업은 마사회가 숙원을 풀고 한국 경마를 새로운 도약대로 올려놓은 1980년대 최대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2) 건립 과정

가. 입지 선정

경마장이 과천에 자리잡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쳤다.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고 86아시안게임의 유치 교섭이 한창이던 1981년 11월에 올림픽 지원계획을 제출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마사회는 승마경기 분야에 대한 지원계획을 제출하였다. 마사회가 최초로 제출한 계획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7년간 경마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하여 연간 약 46억 원씩 총 322억 원을 적립, 올림픽승마경기시설을 지원한다는 단순한 계획이었다. 그후 1982년 2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요청으로 마사회가 다시 올림픽 지원계획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경마 관련 시설과 연계된 승마경기장 건설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2차 지원계획에서도 과천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 강남 일대와 경기도 광주시 서부면 일대, 또는 서울대공원 근처 등지에 30만 평 안팎의 토지를 확보하여 올림픽승마경기장을 건설하고, 올림픽 후에는 제2경마장 또는 조교장으로 활용하며, 건설재원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6년간 마권세 전액 면제로 조달한다는 안이었다. 마사회의 안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으며 그후 조직위의 권유에 따라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를 집중적으로 답사하게 되었다.

조직위는 각 종목별 경기장의 건설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승마경기장은 과천 서울대공원 인접지에 민자로 건설한다는 기본지침을 세워두고, 먼저 대한경마협회에 이를 제시하였으며 뒤이어 마사회에도 구체적인 시설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사회는 이 권유에 따라 서울대공원과 인접한 당시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주암리, 하리 일대와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갈현리 일대, 그리고 지구력경기코스 후보지로서 양재천 주변 등지를 조직위 또는 승마협회 관계자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면밀히 답사하였다. 그 결과 1982년 5월 과천을 후보지로 한 올림픽승마경기장 건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가 조직위에 제출하였다. 이 안은 과천면 막계리 일대에 38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승마경기장을 건설하고 올림픽 이후는 경마장과 승마장으로 활용하며, 건설비는 마권세와

법인세의 시한부 면세와, 마사회 자체자금 및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마사회가 이곳을 승마경기장과 경마장 적지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었다. 첫째,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잠실과는 불과 12km, 서울 도심과도 15km의 근거리에 있다. 둘째, 사당, 양재 방면과의 전철 연결을 비롯한 도로망의 발달로 교통이 편리해진다. 셋째, 그린벨트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과 소음공해가 없다. 넷째, 임야와 평야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광활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임야 구성비가 높고 암괴가 적은 완만한 구릉지로서 공사비가 절감되고 지역 안에 보상대상물이 적어 보상비도 적게 든다. 여섯째, 서울대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면 종합 레저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당초에는 대한승마협회 역시 조직위의 권유에 따라 서울대공원의 인접지 약 6만 평을 부지로 한 시설계획안을 작성하였다가 경기장 후보지를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팔당 지역으로 변경한 시설계획안을 마사회보다 먼저 조직위에 제출해 놓고 있었다. 승마협회는 이미 국제마술연맹(FEI) 기술자의 자문까지 거쳐 FEI의 강력한 지원하에 팔당을 경기장 후보지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승마협회는 올림픽이 끝나면 경기장 일대를 골프장으로 전용할 계획이었다.

조직위는 과천을 후보지로 한 마사회안과 팔당을 후보지로 한 승마협회안을 놓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비교, 검토하는 한편, FEI 관계자(부회장 랜스버그, 코스디자이너 볼프강)를 초청, 2차에 걸쳐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현장답사는 과천, 팔당 외에도 광명시 일대까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FEI 관계자들은 과천이 경마장으로는 적지이지만 승마경기장으로는 부적합하며, 팔당은 진입도로 확장 등의 부담이 따르기는 하나 승마경기장으로서 적지라고 승마협회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팔당은 FEI 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1,400만 주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수원보호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란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팔당은 건설부 등 관계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과천과의 비교, 검토가 계속되다가 국무총리실은 1983년 2월 25일 결국 과천을 승마경기장 건설지로, 마사회를 민자업체로 확정하였다. 과천은 종합마술 지구력경기코스로는 다소 난점이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적지라고 판단될 뿐 아니라 올림픽 이

후의 시설 활용도 제고면을 높이 평가받아서 부지로 선정되었다. 마사회안은 경마장 이전과 연계된 시설계획안이어서 독섬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할 경우 도심 인구분산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크다고 평가받았다.

이로써 과천과 팔당 사이에서 약 1년간 유치 경합을 벌여 온 올림픽승마경기장은 끝내 과천으로 낙착된 것인데, 국무총리실은 결정에 앞서 건설비 재원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독섬경마장을 서울시에 무상 양여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즉, 승마경기장 건설비 514억 원(추정)의 재원은 마권세와 법인세 감면, 자체자금, 차입금으로 마련하되 마권세 50%를 시한부 감면하는 대신 독섬경마장을 서울시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88올림픽대회 승마경기장 건설계획은 1983년 5월 13일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확정되었다.

나. 용지 매입

올림픽승마경기장의 건설담당기관이 된 마사회는 1983년 4월 15일 올림픽승마경기장 건설사업소를 발족시켜 현장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대상부지로 선정된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형성된 작은 분지로 옛부터 밤나무 등 유실수가 많고 물이 맑아 순수 우리말로는 밤나무골, 한자 지명으로는 울목(栗木), 울진(栗津), 과주(果州), 과천(果川) 등으로 불렸다. 삼국시대에 백제 땅이던 이곳이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 땅이 되면서 울목군이 된 이래 신라 때는 울진군, 고려시대에 과주, 조선시대에 과천현이 되었다가 한말에 과천군이 되었다.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 안산, 과천이 합쳐지면서 시흥군 과천면이 되었다가 정부청사 과천분산계획에 따라 1982년 과천지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6년 1월 1일 과천시로 승격하였다. 관할구역은 10개 법정동과 6개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다.

올림픽승마경기장이 자리 잡은 곳은 청계산 망경봉(618m)의 연봉인 옥녀봉(373m)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나지막한 산자락 사이사이에 깔려 있는 비산비야(非山非野) 지대이다. 청계산에서 발원한 막계천이 서울대공원을 거쳐 북쪽으로 흐르다가 관악산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양재천과 합쳐지면서 주위에 제법 질펀한 들판을 이룬 곳이 주암동이다.

남쪽은 서울대공원과 접해 있고 북쪽은 우면산과 서울시 서초구, 서북쪽으로
는 남태령에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다.

승마경기장의 부지규모는 당초 38만 평으로 인가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심사과정에서 농경지와 민간피해를 극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6만여
평이 축소 조정되어 경계측량이 끝난 1983년 12월에 매입대상 토지를 32만
1,900여 평으로 확정되었다.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와 전답이 각각 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위치는 속칭 능안말로 불리던 막계3리 대부분과 하삼포로
불리던 주암2리가 편입되었고, 가옥 50동과 주민 83세대, 분묘 677기의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은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행되었는데, 건설부고시 기
준지가에 의한 감정가격에 따라 95%는 협의 매입되었고, 가옥 3동과 일부의 토
지(4만 8,000㎡)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수용령이 적용되었다.
철거대상주민 83세대 중 가옥주 32세대는 이주단지인 문원리로 이주하고, 분동
자, 세입자 51세대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는 등 1983년 12월까지 이주대책이
순조롭게 완료되었으며 매입 보상업무도 1984년 7월에 종결되었다. 그후 올림픽
승마경기장의 부지규모는 1986년 12월 임야 10만 9,874㎡(3만 3,000평)을 추가
로 매입함으로써 총규모는 117만 4,125㎡(35만 1,800여 평)가 되었다.

다. 설계와 시공

마사회는 토지 매입과 보상업무를 경기도에 위탁하여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역사적인 올림픽승마경기장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마문화(馬文化)의 본산이 될
경마장으로서 손색없도록 청사진을 그리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마사회로
서는 승마경기장 건설이 생소한 분야여서 건설 관계자와 승마 관계자로 견학단
을 구성하여 홍콩,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지를 순회하면서 선진 승마, 선진
경마국의 경기장시설을 돌아보고 청사진을 몇 번이고 수정·보완하면서 기본계
획을 다듬어 나갔다. 한편으로는 FIE에서 추천한 승마경기장 건설전문가 헬빙
(W.J.Helbing, 독일)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에 관한 자
문을 받았다. 그의 자문은 후일 흔히 헬빙지역이라고 불린 승마장 관계 시설에

주로 반영시켰다.

기본계획이 대체로 마무리되자 이를 토대로 우선 한국종합기술개발회사가 환경영향평가와 토목공사의 기초·실시설계를 맡았다. 설계용역은 건축부문, 토목부문, 조경부문을 나뉘어 발주되었다. 토목설계에 이어 발주된 건축설계는 공사량을 크게 2등분하여 주경기장 관람대와 실내마장 외 22건으로 나누었다. 관람대의 설계는 (주)정립건축이, 실내마장 외 22건은 금성건축연구소가 담당하였으며, 조경부문을 마사회가 자체기술진으로 직접 설계하였다.

시공은 토목공사는 삼성종합건설(주), 조경공사는 동아종합환경(주)이 맡아 1984년 4월 24일 일제히 착공하였고, 5월 16일 각계 인사,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건축공사는 그후 9월에 설계가 완성되어 주경기장 관람대는 고려개발(주)이, 실내마장 외 22건과 전기통신공사는 미릉건설(주)이 담당하여 1985년 2월 8일 착공하였다.

라. 과천 서울경마장 탄생

마장마술과 장애물비월경기장으로 과천 올림픽승마경기장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으나 추후에 협의·결정하기로 한 종합마술 지구력경기코스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마사회는 경기장 일원화 방침에 따라 지구력경기장 역시 과천에 설치하기 위하여 양재천 주변과 갈현리 등 여러 곳을 답사하였으나 농경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대회 후 복구비가 많이 드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끝내 과천 이외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결국 1985년 초 경기도 고양군 원당리 서삼릉 주변을 지구력경기장 후보지로 제시하였다.

이 지역 주변은 마사회가 이미 1984년부터 11만 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종마목장 개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당 지역은 올림픽선수촌에서 50km나 떨어진 원거리에 있다는 약점이 있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지역이 넓어 코스길이(17~28km)나 소요면적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경기코스의 배치가 가능하고 용지보상비도 과천에 비하여 경감되는 이점이 있었다. FEI에서 추천한 종합마술 코스디자이너 토마스(Hugh Thomas, 영국)도 과천과 원당을 비교 답사

한 결과 원당이 적지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1985년 8월 종합마술 지구력경기코스는 결국 원당으로 확정되어 10월부터 공사가 착수되었다. 총 133만 2,300㎡(40만 평)에 A, B, C, D 4코스로 조성된 원당 종합마술 지구력경기코스는 그 후 88올림픽 승마경기를 중계한 영국 BBC방송이 한국적인 자연을 보여준 명화(名畵)라고 격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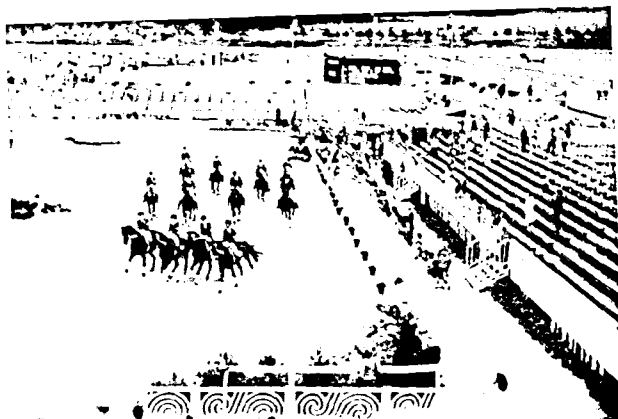
과천 올림픽승마경기장은 1984년 4월에 건축·전기통신공사와 마장(馬場)공사가 착공되고, 86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여 1986년 4월까지 대회본부(마사회 본관), 보조경기장과 관람대 및 노천스탠드 등 승마경기 관제 시설이 준공되어 아시아대회 승마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또한 주경기장과 관람대 등 나머지 시설이 1988년 7월까지 준공되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마사회는 다시 토목, 조정, 전기통신 등 최종 마무리 보강공사를 12월까지 마쳤다. 올림픽승마경기장은 총부지 116만㎡(35만 평)의 약 92%에 해당하는 106만㎡(32만 평)가 형질 변경되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신천지로 변모하였으며, 원형을 보존하는 일부 산과 산림 등의 자연경관과 인공조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게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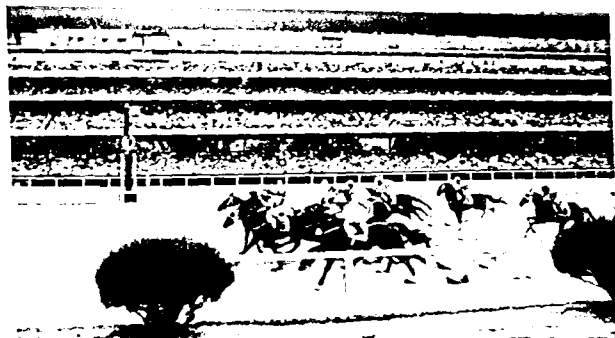
이렇게 완성된 과천 올림픽승마경기장의 건설에는 70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원당 종합마술경기장에는 약 15억 원이 투자되어 승마경기장 건설에 총 724억 원이 투입되었다. 당초 사업인가 때 책정한 예산액 514억 원보다 약 210억 원이 초과 투자되었다. 재원 마련은 마권세 50% 감면분 539억 원, 자체조달 185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과천 승마경기장은 올림픽경기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1989년 5월 경마장으로 용도 변경되었다. 그해 9월에 독섬에서 과천으로 서울경마장을 이전하였다.

과천으로 이전한 서울경마장에는 3만 명을 수용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냉난방시설을 갖춘 관람대, 1,600×25m의 내주로와 1,800×25m의 외주로, 1,638마방을 갖춘 25동의 마사(경마용 23동, 승마용 2동),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부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보조경기장(아시아대회장)과 관람대, 실내마장과 실내원형마장 및 연습마장 5면, 마필진료소와 장제소,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숙소, 일일 최대 900㎡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



올림픽 승마경기가 벌어진 과천경마장



서울경마공원 레이스 전경

장, 약 2,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2개소의 주차장, 배당률 게시대, 야간경마용 조명시설 등의 시설이 건립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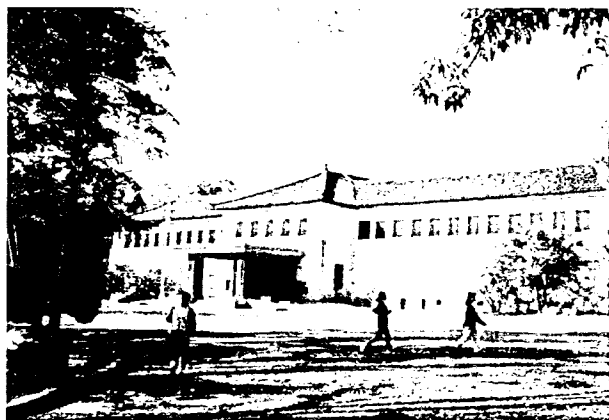
서울경마장은 1994년에 경마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경마장 내부 약 4만 평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서울경마공원으로 개칭되었다. 서울경마공원은 경마장 관련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었으며, 넓은 잔디, 산책로, 연못, 원두막, 인공폭포, 주말농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였다.

3) 국립현대미술관

(1) 건립 배경

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민들의 민족 자각이 심화되면서 미술관 문화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문화센터'가 구상되었고 1965년에는 「종합박물관건축계획안」이 제출되었다. 마침내 1966년에 경복궁



경북궁 국립현대미술관(1970년대 초)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198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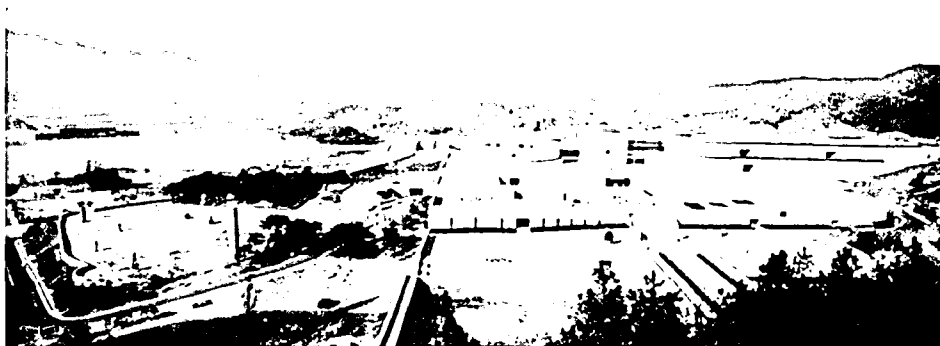
안에서 기공식이 열렸고, 1969년 8월 대통령령 제4030호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직제를 제정하였고, 10월 20일에 현대 미술작품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기능을 가진 미술관으로 개관하였다.

서구의 경우, 미술관 설립은 18~19세기 계몽주의적 합리성, 시민혁명을 통한 정치적 민주제도의 실현,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이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4·19혁명에서 비롯된 민족적 정체성의 확인 작업과 5·16군사쿠데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및 근대화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세워진 최초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설립 취지는 근·현대 한국 미술과 국제 미술의 흐름을 대표하는 미술작품과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그것을 연구, 전시, 교육하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기틀을 세우고 이것을 진흥시키는 것이었다.

경북궁 시기(1969~1973)는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첫 시기로 직제 구성에 있어 미술 분야 전공자가 아닌 소수의 일반행정전문가 8명이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 주체였고, 그들의 가장 큰 역할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의 운영과 전시업무에 불과하였다. 기구는 관장 아래 사무장이 있고, 그 아래 서무담당과 운영담당을 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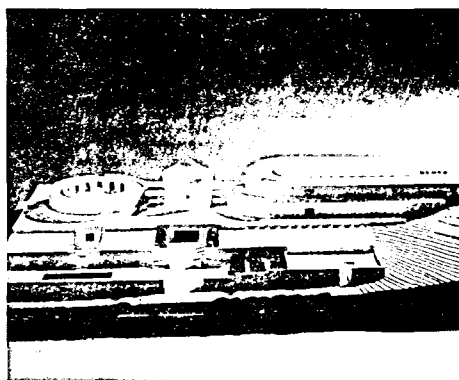
초기의 국립현대미술관은 제반 요소를 완비한 본격적인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의 성격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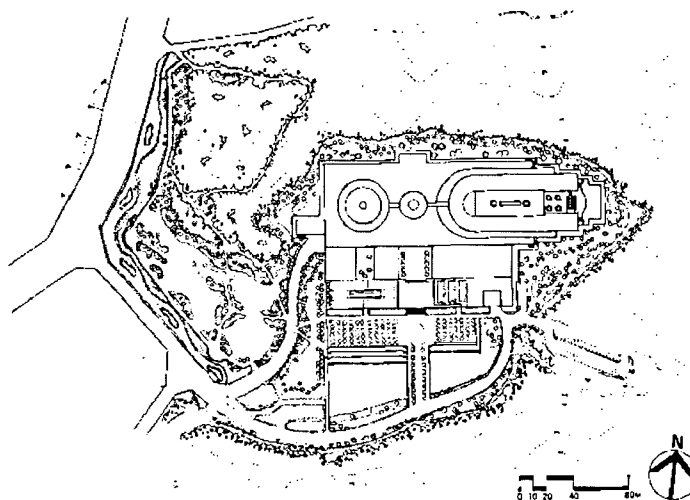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전경(1990년대 초반)



미술관 모형도 1



미술관 모형도 2



미술관 배치도

이에 전시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미술관으로서 기본이 되는 기능 발휘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미술관 운영상의 조직 확대가 요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72년 7월 19일 직제가 개정·공포되어 사무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미술관 일을 전시과, 서무과, 조사연구과의 3개 과로 나누어 분장케 하는 등 운영조직을 변경하여 미술관 기능의 분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술관의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1973년 7월에 한말 영빈관으로 사용되었던 덕수궁 석조전을 개조하여 이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3년간의 소위 덕수궁 시기(1973~1986)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전시공간 확보에 따른 상설전시와 조사연구를 통한 작품수집, 나아가서 전시기획과 실천의 제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미술관 전문 업무를 담당할 행정조직 체제가 완비되지 못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조사연구과는 설치 6년 경과 후인 1978년 8월 직제 개편으로 다시 폐지되었고, 정원은 20명 남짓이었다.

한편, 덕수궁 시기의 국립현대미술관 업무와 활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그 하나는 소장품의 적극적인 수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설전시를 위시해서 각종 전시회가 다수 개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미술관 수집 작품은 우리나라 근·현대 주요 미술작품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소장가의 특별기증이나 예산의 획기적인 지원 없이 1,000점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후 과천 시기(1986~현재)는 진정한 의미의 미술관 조직정비가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독자적인 건물의 신축 이전과 함께 정원이 100명으로 늘어났고 전문요원의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학예연구실과 섭외교육과를 신설하여 조사·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확충하였다.

나. 과천 이전 배경

1980년대 이르러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 수요의 양적인 팽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 무렵부터 미술관 기능에 있어서 작품 소장뿐

만 아니라 미술문화의 보급과 교육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981년에는 그간의 행정관료 출신 기관장 대신에 미술 전문인이 채용되었는데, 제9대 관장으로 미술평론가 이경성이 취임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위 전문가 관장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이 뒤따르자 국제적 규모와 야외조각전시장을 겸비하고 국립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술관 전문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행정조직 체제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미술관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앙정부 또한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면서 독립된 현대미술관을 빨리 건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두 개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찾은 수많은 국내외 관람객에게 비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신축은 시급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이전의 배경을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덕수궁미술관 건물은 향온향습과 방재에 필요한 내부시설과 구조면에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했다. 둘째, 미술가의 양적 증가로 대전시회의 경우에는 작품을 전시할 전시 면적이 부족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전시하는 등 규모면에서 날로 증대하는 미술 인구를 수용하기에 곤란한 실정이었다. 셋째, 오늘날 미술관 개념이 단순한 작품의 소장, 전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정서함양과 환경적 창조의 틀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적인 미술관 건립이 필요했다. 넷째,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미술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1980년 10월 2일에 제29회 국전이 개막되었고 대통령 내외가 개막테이프를 끊었다. 이 국전을 둘러본 뒤 대통령은 수행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야외조각전시장을 겸비한 현대미술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86아시안게임이 개막되기 이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정부방침이 수립되었다.

마침내 단시일 내에 국제수준의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정부방침이 세워졌고, 이는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수리 보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을 새로 건립한다’라는 내용이었다.

(2) 건립 과정

가. 추진경위와 추진기구

새로 건립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지 역할은 물론, 국민의 미술교육과 휴식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미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문화의식 고취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미술관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와 각종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였다. 건립의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미술문화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야외조각전시장을 겸비한 미술종합센터로 건립하고, 둘째, 건물은 국제적 규모로 하여 근대식으로 짓되 고전미가 나도록 하며, 셋째, 미술관의 주요 기능인 전시기능, 교육기능, 조사·연구기능, 과학적인 보존기능을 강화하고, 넷째, 예술문화의 산 교육장을 겸한 정서적인 휴게와 관광 명소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 설정은 미술관의 성격과 규모, 부지선정, 건물계획 등 건립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신중한 연구·조사를 통해 미술관의 기능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기능은 전시기능, 교육기능, 조사·연구기능, 보존·관리기능, 휴게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건물계획은 건물 구성계획과 야외조각전시장 구성계획으로 나누어 방향을 정립했다. 첫째, 건물 구성은 종래의 정적인 전시를 탈피하여 동적인 전시로 전시기능을 조화시키는 한편, 각 전시장에 공간적 특성을 부여하고, 미술관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미술과 관련성이 있는 타 장르 예술의 수용공간을 마련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수한 작품의 기증 및 확보를 위한 특별전시실을 설치하고, 미술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외국작가의 작품 전시실을 마련하며, 미술 인구의 저변 확대와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둘째, 야외조각전시장 구성계획은 정원을 설치하여 대표작품코너를 마련하고, 잔디조각전시장에는 상설조각전시장, 어린이조형광장, 기획전시광장, 조각실기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술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

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관의 개념과 기능 설정을 위해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건물규모 산정을 위해 전체 규모, 각 건물별 규모, 각 실별 규모를 산정하였다. 셋째, 합리적 계획에 대한 작업을 위해 자료에 의거한 장래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설정하였고, 건립 계획을 위한 기초적인 건축 자료를 수집하였다. 넷째, 부지선정 작업을 위해 합당한 규모의 건립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미술관이라는 하나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개념을 갖추어야 했다. 오늘날 미술관은 전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점차 교육과 정보 보급의 역할로 확대되고, 문화센터로서의 손쉬운 접근성을 점점 요구하는 추세이다. 또한 전시, 교육, 보급의 방법 등이 짧은 기간에 변화하므로 가변성과 융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의 순수기능에 교육, 홍보, 휴게 등의 복합 개념을 구비해야 하고, 일시에 최대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하여 그 규모를 고수하기보다는 합당한 최소 규모를 정하여 기초적인 시설을 갖춘 다음 점진적으로 증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었다.

규모의 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각 실의 소요면적을 추정하여 건물 연면적을 산정한 후 이 자료에 준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법과, 이와는 반대로 부지면적이 고정되어 있어 연면적을 추정하여 건물구성 배분비에 따라 각 실의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규모에 맞는 합당한 부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전자의 방법으로 규모를 산출하였다. 규모산정 결과, 점차적인 건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총규모를 최대 규모와 최소 규모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최대 규모는 미술관 1만 평, 야외조각전시장 2만~20만 평이며, 최소 규모는 미술관 4,000평, 야외조각전시장은 가변적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부지 선정을 위해서 대상후보지로 17개소를 선택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과천 서울대공원 위락지구예정지 일대, 과천 서울대공원 입구 절대농지, 구 서울고등학교 부지, 구 휘문고등학교 부지, 현 덕수궁 등 5개소를 건립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건립부지는 문화적으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건립되는 장소는

현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문화적 영향을 중요시하면 강남쪽의 부지가 적합하고, 후자의 생활문화를 중요시하면 강북쪽의 부지가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었다.

1981년 7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9일 제1차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건립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9월 22일에는 건립추진위원회 내에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실무소위원회가 발족하였다. 한편, 1984년 3월 29일 미술관 신축공사의 착공을 시발로 하여 건립공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공사업무의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공사진행 전반에 걸친 기술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립공사기구의 체제가 요구되었다. 특히 공사 진행에 수반되는 공정상의 관리와 기술적인 지원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조달청에 위임하였고, 기술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건립추진기구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건립공사 시행에 따른 조직이 다양해지면서 업무체통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공사집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공사기구를 편성·운영하였다.

건립추진기구는 건립추진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로 구성하였다.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문화공보부차관으로 하였다. 그 역할은 미술관 건립에 관한 정책, 기술, 조사연구활동에 대한 자문이었다. 실무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였으며, 그 역할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각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17차례에 걸친 회의와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하여 건립계획을 설정하고, 기초자료를 조사·검토하였고, 부지의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심의 의결, 설계검토 및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자문 등 미술관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립공사기구의 구성은 문화공보부장관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장, 건설본부장, 공사실무를 담당하는 감리단과 행정반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고, 공사 전반에 관한 총괄지휘는 건설본부장이 수행하였다. 감리단은 감리단장을 위시하여 총감독, 감독반, 검사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고, 행정반은 공사집행을 위한 공정관리, 행정처리업무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건립부지 선정

① 선정 기준과 후보지 조사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는 국민들의 미술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미술관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시킴으로써 문화생활의 중심을 형성하며, 한국 현대미술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기능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휴게기능을 조화롭게 포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했다. 따라서 문화공간을 형성하며 장래의 발전을 고려한 합당한 부지 선정은 미술관 건립에 절대적인 요건이었으며, 미술관의 성격과 기능은 건립 장소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부지 선정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의 하나였다.

근대미술을 포함하여 현대미술과 현대문화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미술관의 부지 선정에 앞서 선정 방향이 결정되어야 했다. 즉, 기존의 박물관 같은 문화공간에 인접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는 방향과 새로운 문화지역을 형성하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영역을 만드는 방향, 이 두가지 방향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미술관의 부지 선정 방침이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당장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향과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병행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검토를 근거로 한 미술관의 부지 선정 기본 방향은 공간적으로는 새로운 문화영역을 형성하며, 선정된 부지에 즉시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후보지의 범위는 서울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전철 또는 고속도로 이용으로 1시간 내의 지역으로 하였다. 또한 도시에서의 생활문화중심지, 앞으로의 문화적 중심가능지, 공원녹지 등의 외부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국민의 공공휴양지가 있는 지역, 그리고 역사적·기념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입지조건은 부지의 형상이 미술관의 적정규모를 충분히 수용하며 확장에 따른 부지 확보가 용이해야 하고, 야외조각전시장은 실내조각장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독립성을 지닌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했다. 또한 수동적인 전시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접근 개방성이 있어야 하며, 주변 확대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광, 행사, 휴식 등의 부대기

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했다. 환경적 조건은 미술관의 대중성과 공공성에 따라 자연환경, 위생환경, 주변의 인위적 환경 등에 토지이용상의 저해요소나 비조화요소가 없어야 했고, 인위적 조건인 법규의 제한사항, 부지 구입의 용이성, 지가 및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 또한 시공의 난이도와 장애요소에 대한 검토를 했다.

미술관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작업은 당초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후 건립추진 기구에서 각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비교·검토함으로써 합당한 부지를 선정하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 선정이 어렵게 되어 제반 조건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 지역을 대상 후보지로 선별하게 되었다. 후보지 선정에 있어 주안점으로는 우리 문화발전의 중심대가 될 수 있고 풍치가 수려한 지역, 휴양지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소개와 미술문화 창조의 장이 될 수 있는 지세와 주변 여건을 갖춘 지역, 교통이용의 편리로 관람객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미래 발전가능 지역 등을 고려하였다.

부지 선정을 위한 6차례에 걸친 후보지 조사에는 총 27개소가 대상이 되었다. 제1차 후보지(1980. 10. 16.)로는 남산야외음악당, 여의도, 장충단공원, 구 서울고등학교 등이, 제2차 후보지(1981. 5. 29.)로는 강남 서초동 인근, 과천, 남산야외음악당 등이, 제3차 후보지(1981. 10. 6.)로는 서울대공원 민자유치지역, 서울대공원진입로 절대농지지역, 구 서울고등학교, 구 휘문고등학교 등이, 제4차 후보지(1982. 5. 12.)로는 서울대공원, 덕수궁, 중앙청 등이, 제5차 후보지(1982. 7. 29.)로는 충청 지역인 유성 부근과 과학기술처 연구단지 부근, 경기 지역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근과 남한산성 부근 등이, 제6차 후보지(1982. 8. 31.)로는 서울대공원 내 2개소, 과천 남태령 부근, 유성 북룡리 동산 2개소, 수원 여기산, 강남 양재동 동산, 현인릉 부근, 관악산 남편 관양동 녹지대, 시흥 백운산 서남편, 청계산 남편 금토동, 부천 소래산 서남편, 남한산성 서편 천마산, 영릉 부근,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입구, 천안 경엄산 남쪽 등이 선정되었다. 이들 후보지를 비교·분석하여 건립부지를 확정하였다.

② 부지 선정

제6차 후보지 조사에서 검토된 17개 후보지를 비교·분석하여 선별한 결과,

건립부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서울대공원, 유성 복룡리 동산 등 2개소를 선정하였고, 1982년 9월 30일에 후보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서울대공원을 국립현대미술관의 건립부지로 확정하게 되었다.

건립부지 선정작업은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 10월의 1차 후보지 조사를 계기로 하여 6차에 걸친 후보지 조사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로 서울대공원을 선정한 것은 우선 개념적 측면에서 국립 문화시설은 국가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고, 해당 부지가 현대성과 조화를 이루기에 용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규모면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는 대규모 전시관을 수용할 만큼의 면적과 야외조각전시장을 위한 외부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문화적으로는 생활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서 국민휴양지와 관광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또한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시의 발전방향과 조화되어 미래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아야 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서울대공원이 국립현대미술관 부지로 선정되었다. 더욱이 서울대공원은 지형적으로 주변 산과 호수가 조화된 수려한 경치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공원이 상호 보완기능을 함으로써 건립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었다.

건립부지는 서울대공원 문화시설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 부지는 당초 서울대공원 기본종합계획에서는 청소년 문화시설지역과 자연보호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함은 서울대공원 기본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전제로 할 때야 가능한데, 서울시는 1982년 11월 9일에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 시유지 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 실무진이 1982년 11월 25일 서울시와 부지사용 협의를 하여,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미술관 신축을 위한 2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③ 부지의 특성

건립부지는 행정구역상으로 과천시 막계동 서울대공원 문화시설지역에 위치하고, 서울의 중심부로부터는 남쪽으로 15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의 최남부에서는 5km 떨어진 지점이다. 청계산에서 분기되는 능선의 산록과 골을 형성하는 곳

에 자리 잡고 있다.

건립부지는 서울대공원의 진입부 주차장에서 약 1km의 거리에 있으며 동물원과 서울랜드 부지의 중간에 위치한다. 부지면적은 2만여 평으로 건물 1만 평, 야외조각전시장 1만 평으로 계획하였고, 부지의 동측은 청소년 문화시설지역과 계곡이 있으며, 서측으로는 한마당과 호수에 접하고 있다. 신선하고 휴양지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지는 경치가 수려하고 정면에 약 7만 2,000여 평의 호수가 있으며, 남쪽 2km 지점에 정부과천청사가 위치함으로 해서 교통, 통신, 기타 기반시설 등 많은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하고, 주변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건립부지의 일반적 기후와 기상을 살펴보면, 풍향은 여름철에는 주로 계절풍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청계산의 능선을 따라 건립부지를 통과하여 호수로 유입되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호수를 통과하여 유입되고 있었다. 겨울철에 북서풍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계시에 신중한 고려가 요망되었다. 기온은 연평균 최대 16.5℃, 최소 7.5℃ 였고, 습도는 연평균 69%였다. 강우량은 연평균 1,364.8mm였다.

이 지역은 북동쪽으로 옥녀봉(373m), 동쪽으로 망경봉(618m), 남동쪽으로 국사봉(538m)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4.4km 떨어진 곳에 관악산이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보았을 때 2개의 능선 사이에 놓여 있으며, 동서방향 능선상의 표고 75~132m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경사도는 대체로 25% 이상이며, 15% 이하는 부지면적의 1/5 정도로 부지의 대부분이 경사지이므로 건물의 배치에 있어 경사지를 이용한 건물계획이 요구되었다. 부지는 능선을 경계로 하여 북사면과 남사면으로 구분되고, 남사면은 북사면보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이어서 이용상 유리한 점을 갖고 있었다.

건립부지 일대의 지질은 변성암류에 속하는 안구편마암과 부분적으로 토상편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세장한 본 부지에는 산릉 주변으로부터의 운반물이 퇴적되었으며, 풍화잔적토에 의한 전형적 갈색삼림토인 실트질 점토가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다. 추진계획

건립부지면적이 서울대공원 문화시설지역 2만여 평으로 확정됨에 따라 설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건물계획에 수반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건물계획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설계안을 모집하여 각 분야별로 심의·분석하였다.

건물계획지침을 보면, 위치는 서울대공원 문화시설지역으로 하고, 부지면적은 2만 평(건축부지 1만 평, 야외조각전시장 1만 평), 각실 면적 배분비율은 전시실 42%, 수장보관실 12%, 조사연구실 12%, 사무관리실 6%, 부속시설 28% 등으로 구성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고전미를 가미한 근대식 건물로 하고, 지하 1~2층, 지상 3~4층으로 합리적인 구조에 전시실 중심으로 모든 기능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야외조각전시장은 기념조각광장, 심포니조각정원, 비엔날레광장, 대표작가코너, 어린이조형광장, 조각실기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서울대공원 시설 전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배치하고, 본 건물은 전면, 야외조각전시장은 후면 구릉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계 모집방안은 일반공모, 지명계약, 지명공모 등의 3개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추위)에서 지명공모를 가장 적합한 선정방안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건추위에서 추천한 5명 이상의 설계자로 하여금 기본설계안을 제출토록 하였다. 작품심사는 한국건축학회에 의뢰하고, 건추위에서 추천한 선정위원이 심사하며, 선정된 작품의 설계자와 실시설계를 계약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였다.

건추위에서 설계후보자 7명(강석원, 김기웅, 김수근, 김정철, 김원, 김태수, 윤승중)을 추천하여 선별한 결과 김수근, 김태수, 윤승중에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출받아 설계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주어진 기간 내에 계획·설계안을 제출한 김수근과 김태수의 계획설계안을 건추위에서 최종 심의·분석하였다. 김수근 안은 전통 가람배치를 의도한 단계식 분산형이었고, 김태수 안은 성곽과 봉수대 외형을 지닌 3동 건물 집중형이었다.

설계안을 검토한 결과, 김태수 계획설계안이 미술감상에 따른 자연채광의 이

용, 관람객 편의를 위한 전시공간의 단절 없는 구성과 건물의 외형이 자연과 지형에 조화된 표현 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1982년 12월 6일 국립현대미술관 설계안으로 김태수 계획설계안을 확정하였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건물의 배치는 서울대공원의 중심축이 되는 망경봉 서쪽 산록의 자연지형을 활용한 남향으로 하고,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였다. 건물형태는 한국 전통건축의 성곽과 봉수대를 반영한 기단식 건축물이며, 건물의 주기능은 중앙의 나선형 램프코어를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회화전시실, 좌측으로는 조각전시실을 계획하여 3핵 일치로 구성하며, 건물 남쪽의 기단식 정원과 주위의 부지는 자연지형과 기존 수림을 활용하여 야외조각전시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는 김태수(Hartford Design Group)에게 일임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실시설계는 실제 시공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며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김태수와, 그가 지명하는 국내거주 설계자 1명이 함께 협동으로 실시설계를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설계자가 김인석을 지명함으로써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완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로 설계책임자와 임원을 편성하여 설계진을 구성하였고 그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 건축분야 : 김태수 외 14명, 김인석(종합환경연구소 일전) 외 31명
- 건축구조분야 : 마춘경
- 기계설비분야 : 이홍규(무애설비연구소)
- 전기설비분야 : 이영수(새한설계컨설팅)
- 토목분야 : 김명길(동명기술공단)
- 조경분야 : 강대영(성림조경)

설계기간은 1982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계획설계는 1983년 3월 15일, 기본설계는 1983년 5월 31일, 실시설계는 1983년 12월 31일에 완료되었다.

라. 설계 및 시공

① 설계

미술관 설계에 있어서는 부지조건을 적극 고려하고, 한국적 조형의 전통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미술관 내·외부 공간에 주변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인공미와 자연미의 조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미술관 소장품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모든 장소가 미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주는 현장이 되도록 승화시킴으로써 통합적 미체현의 현장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에서 설계의 기본적인 요소를 찾아 국제적·현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기능적 유연성과 시각적 완결성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립현대미술관 건축을 위한 설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 기본방향

ㄱ. 건축계획

공간구성에 있어서 외부공간은 단에 의한 공간의 분절을 추진하고 건물 높이에 맞춘 마당깊이로 개방성을 추구하였다. 공간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완결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천창을 통한 자연채광을 적극 도입하여 쾌적한 전시실 조명환경을 만들도록 계획하였다. 진입 동선은 서울대공원입구에서 미술관까지는 보행위주로 되었으며, 일반차량과 특수차량은 미술관까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배치는 능선축과 건물축을 일치시켜 주변 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게 하였다. 진입로를 분리하여 진입 시 경관의 변화를 부여하고, 부축을 설정하여 조망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연못을 조성하여 문화공간과 위락공간을 상징적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미술관 전면 지형을 활용하여 기단식 테라스를 조성하였고, 테라스를 옥외조각전시장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은 전통적인 산성과 봉수대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고전적 조형요소를 도입하였고, 3핵 구성으로 동선과 방향성을 명료화하였다. 또한 원형 도입과 층의 구성을 통하여 주위 환경의 연속적 조망과 건물의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발코니

와 옥상전시장을 설치하여 전시공간과 직접 연결시켜 관람객의 휴식처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ㄴ. 기계설비계획

기계설비계획에서는 우선 미술품의 최적 상태 보존을 위해 온도, 습도, 유해가스, 빛 등 각종 악조건을 피하도록 고려하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관람자의 쾌적한 감상을 위해 용도별 조건에 맞도록 조닝(Zoning)을 하였다. 공조, 위생, 방재 등 미술관 설비는 중앙집중식 관리로 하여 효율화와 안정성 향상을 기하도록 계획하였다.

ㄷ. 전기설비계획

전기설비계획에서는 기능성, 즉 미술관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에 부응하는 성능을 갖추도록 하였고, 최신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장래의 부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설비 자동화에 의한 운영관리의 용의성을 추구하였고, 설비비와 운영비가 저렴하며 수명이 길고 고장이 적도록 계획하여 경제성을 추구하였다. 건축과 전기설비가 조화될 수 있도록 의장성도 고려하였다.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ㄱ. 건축분야

평면설계의 경우, 미술관을 크게 4군으로 구성하여 주축방향의 중앙에 램프코어, 좌측에 조각전시장군, 우측에 회화전시장군, 지하층과 진입부 좌측에 부대시설군을 배치하였다. 중앙 동선코어는 원형으로 계획하여 경사로를 통해 각 전시실로 연결하였다. 천정은 원추형으로 계획하였고, 건물 진입공간은 계단식 광장을 마련하여 옥외전시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입면설계에서는 건물의 외관에 고전적 조형성을 부여하였고, 건물의 입면에서 회화, 조각전시장과 동선코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기능이 외부에서 예측되도록 계획하였다.

구조설계 기준은 건설부령 및 각종 구조설계의 기준에 따랐으며, 설계하중은 건설부령에 의거하여 정하였다.

ㄴ.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설비는 23개소로 구분하여 공기조화 조닝(Zoning)과 설비를 계획하였고, 공기조화방식은 단일덕트와 가변풍량조절(V.A.V)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오염공기 제거방식은 환기량의 조절과 각 부위에 합당한 필터(Filter)의 사용을 계획하였다.

급·배수설비는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 계획하였다. 급수설비로는 시수·정수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급수방식은 고가수조식을 계획하였다. 급탕설비는 기계실에 온수가열기를 설치하여 중앙공급방식으로 계획하였고, 배수설비는 단일식 배수관으로 가능한 중력식으로 배수하도록 계획하였다.

소화설비는 화재발생 시 인명과 미술품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하론가스설비 등을 설치 계획하였다. 특히 수장고, 전기실, 전자기기 설치지역은 소화활동 때에 미술품 훼손과 전자장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 후에도 오염이 없는 하론가스 설치를 계획하였다.

자동제어설비는 중대형 건물에 적합한 용량으로 단일기능은 물론 종합적인 시스템제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제어방식은 운전과 제어를 고려하여 공기식으로 계획하였다.

주방설비는 중급정도의 자동화방식으로 계획하였고, 열원은 가스와 전기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ㄷ. 전기설비분야

전력설비는 수·변전 설비, 비상용 전원설비, 중앙감시제어반설비, 전력간선설비, 전등설비, 대강당 무대조명설비, 전열설비, 동력설비, 피뢰침 및 접지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특히 한국전력 책임 분계점으로부터 건물 변전실까지 인입계획인 수·변전 설비, 정전시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비상용 전원설비, 수·배전 설비기기를 제어·감시하기 위한 중앙감시제어반설비를 계획하였다.

약전설비는 방송설비와 전화교환대 및 전화설비, 텔레비전 공시청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 계획하였다.

방재방법설비는 중앙제어반을 감시 운용할 종합방재반설비와 각 부서별로 자동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자동화재경보설비와 CCTV 카메라, 입체 감지기, 진

동 감지기, 마이크로 웨이브, TV 모니터 등 각종 감시기기를 설치하는 방법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ㄴ. 조경분야

조경 식재계획을 보면, 기존 자연환경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기능적이며 균형적인 인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공간 구성, 소재 활용, 배치 기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경미를 갖도록 고려하였다. 인공 구조물이 주변의 자연과 균형적인 조화를 갖도록 수종 선정과 배식계획을 수립하였고, 계절적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경관의 창출을 도모하도록 계획하였다. 지역별 배식은 진입로 주변, 야외조각전시장과 산책로, 전면광장 녹지, 전면광장 진입로 주변, 공사로 인하여 절·성토가 이루어진 지역에 계절, 경관미, 수종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조경시설은 기능별로 특징과 통일성을 부여하여 타 시설과의 조화를 통한 연계성과 공공문화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다. 형태는 건물 외관과 조화되며 전통미와 향토미를 고려한 단순한 형태로,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색은 주위 경관 및 건물 외관색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자연색을 활용하도록 계획하였다.

ㄷ. 전시기획분야

전시기획에서는 미술관의 핵심기능인 전시기능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들을 각 전시실의 기능과 성격에 맞게 전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새로운 유형의 조형활동 및 다른 장르의 예술활동도 포용할 수 있게 종합적인 문화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전시공간 배치계획을 보면, 1층에는 원형전시실 I, 제1·2전시실, 대여전시실을, 2층에는 제3·4전시실, 원형전시실 II, 옥상광장을, 3층에는 제5·6전시실을, 그리고 옥외조각 및 야외조각전시장을 두도록 계획하였다.

전시시설에서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상호 보완적으로 구상하였고, 전시실은 통일된 이미지 부각과 다양한 공간구성을 시도하였다. 관람동선체계는 관객의 흐름에 막힘이 없게 설정하였다.

② 시공

국립현대미술관은 부지면적 7만 3,361㎡(2만 2,192평), 건축면적 1만 6,661㎡(5,039평)에 연면적 3만 4,006㎡(1만 287평), 야외조각전시장 3만 3,000㎡(약 1만 평)으로 계획되었다.

공사 추진일정을 보면, 공사기간은 1984년 3월 29일부터 1986년 7월 30일까지 약 28개월로 하였다. 연도별 공사일정은 1984년에는 부지 정리공사와 기초터파기 등 토공사와 건물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등 기초공사, 1985년에는 건물전체 골조 완성, 외부 돌붙임공사, 내부 마감공사 및 각종 설비공사, 1986년에는 기자재 설치공사, 야외조각전시장 및 주위경관 조성공사,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등을 계획하였다. 공사 계약은 장기계약방식인 1차 계약(1984. 3. 24.), 2차 계약(1985. 2. 9.), 3차 계약(1986. 5. 6.)으로 나누어 체결하였고, 계약 일정에 따라 총 6차례의 설계변경이 실시되었다.

시공업체 선정의 경우, 미술관 성격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순위, 재무구조 등을 기준으로 우수시공업체 15개사를 선별한 후 지명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1984년 3월 15일 조달청 위임발주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최저입찰자인 (주)대우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입찰가 산출방식은 설계도가 완성되어 공사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장기간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장기계속계약 총액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경공사는 별도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토목공사는 건립부지를 전시동, 야외조각전시장, 수변조각전시장, 도로개설 및 우배수시설지역 등으로 구획하여 토공사, 배수공사, 도로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 5개 공정으로 시행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만 4,006㎡(1만 287평)로 건립되는 대형 구조물이다. 따라서 건축공사도 총 19개 공정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본 공사는 198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설공사는 공정상 필요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사무실, 숙소, 전력, 도로, 용수 등을 병행 실시하였다. 정지작업과 건축물 기준점 및 수평 기준를 설치 후 토공사와 지정공사가 실시되었다. 철근콘크리트·철골공사에서는 중앙 램프코어에 의장적인 처리를 위해 의

장마감재용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원형전시장, 화랑전시장, 대여전시장의 경우엔 시각적 개방과 천창(Sky Light) 활용을 위해 철골조로 하였다. 그리고 조적 및 방수공사, 미장 및 도로공사, 석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기타 공사가 시행되었다.

전체 건축 공정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것 중 하나가 석공사다. 석공사는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분홍색 화강석으로 시공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석산을 조사하고, 원석 확보 여부와 채석량, 석재의 질, 유통 과정 등을 정밀 조사하였다.

기계설비공사는 공기조화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위생설비공사, 배관공사, 분수설비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공기조화설비공사에서는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학예연구실 등 기능별로 23개 구역으로 조닝하였고, 공기조화방식으로 단일덕트방식과 공기정화시설, 환기시설을 시공하였다. 소방설비공사로는 미술품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론소화시설,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을 시공하였고, 특히 전시실과 수장고에는 하론소화시설, 중앙제어실과 교환실에는 하론팩케이지 소화시설을 시공하였다. 분수설비공사에는 미술관 주출입구 광장에 원형분수대와 기단식 정원에 옥외분수대를 시공하였다.

전기설비공사는 전력설비공사, 약전 및 통신설비공사, 방법 및 방재설비공사 등 15개 공정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전력설비공사로 서울대공원 지하 공동구 내에서 분기한 지중선로공사와 케이블공사를 실시하여 미술관까지 인입한 수·변전설비공사, 전력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동력공사, 전력간선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약전 및 통신설비공사는 방송설비공사, 전화공사, 무대방송설비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또한 방법 및 방재설비공사는 각 감지기의 동작상태 변화를 컴퓨터로 이용하여 집중감시 및 제어함을 목적으로 중앙집중제어반, 컴퓨터 보조기능, 특수전원장치,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등을 시공하였다.

조경공사는 야외조각전시장과 주변 공사부지를 현장여건에 따라 11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역현황과 기존식생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시공하였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상량식



과천 국립현대미술관(1990년대 중반)

③ 예산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는 총 192억여 원이 투입되었다. 본래 건립 총예산은 착공 당시 204억여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중 조경공사를 제외한 순수 건물신축 공사비로 98억여 원이 책정되었으나, 공사진행 중 5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건물공사비가 11억여 원 증액되었고, 별도발주로 시행된 조경공사, 전시 장치공사, 기자재설치, 부대공사 등을 잔여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준공 당시 미술관 총건립비는 192억여 원이었다. 처음에는 외국 자재로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국산 자재로 대체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4) 국립과천과학관²⁾

〈일반현황〉

- 부지면적 : 243,970m², 건축연면적 : 49,050m²
-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 최고높이 : 33.3m
- 주요시설 : 옥내외 전시시설, 천체관, 천체관측소, 생태체험학습장, 과학캠
프장 등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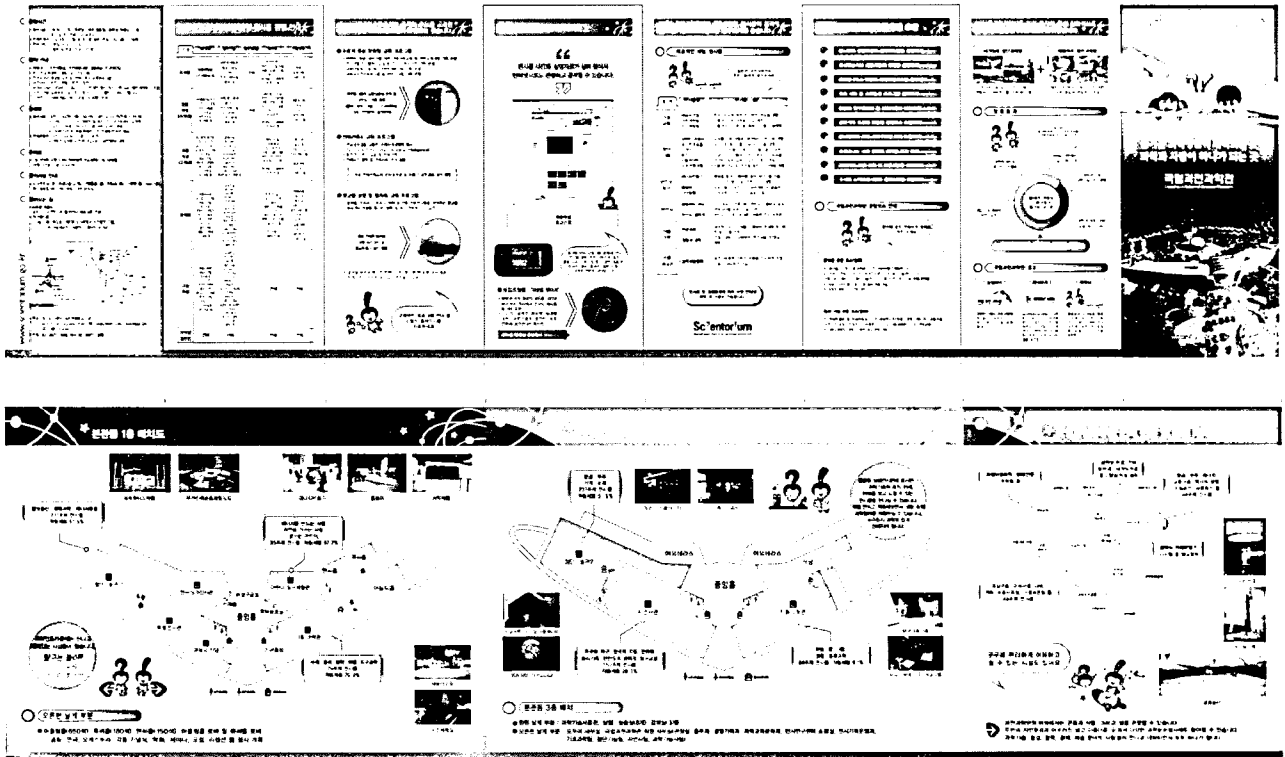
- 2001.04 제34회 과학의 날 대통령 치사에서 국립과천과학관 건립 발표
- 2001.06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KDI)
- 2002.02 부지선정(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인근 10만평)
- 2002.12 전시개념설계경기 입상작품 선정
- 2003.11 전시기본설계경기 입상작품 선정 및 실시설계권자 선정
- 2003.12 과학기술문화창달계획 반영(제1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4.12 설계, 시공자 선정
- 2005.06 건축 기본설계보완 및 실시설계 착수
- 2005.10 전시 기본설계 조정 및 실시설계 착수
- 2006.04 전시실 설계착수
- 2006.04 건축공사 착공
- 2006.12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 계약 및 착수
- 2007.04 건축공사 상량식
- 2007.06 본관 등 골조공사 완료
- 2007.09 기관 명칭 〈국립과천과학관〉 제정
- 2008.08 제1대 장기열 관장 취임
- 2008.10 건축공사 준공식

2) 국립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torium.go.kr>)참조

2008.11 국립과천과학관 공식 개관

2009.05 과학관 관람객 백만명 돌파

2009.10 제2대 이상희(전 과학기술처 장관) 관장 취임



국립과천과학관리플렛

국내 최대 국립과천과학관 14일 문연다

작동·체험 중심 4천203점 전시... 연말까지 무료개방

2008년 1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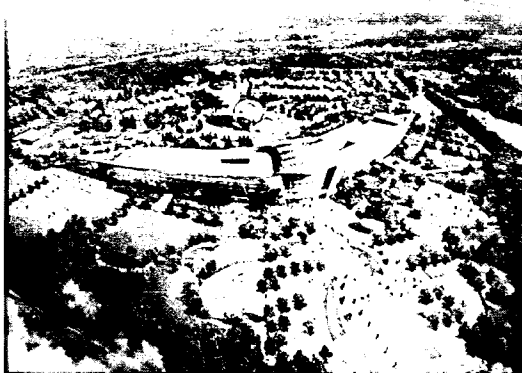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다양한 첨단 과학 전시물을 직접 보며 작동해보고 체험하면서 과학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장기열)이 14일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과천과학관은 14일 오전 과학관 어울림관에서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일반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행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일반 시민에게 본격 개방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가 4천 500억원을 들여 2년 6개월 만에 완공한 국립과천과학관은 서울대공원 앞 24만 3천90㎡의 부지에 전체면적 4만 9천40064㎡, 전시면적 1만 9천127㎡를 갖춰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의 3배 규모를 자랑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과학관(본관)과 천체관 천체관측소, 옥외전시장, 생태학습장, 과학캠프장, 과학조각공원, 과학문화광장, 노천극장 등을 갖추고 있다.

기초과학관과 자연사관 전통과학관, 첨단기술관, 어린이탐구체험관, 명예의 전당, 연구성과전시관 등으로 꾸며진 상설전시관을 중심으로 685개 주제, 4천 203점의 첨단 과학전시물을 전시한다.

전시물 가운데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작동·체험형 전시물이 51.6%를 차지하며 특히 4~10세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과학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어린이탐구체험관은 97.2%가 실험·실습 전시물이다.

장기열 과학관장은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와 체험, 놀이와 교육이 융합된 열린 과학관”이라며 “청소년들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육성의 산실



국립과천과학관 조감도

로, 어른들에게는 과학기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과학문화의 전당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상설전시관 등 일반시설은 소인 2천원(단체 1천 500원), 대인 4천원(단체 3천원)이며천체투영관 관람료는 소인 2천원, 대인 3천원이다. 상설전시관은 2008년 말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과학관..비상하는 한국 과학 형상화 = 국립과천과학관 본관인 과학관은 높이 33m, 폭 400m로 앞쪽이 높게 설계된 미래 비행체 모양으로 ‘비상하는 한국 과학’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했다.

과학관에 들어서면 중앙홀 머리 위로 태양과 8개의 행성, 행성궤도 사이를 날아가는 3명의 인간으로 구성된 조형물 ‘태양을 찾아서’가 눈에 들어온다.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에 대한 무한 도전을 상징한다.

과학관은 기초과학관과 자연사관, 전통과학관, 첨단기술관, 어린이탐구체험관, 명예의 전당, 연구성과전시관 등으로 꾸며질 상설전시관과 주제를 정해 일정기간 전시하는 특별전시관, 실험실습실(8개) 등으로 짜여 있다.



자연사관 '생동하는 지구'

과학관은 '느끼는 과학'이라는 개념에 따라 3차원(3D) 입체 영상장치와 시뮬레이터 등 각종 첨단 기법을 적용하는 한편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지진, 태풍, 극지체험실과 우주정거장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우주정거장 모듈 등 전체 전시물의 51.6%가 작동·체험형이고 4~10세 어린이들이 소꿉놀이하듯 과학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어린이탐구체험관은 97.2%가 실험·실습 환경이다.

기초과학관에서는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등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원리를 스스로 작동해보는 실험전시물 등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극지체험실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남극 세종과학기지과 화상통화를 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특히 기초과학관 입구에 자리잡은 '테슬라코일'은 400만V의 고전압에서 내뿜는 전기스파크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400만V의 고전압과 접지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생성되는 스파크는 자연에서 번개가 발생하는 원리를 보여준다.

또 기초과학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진체험실. 입체안경을 쓰고 지진시뮬레이터에 탑승하면 리히터규모 7의 진동을 일으키는 시뮬레이터와 입체영상을 통해 생생한 지진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사관은 자연과 인류의 탄생과 진화, 한반도의

생태계 및 지질 등을 볼 수 있으며 전통과학관에서는 우리 고유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으로 해석하고 원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자연사관에 설치된 '생동하는 지구(SOS)'는 미국해양대기청(NOAA)이 개발한 전시물로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실시간 해수온도, 태풍과 구름의 이동 모습 등 지구 자연환경 자료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지름 2m의 구(球) 표면에 3D 동영상으로 투영해 보여준다. 상설전시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첨단기술관에서는 무중력 적응훈련 시설 등 생명과학과 유비쿼터스, 항공우주, 나노 및 로봇 등 성장동력 중심의 미래 가상세계를 만날 수 있다.

과천과학관 관계자는 "모든 전시관이 테마별 전시(스토리중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관람객들은 오감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작동물을 경험할 수 있다"며 "관람을 마치면 마치 한 편의 과학영화를 본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천체관..우주여행 환상 체험 = 천체관에는 천체현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상영하는 내부 지름 25m짜리 돔 구조의 천체투영기와 3차원 동영상 기기가 설치돼 있어 과학영상을 통해 우주여행 등 환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천체관과 연계돼 운영되는 천체관측소에서는 직경 1m짜리 망원경과 천파망원경 등이 설치돼 있어 일반 관람객은 물론 전문가들도 직접 별이나 태양을 관찰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과학과 놀이 문화가 연계된 '과학테마파크'인 야외전시장은 항공·우주, 에너지, 교통·수송, 역사의 광장, 지질동산, 공룡동산 등 6개의 테마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항공우주 광장에는 1995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방송·통신 위성인 '무궁화위성'을 싣고 발사됐던 미국의 '델타Ⅱ 로켓'과 내년 발사될 한국 최초의 위성발사체 'KSLV-1'이 실물 크기 모형



자연사관 '생동하는 지구'

으로 설치돼 있다. 생태체험 학습장은 생태연못, 수목원, 야생화원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이다.

과천과학관은 전시관 운영과 함께 유아와 초중고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과학교실과 기초과학교실, 전시물탐구교실, 가족과학교실 등 실험중심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